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우 옥 희

2019년 2월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

지도교수 김 대 영

우 옥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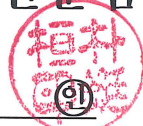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우옥희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정 환



위 원

주 영 호



위 원

신 원 석



위 원

김 성 봉



위 원

김 대 영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2월



Curriculum Standards Development for High School Credit System

Ok-Hee Woo

(Supervised by professor Dae-Young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Education.

2018.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Jung-Hwan Park Prof. of Education

Thesis director, Young-Hyeo Joo, Prof. of Education

Thesis director, Won-Sug Shin, Prof. of Education

Thesis director, Sung-Bong Kim, Prof. of Education

Thesis director, Dae-Young Kim, Prof. of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6
3. 연구 방법	8
4. 연구의 범위	11
II.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2
1.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선행 연구 분석	12
2. 미국의 카네기 단위(Carnegie Unit)와 학점제(Credit System)의 변천	16
가. 카네기 단위와 학점제	16
나. 카네기 단위와 학점제에 대한 재평가	19
3. 대학의 학점제 적용 사례	22
4. 우리나라의 단위제의 변천	27
5. 학점제와 단위제의 비교	28
III.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에 대한 분석	34
1.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문제점	34
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 및 시사점	35

(1) A 고등학교(특별시 소재 대규모 일반고) 운영 사례	36
(2) B 고등학교(읍 소재 소규모 일반고) 운영 사례	39
(3) 시사점	42
나.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 자료 분석	44
2.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47
가.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기준	49
나. 현행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기준	52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형식 탐구	54
가. 국가 교육과정 구성 체제	54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 개발	57
(1) 학점 배당 기준	59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59
IV.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내용에 대한 분석	62
1. 교육과정 국제 비교 준거 및 대상	62
2. 교육과정 국제 비교	63
가.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	63
(1) 미국(플로리다주)	63
(2) 핀란드	67
(3) 독일	70
(4) 일본	72
(5) IBDP	77
(6) 시사점	83

나. 교육과정 국제 비교 및 시사점	85
(1) 학점 배당 기준	85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91
(3) 시사점	100
3.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내용 탐구	102
가. 학점 배당 기준	103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05
V.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기준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108
1. 델파이 조사	108
가. 조사 대상	109
나. 조사 도구	110
다. 조사 과정	111
2.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 개발	111
가. 자료 분석	111
나. 델파이 조사 결과	112
(1) 구성 형식에 대한 내용 타당도 비율(CVR)	112
(2) 구성 형식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의견	116
3.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내용 개발	124
가. 학점 배당 기준	124
(1) 학점의 기준	124
(2) 최소 이수 학점	129
(3) 과목 당 학점 배당	134

(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137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40
(1) 과목 편성	140
(2) 과목 이수	144
(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150
(4) 학점 회복	157
4.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	162
가. 개발 절차 및 주요 내용	163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167
VI. 논의 및 결론	169
1. 요약	169
2. 논의	172
3. 결론 및 제언	178
참 고 문 헌	183
부 록	193
Abstract	220

표 목 차

<표 II-1> 학점제의 모형	14
<표 II-2> 미국의 주(state)별 학점 정책	20
<표 II-3> 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 변천	23
<표 II-4> 학사 과정 학기당 이수 학점	24
<표 II-5> 학업 성적 등급과 평점	25
<표 II-6> 학년별 수료 학점	26
<표 II-7> 미국, 일본, 한국의 단위제 비교	31
<표 II-8> 학년제, 단위제 및 학점제의 비교	32
<표 III-1>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지정 현황(일반계고)	35
<표 III-2> 2학년 시간표 배정(학급 당 학생 정원 28명의 경우)	38
<표 III-3> 2학년 시간표 배정(최종)	38
<표 III-4> 2017·2018학년도 입학생의 선택 과목 수 비교	41
<표 III-5>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요 요소	44
<표 III-6>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48
<표 III-7>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분석	50
<표 III-8>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외 추가 사항	52
<표 III-9> 교육과정 구성 형식과 내용에 대한 개념 규정	55
<표 III-10>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	57

<표 IV-1>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학과 군과 개설 과목	64
<표 IV-2> 핀란드 일반 고등학교의 이수 과목 수	68
<표 IV-3> 독일의 자격획득단계 필수이수 권장 교과목과 이수 학기	70
<표 IV-4> 입문단계의 성적 평가 체계(6등급)	71
<표 IV-5 > 독일의 자격획득단계 성적 평가 체계	72
<표 IV-6>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과목 및 표준단위	74
<표 IV-7> 일본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 단위와 과목 수 비교	76
<표 IV-8> IBDP의 교과 군별 개설 과목 및 온라인 개설 과목	81
<표 IV-9> ‘1-1. 학점의 기준’ 관련 국제 비교	86
<표 IV-10> ‘1-2. 최소 이수 학점’ 관련 국제 비교	87
<표 IV-11> ‘1-3. 과목 당 학점 배당’ 관련 국제 비교	89
<표 IV-12>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관련 국제 비교	90
<표 IV-13> ‘2-1. 과목 편성’ 관련 국제 비교	92
<표 IV-14> ‘2-2. 과목 이수’ 관련 국제 비교	93
<표 IV-15>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관련 국제 비교	97
<표 IV-16> ‘2-4. 학점 회복’ 관련 국제 비교	99
<표 IV-17> 학점 배당 기준에 관한 구성 내용	104
<표 IV-18>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관한 구성 내용	106
<표 V-1> 델파이 조사 패널 구성 및 설문 회수율	110
<표 V-2> 구성 형식(안)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내용 타당도 비율(CVR)	113
<표 V-3> 내용 타당도 비율 최소값(CVR .37) 이하 항목의 조사 결과	116
<표 V-4> 학점 배당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의견	116
<표 V-5>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의견	119

<표 V-6>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	122
<표 V-7> '1-1. 학점의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24
<표 V-8> '1-1. 학점의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28
<표 V-9> '1-2. 최소 이수 학점'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30
<표 V-10> '1-2. 최소 이수 학점'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32
<표 V-11> '1-3. 과목 당 학점 배당'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34
<표 V-12> '1-3. 과목 당 학점 배당'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35
<표 V-13>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37
<표 V-14>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에 대한 추가 의견	138
<표 V-15> '2-1. 과목 편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40
<표 V-16> 위계 또는 수준 설정이 필요한 과목<추가 문항>	142
<표 V-17> '2-1. 과목 편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43
<표 V-18> '2-2. 과목 이수'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44
<표 V-19> '2-2. 과목 이수'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48
<표 V-20>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50
<표 V-21> 등급의 9단계 분류 방식	154
<표 V-22>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55
<표 V-23> '2-4. 학점 회복'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57
<표 V-24> '2-4. 학점 회복'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61
<표 V-25> 교육과정의 난점과 주요 요소	163
<표 V-26>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167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 체계도	10
[그림 II-1]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 체계(최종 완성 모형)	14
[그림 III-1] 국가 교육과정 총론 체제	56
[그림 IV-1] IB 프로그램의 연속성	79
[그림 IV-2] IBDP 교육과정의 구성	80
[그림 V-1] 국가 교육과정 분석 및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	164
[그림 V-2]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 절차	166

〈국문초록〉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

우 욱 회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김 대 영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5년 전면 도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의 편성 원칙을 단위제로 규정하여 왔지만 실제적으로 단위학교는 학년제로 편성·운영되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위제가 학생선택권 확대를 보장하고 학점제가 단위제를 바탕으로 질 관리를 수반한다고 보았을 때, 현재 학년제로 운영 중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일차적으로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 단위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점제의 핵심인 질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 마련에 목적을 두고, 현재 연구학교의 사례분석을 통해 단위제의 실현방안, 국제비교 연구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학점제의 규정 내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선택 과목 수 증가에 따른 교원 확보, 시간표 편성 및 운영, 소규모 학교의 내신 불이익, 학생의 진로 설계를 위한 지도 및 진로상담 교사의 배치, 과목 미 이수자 처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난점이 주로 제기된 반면, 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학점에 대한 개념 정의, 1학점 기준 수업량, 과목 당 학점의 양, 필수와 선택 이수 비율, 무학년제, 과목별 위계 설정, 이수 면제, 성적 산출 방법, 과목 이수 요건, 재이수, 학점 회복, 진급과 졸업 요건 등 질적 요건과 관련된 교육과

정의 주요 요소들이 추출되었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 구성 체제를 구성 형식과 구성 내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구성 형식은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고교학점제를 위해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재구조화 하여 8개의 구성 요소에 따른 25개 항목의 구성 형식(안)을 개발하고 타당도 검증을 거쳐 2개 영역 8개 구성 요소의 20개 항목으로 최종 교육과정 구성 형식을 개발하였다. 교육과정 구성 내용은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DP의 교육과정 국제비교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에 따른 문항을 작성하고,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구성 요소에 따른 내용을 진술하였다.

셋째,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은 현행 국가 교육과정 총론 체제를 준용하여 '학점 배당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하위 구성 요소로 개발하였다. 즉 학점의 기준,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 및 시수, 필수와 선택 학점의 이수 비율, 과목 편성, 과목 이수, 평가 및 학점 취득 요건, 학점 회복 및 졸업 요건으로 이러한 기준은 질 관리를 위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구성 형식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내용은 구성 요소에 따라 진술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구체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은 50분을 기준으로 16회 이수하는 수업량을 1학점으로 하여 과목당 기본 학점을 3학점으로 하고 과목별 증감 규정으로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 이수 과목 수 및 필수 이수 학점 비율은 현행 국가 교육과정 기준 보다 축소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과목의 위계 설정, 무학년제 편성 및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밖 학습을 해당 과목 학점으로 인정하되 제한 조건을 명시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과목 이수 요건과 졸업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향후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단위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 개정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안도 이와 병행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안을 연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고교학점제, 단위제, 학년제, 국가 교육과정 기준, 교육과정 구성 체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 변화를 학교교육으로 한정한다면 학교는 단편적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문제해결력, 창의·융합적 사고력, 협력적 사고력 등을 포함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콘(예컨대, AI, VR, AR, IoT, IoB, 3D 프린트 등)들을 교육매체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김대영·우옥희, 2018: 9). 이러한 최첨단의 교육매체 사용은 교육내용을 다양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또한 이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흥미, 적성, 진로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자신이 선택한 교과목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현재처럼 단순히 수업 일수만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분명히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환영받을 만하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발표된 제1차 교육과정부터 가장 최신의 국가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과는 다른 교육과정 체제로 우리 교육이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의 시작을 1945년 해방 이후로 간주할 때, 한국 교육과정 연구의 시작은 일제의 잔재 청산과 새로운 교육의 방향 정립과 관련을 맺고 있다(김대영, 2013: 7). 이정복(1980: 42)은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은 미국의 교육을 모형(模型)으로 채택하여 변형되어 왔으며, 만약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단위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도 결코 실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제2차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단위제는 미국의 카네기 단위(Carnegie unit)와 학점제(Credit system)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카네기 단위와 학점제는 고등학생 수 및

대학 입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대학 입학 절차와 표준화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요구, 선택 과목제의 도입,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 예산 및 각종 규정 등 데이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준거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어 100년 이상 비판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우옥희·김대영, 2018: 41).

우리나라에 단위제가 도입된 것은 1963년 2월 15일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부터다. 단위제는 대학에서의 학점제와 유사한 것으로 학년제와는 대립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단위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논의 과정도 없이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단위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정복, 1980; 최정희, 2014; 함종규, 2003; 홍후조, 1999). 우리나라의 단위제 도입과 관련하여 이정복(1980: 42)은 해방 이후 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증하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단위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최정희·이길상(2015: 50)은 당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해결 과제는 학생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시설의 확충과 입시 난 해소 등의 문제로 획일성을 지양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며 학생의 진로에 맞는 융통성을 부여하기에는 교육적 여건이 부족하여 당시로서는 단위제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단위제를 실시하기가 곤란하나 고등학교 교육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권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단위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조항으로 학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문교부는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단위제 채택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상반된 개념의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함으로써 전통적인 학년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단위제는 과목 선택제를 전제로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출석 시수로 환산하고 배정된 교과 단위의 이수에 따라 졸업 자격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유급이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으며, 학년제는 학교교육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특정한 교과 군을 각 학년별로 배정하고 동일한 수준의 학습량을 제시하여 모든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진급이 가능하나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1년간 유급하게 된다(함종규, 2003: 322). 제2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는 단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단위제는 시행되지 못하고 학년제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는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단위제 원칙에 대한 규정마저 삭제되고 1단위의 기준만 남게 되었다.

이후 2009년 우리나라에서 학점제라는 용어가 국가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했으며, 2016년 학점제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고 2017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밝혔다. 고교학점제의 도입 및 추진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에서 처음으로 학점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한 특목고, 자율(립)형 사립고들의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유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제도와 체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영어, 수학 과목 무학년제·학점제 운영’과 이와 연계한 ‘고등학교 졸업요건 설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4월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착근을 위한 일반고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1단계는 기초 및 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며, 2단계는 학점제를 도입하여 ‘교과목별 학업 성취 기준 및 평가기준’과 ‘졸업요건’을 설정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학점제 운영에 맞게 개선하는 등 장기적으로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고교선진화 지원팀’을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그 이후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허경철, 2014).

2016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에서 다시 학점제 도입 방안이 제시되었다. 학년제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경직성과 다양한 선택 과목의 부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점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고교학점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터다. ‘고교학점제(DIY형¹⁾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정책공약을 밝히면서 유형별·단계별 확대 방안과 특성화고의 학점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서 2018년 고교학점제를 도입·

1) DIY형 교육과정은 학생이 직접 ‘It’, 즉 교육과정, 혹은 선택한 과목의 시간표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방식(Do It Yourself)을 의미함.

확대하고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를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2017년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혁신을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사제도인 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10)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학년 단위 진급·졸업이 아닌 학점을 기준으로 양적·질적 졸업요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현행 학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인 준비를 거쳐 2022년 도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 연구학교 54교(일반계고 31교, 직업계고 23교)를 지정하여 2018년부터 3년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중 일반고 51교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연구학교 내용을 참고하여 시·도별, 학교별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및 기타 학사운영 전반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예정했던 교육부는 2018년 8월 17일 도입 일정을 변경하고 단계적 추진 방안을 수정·발표하였다. 1단계는 2021년까지 연구·선도학교(2018년 105교) 운영을 통해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일부를 개정 고시하고 학점제를 부분 도입한다고 밝혔다. 3단계는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으로 학점제형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 고시하여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연구·선도학교의 운영을 통해 학점제의 토대를 형성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안착시키고, 다양한 운영 모델을 창출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시대적 요구의 반영물(김대영, 2016)로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교육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엄밀한 학점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고교학점제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따른 난점을 추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들 학교들은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역할도 중요하나 고교학점제

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도 요구된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행된 학자들의 연구는 개념 규정, 적용에 따른 난점 및 해외 운영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제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교육과정 체제하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비한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형식 즉, 어떤 형태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국가 교육과정의 형식이 기존 국가 교육과정의 형식과 달리 규정된다면 단위 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교육과정 기준(Curriculum Standards)은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Curriculum Platforms), 교육과정 각론 구성(Curriculum Frameworks), 교육과정 운영 지침(Curriculum Guidelines)으로 구분(홍후조, 2011: 263)하기도 하고, 총론 기준과 각론(교과 교육과정) 기준으로 구분(이병호, 2009: 25)하기도 한다. 국가 교육과정에 '기준(standards)'이라는 용어를 덧붙여 사용하는 것은 국가교육의 '기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문서를 지향(임유나, 2014: 8)하고자 함이다. 국가교육과정 총론 문서에는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교육과정 기준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준거로 삼아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를 준용하여 고교학점제를 위한 구성 형식과 내용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기준의 주요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학교 운영 사례와 관련 연구 자료를 통해 추출된 난점과 주요 요소를 토대로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기준과 추가되어야 할 기준을 재구조화하여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구성 형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구성 내용은 구성 형식의 구성 요소에 따라 진술되는 내용 혹은 기준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과정의 구성 내용은 그동안 실행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점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과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구성 요소에 따른 문항을 개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선행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델파이 조사 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둘째,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질문을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어떤 형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는가?

나. 개정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어떤 내용으로 개발되어야 하는가?

다. 개발된 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 교육과정 체제하에서 고교학점제를 적용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2017년 11월 교육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여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전반의 개선 사항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전국 54교 중 일반고는 31교다. 2018학년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연구학교들은 학년제에 근거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학년제와 학점제는 다른 개념으로 학년제를 기반으로 한 2015 개정 교육

과정 체제 하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연구학교들은 고교학점제 기반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행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 학점 배당 기준이나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등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일부 시사점 도출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점제는 과목 이수 요건에 따른 학점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질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 관리 측면에서는 연구학교의 운영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추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서 현행 체제 하에서의 교육과정의 난점을 추출하고,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질 관리 측면에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의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둘째,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과정 구성 체제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구성 형식과 구성 내용을 개발하였다. 우선 국가 교육과정 체제에 대해 탐구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이하 시·도교육청 및 학교 교육과정 기준 설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 교육과정 체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교육과정 구성 체제는 구성 형식과 구성 내용으로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였다.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구성 체제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총론 체제에서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을 개발하였다. 교육과정 구성 내용은 외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구성 형식에 따른 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 합의점을 도출하여 구성 요소에 따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셋째,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 수렴과 단계적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제2차 교육과정 이후 현재까지 학년제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않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개발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은 누가 교육과정 개발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의 성격이 달라졌으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김재춘, 2002: 82; 권영민, 2004: 142; 백경선, 2007: 42; 소경희, 2005: 13; 홍후조, 2010: 144).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기준 개발을 위해 다원화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의점

을 도출해 내는 델파이 조사 연구를 활용하였다. 구성 형식은 구성 요소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으며, 구성 내용은 구성 형식에 따른 문항을 개발하여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내용을 진술하여 최종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문헌 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관련 학자들의 연구 자료, 보고서, 참고 서적 및 외국의 교육과정 원문 등을 고찰하여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델파이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선행 연구 분석, 고교학점제의 근간을 이루는 카네기 단위와 학점제의 변천, 대학에서의 학점제 적용 사례, 우리나라 단위제의 변천 과정 및 학점제와 단위제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둘째,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에 대해 탐구하고 구성 형식(안)을 개발하였다. 우선 연구학교 운영 사례 및 학자들의 관련 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 현행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난점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현행 교육과정 기준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추출하였다. 국가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성 요소를 재구조화 하여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학점제 또는 이와 관련된 외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구성 형식의

구성 요소는 국내 자료 분석을 통해 재구조화하여 구성할 수 있으나 내용 기준은 국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을 비교 준거로 외국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추출하고 구성 요소별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 구성은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문항과 교육과정 구성 요소별 내용 개발 또는 기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넷째,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과 구성 내용 개발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되는 1차 델파이 조사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와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 분석에 의해 추출된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난점으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부터 구조화된 폐쇄형 문항으로 작성된 델파이 조사지를 사용하여 2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고교학점제 관련 구성 형식(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최종 구성 형식을 개발하고, 구성 형식(안)의 구성 요소별 문항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구성 내용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의한 문항별 합의점을 근거로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과 절차는 [그림 I-1]과 같다.



[그림 I -1] 연구 체계도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와 교육과정 학자들의 연구 자료에 근거하여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난점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모든 요건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기준에 한정하고 있어 특성화 고등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학교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교육과정 구성 체제는 현행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고등학교 '편제와 단위 배당',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제와 단위 배당'을 '학점 배당 기준'으로 수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은 현행 목차를 준용하여 고교학점제 관련 구성 형식은 하위로 구성하였다.

넷째, 성취평가제의 적용과 대학입학제도와의 연계성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학생의 교과 평가와 관련하여 과목 이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영역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Ⅱ.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선행 연구 분석과 학점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카네기 단위와 학점제의 변천과정, 국내 대학들의 학점제 적용 사례, 우리나라의 단위제 도입과 변천과정 및 단위제와 학점제를 비교 고찰하였다.

1.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선행 연구 분석

우리나라에서 학점제가 국가 공식 문서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09년이었으나 이후 학점제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6년 교육부는 학년제에 기반한 교육과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점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였다. 2017년 12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을 밝히면서 학점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및 도입에 따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학점제 도입이 밝혀진 이후 2010년 7월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평가학회가 주최한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학점제 도입 방안’(김희규, 2010)에 대한 연구 발표와 구자익·남궁지영(2011)의 연구가 학점제 도입에 관한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구자익·남궁지영(2011)의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수탁과제로 수행된 ‘학점제 도입 방안’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점제 도입에 관한 연구는 시도하였으나 이후 학점제에 대한 후속 연구나 실행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점제에 대한 개념 규정과 관련하여, 구자익·남궁지영(2011: 3)은 학술개념과 정책 및 실행개념으로 구분하여 학점제를 정의하고 있다. 그들이 사용한 학술개념은 교과별 이수 성취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각 과목별 학점이 누적되어 설정해 놓은 최소 졸업학점에 도달하는 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the credit[unit] system)

이며, 정책 및 실행개념은 단계별로 설정된 세부 영역별 국가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해당 단계의 이수를 판정(무학년 단계 선택²⁾ 교과)하거나, 혹은 학칙에서 정한 과목의 최소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해당 과목의 이수를 판정(학년 간 교차 선택³⁾ 교과)하는 평정방식이다. 허경철(2017)은 구자역·남궁지영(2011)의 교과 평가를 확대하여 특정 교과목, 강좌, 과정 및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하였다는 조건이나 기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주요 방식 중의 하나라고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이광우 외(2017)는 학점제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구자역·남궁지영(2011)의 학술 개념을 따르고 있으며, 정광희 외(2017: 204)는 수업 과목을 단위로 하여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단위를 마치면 졸업이 인정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홍후조(2018: 709)는 개별 과목에서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점과 등록학기를 누적하여 학년을 진급하고 졸업에 이르는 학사관리제도를 학점제로 정의하고 있다. 김정빈(2017: 10)은 과목별 이수 성취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이 선택한 각 과목별 학점이 누적되어 설정해 놓은 최소 졸업 학점에 도달하는 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를 고교학점제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2017b: 4)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제도로 학점제를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된 학점제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양적·질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제, 즉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과목별 이수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정의하였다.

고교학점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 모형을 제시한 연구는 구자역·남궁지영(2011)의 연구가 유일하다. 구자역·남궁지영(2011: 10)은 이수 인정 평가 시험(Placement Test)제를 도입하여 학습 결손 학생과 우수 학생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점제 운영 모형을 <표 II-1>과같이 제시하고 있다.

2) 단계 설정이 가능한 교과의 경우, 일률적인 학년 간 구분을 없애고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설정하여 이수
3)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와 흥미·적성, 진로 결정에 따라 해당 학년에 관계없이 개설 과목을 교차 선택하여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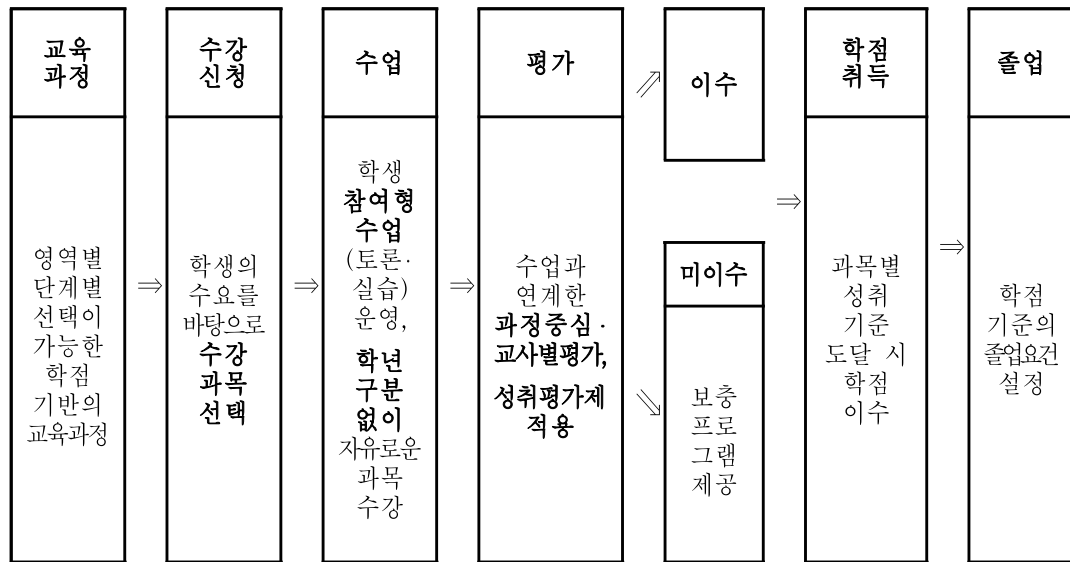
〈표 II-1〉 학점제의 모형

전제 조건	계열 운영 여부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T제(이수 인정 평가 시 협제) 도입 • 기초과목 개설 • 대학수준의 과정 운영 	계열 운영	위계 교과(수학, 영어)
		영역 교과 (탐구 교과, 예체능 교과)
	무계열	위계 교과+영역 교과
		계열 및 과목 자율 선택

출처: 구자익·남궁지영(2011). 학점제 도입 방안, p.11에서 재구성.

이러한 학점제 모형은 영역별 단계와 영역 내 내용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학업의 성취 수준에 따른 유급, 진급, 속진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 [그림 II-1]과 같이 고교학점제의 최종 완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II-1]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 체계(최종 완성 모형)

출처: 교육부(2017b).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교육부가 제시한 고교학점제의 최종 완성 모형은 구자역·남궁지영(2011)이 제시하고 있는 모형과 비교할 때, 무계열, 무학년의 편성·운영 방안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된 모형으로 볼 수 있으나 학습 결손 학생과 우수 학생에 대한 고려는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목 미이수 학생에 대한 보충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학습 결손 학생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2017b)가 제시하고 있는 모형은 과목 이수 후의 조치 방안인 반면 구자역·남궁지영(2011)이 제시하는 방안은 이수 인정 평가 시험(Placement Test)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달리 하는 모형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평가제도 및 졸업제도 측면에서 제도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우선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점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1학점의 수업량을 기준으로 총 이수학점을 규정해야 한다. 평가제도는 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과목별 이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졸업 제도는 현행 출석 일수 기준의 진급과 졸업 기준이 아닌 교과와 비교과의 총 이수 학점(혹은 시간), 평점 등 양적·질적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논의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현행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고교학점제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난점 또는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구자역·남궁지영, 2011; 김정빈, 2017; 김희규, 2010; 손찬희 외, 2017; 이광우 외, 2017; 정광희 외, 2017; 허경철, 2014, 2017; 홍후조, 2017, 2018)들이다. 둘째는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김혜영·홍후조, 2018; 조현영·손민호, 2018; 임광국, 2017)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기준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학점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카네기 단위와 학점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대학 학점제 사례 및 단위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의 카네기 단위(Carnegie Unit)와 학점제(Credit System)의 변천

가. 카네기 단위와 학점제

카네기 단위는 1906년 카네기교육진흥재단(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의 의장이었던 Henry S. Pritchett이 중등학교의 과목에 있어서 한 학년도 동안 주당 5회(periods)의 수업량[일반적으로 1회(periods)의 수업량은 약 50-55분]으로 정의(Tyack & Tobin, 1993: 461)하면서 시작되었다. 스코틀랜드 출신 이민자인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는 1901년 철강 회사를 매각한 후 대학 교수들에게 퇴직 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카네기교육진흥재단(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을 설립하고 재단 위원인 하버드대학 총장 Charles William Eliot에게 1,000만 달러의 수표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2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연금 비용을 1,000만 달러로는 충당할 수가 없었다(Silva & White, 2015: 69).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05년 11월 15일 연금을 제공받기로 한 하버드대학의 Eliot, 프린스턴대학의 Woodrow Wilson, 예일대학의 Arthur Hadley, 스탠포드대학의 David Starr Jordan을 포함한 총장들이 카네기 저택에 모였다. 20세기 초반 당시 미국의 고등 교육은 대학에 대한 표준이 없었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도 없었다.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수업 시수나 성적 표기도 다양했으며 입학 요건도 대학마다 달랐다. 이로 인해 연금 지급 대상 자격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엘리트 교육자들은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교육 제도를 개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카네기의 정책이 미국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기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Tyack & Tobin, 1993: 461; Silva & White, 2015: 69). 카네기교육진흥재단은 대학 교수들에게 퇴직 연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일제 교수 6명 이상, 4년 과정의 교양과목의 개설, 최소 4년 이상의 고등학교 과정을 대학입학 요건으로 제시하였다(Harris, 2002; Shedd, 2003; Silva et al., 2015; Silva & White, 2015; Tyack & Cuban, 1996).

1909년 카네기교육진흥재단은 카네기 단위를 강사와의 120시간의 접촉 시간, 즉 1일 1

시간, 주 5일, 24주의 출석 시간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기준은 학업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과목에 소비된 시간의 양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Shedd, 2003; Silva et al., 2015; The Glossary of Education Reform, 2013a). 1910년까지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과 중등학교에서는 120시간 기준의 카네기 단위를 사용하였으며, 효율성과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카네기 단위는 중등교육의 세 가지 기본인 시간, 교과 그리고 학점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문법이 되었다(Tyack & Tobin, 1993: 457).

카네기 단위는 고등학교의 학점 인정과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었다. 1700년대부터 180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학생들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구두시험의 형태인 종합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구두시험에 대한 타당성과 시험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면서 19세기 중반 경 필기시험으로 변경 되었다. 필기시험은 구두시험에 비해 동일한 시험 장면에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교육적 상황아래서 1800년대 말과 1900년 대 초 카네기 단위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부여하기 위한 학점의 기준이 되었다(Harris, 2002: 3-4).

카네기 단위와 학점의 변천 과정을 Raubinger et al.(1969)은 3단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1873-1908년의 대학 입학 절차 및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었던 시기, 1908-1910년의 표준화된 고등학교 단위제의 제안 및 시행, 그리고 1910년 이후 카네기 단위의 도입, 대폭적인 확산, 그리고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Gerhard(1955)는 1870년대와 1880년대, 선택과목제의 도입으로 대학들이 학점으로 강좌의 수업량을 측정하던 시기와 19세기 무렵에 고등학교와 대학들이 강좌에 학점을 부여하고 학점으로 졸업 요건을 규정한 시기의 두 단계로 구분(Shedd, 2003: 5-6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카네기 단위와 학점의 변천의 원인을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입학 절차와 표준화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요구이다. 1890년에서 1900년 사이에 14-17세의 고등학생 인구의 비율은 거의 두 배가되었고, 공립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은 20세기 초 놀라운 비율로 계속 증가하였다(Lagemann, 1983). 1910년까지 14세에서 17세 사이의 학생 중 15% 이상이 고등학교에 등록했으며 1920년에는 32%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학생 수의 증가로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업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 척도에 대한 필요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890년대에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NEA)은 Eliot가 의장을 맡고 있는 10인위원회(Ten of Secondary School Studies)와 대학입학자격위원회(Committee on College Requirements)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하였다(Levine, 1978). 이들 위원회에서는 대학 입학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단위를 기반으로 한 전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였다(Shedd, 2003: 6-7에서 재인용).

둘째, 선택 과목제의 도입이다. 1869년 Eliot는 하버드대학교 총장 연설에서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관심 있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선택 과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택 과목제의 발전은 중등교육이 확산되면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 학과의 개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대학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위과정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일반적인 시간 단위를 성취도 측정의 기준으로 삼아 과목별 누적 단위를 학사학위의 요건으로 구성하게 되었다(Shedd, 2003: 8-9).

셋째, 행정, 예산 및 각종 규정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시간 단위의 학점은 연방 재정 보조를 위한 제도적 자격을 규정하거나 연방정부의 데이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카네기 단위를 기반으로 한 학점제는 미국의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의 기반이 되었으며, 미국 교육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는 기초가 되어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학점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학업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결정하고 문서화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방법 중 하나이다. 학점은 카네기 단위, 즉 120 시간의 출석 시간(연 24주, 주 5일, 하루 1시간 수업)으로 계산된다(The Glossary of Education Reform, 2013b). 대부분의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기 위해 학점을 누적해야 하며, 학교와 학구는 학점 요구 조건을 결정하는 반면, 주정부는 학교가 최소한의 학점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였다.

고등교육에서도 카네기 단위에서 파생된 학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규정(34 CFR 600.2)에 정의된 대학의 학점은 의도된 학습 성과와 학생의 성취 근거로 나타낼 수 있는 학습의 양으로 1학기, 대략 15주 동안 교실에서 또는 직접적인 교수법에 의해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의 수업과 최소 2시간의 수업 외 학습 또는 이와 동등한 양의 실험, 실습, 인턴십, 스튜디오 작업이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외 다른 학습을 의미한다(Ewell,

2016: 10). 대학에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학기 당 15학점씩 8학기를 이수하여 최소 120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Silva et al., 2015: 8).

나. 카네기 단위와 학점제에 대한 재평가

시간 기반의 단위는 학점으로 전환되어 학생들의 과정 이수율과 졸업, 교원들의 수업량, 각종 비용의 산출에 이르기까지 교육 시스템의 표준화와 효율성에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카네기 단위는 같은 시간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관리하고 측정하여 학습 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Silva & White, 2015: 69)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네기 단위의 개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학생들이 과목의 학습보다는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강조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검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의 질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교사 간의 접촉 시간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은 유연한 교육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Silva et al., 2015: 5)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카네기교육진흥재단은 카네기 단위의 역할, 기능 및 용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93년 당시 카네기교육진흥교육재단 대표였던 Ernest Boyer는 카네기 단위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으며, 그것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묻어 버릴 때가 되었다(Silva, 2013)고 말하였다. 카네기교육진흥재단은 카네기 단위와 오늘날의 개혁과의 관계를 연구 한 결과, 카네기 단위는 개혁자들이 추구하는 해결책에 일부 장애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갑자기 카네기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육기관, 학생, 교육자 및 관리자들이 복잡해지는 교육 환경에서 공통된 기준 없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Lee Shulman 전 카네기교육진흥재단 대표는 학습의 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네기 단위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나 그것을 대체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하였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측정하는 기준이 카네기 단위가 아닌 새로운 측정 기준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 카네기 단위가 일반적인 관리 기준으로 계속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카네기 단위를 없앤다고 해서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고 미국 교육의 불평등과 비효율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증거가 너무 미약하다. 역량기반 교육으로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엄격한 외부 표준이 없기 때문에 교육자가 학생의 진보에 대한 전문적

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요구되어 교사에게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Silva & White, 2015: 72; Silva et al., 2015: 30-31).

카네기교육진흥재단(2014)은 카네기 단위 재평가의 일환으로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모두에서 K-12 학점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미국의 주(state)별 학점 정책(2014. 5. 기준)

Category	Policy Details	State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negie Unit 폐지 ▪ 학점은 수업시간보다는 학생의 내용과 기술 습득에 기초하여 학점 부여 	(1 state) New Hampshire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구는 학점을 출석 시간으로 정할 것인지 다른 측정 방법(예: 숙련도 또는 역량)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 	(30 states) Alaska, Arizona, Colorado, Connecticut, Florida, Hawaii, Idaho, Indiana, Iowa, Kentucky, Maine, Maryland,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Dakota, Texas, Utah, Vermont, Washington, Wisconsin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구는 출석 시간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학점 부여 가능하나 승인 받아야 함 	(4 states) Louisiana, Ohio, South Carolina, West Virginia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구는 융통성이 없으며 시간 기반 학점 사용 	(9 states) California, D.C., Illinois, Massachusetts, Nebraska, Nevada, North Dakota, Virginia, Wyoming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구는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학점 회복 프로그램이나 학교 밖 학습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국한되며 주의 승인이 요구됨 	(7 states) Alabama, Arkansas, Delaware, Georgia, Kansas, North Carolina, Tennessee

출처: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2014). 50-State Scan of Course Credit Policies.

학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출석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주와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주를 검토하여 다섯 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반드시 시간 기반 학점을 사용하도록 하여 융통성이 없는 주는 California주를 비롯한 9개 주이며, Alaska주를 포함한 30개 주에서는 시간 기반으로 할 것인지 숙련도나 역량과 같은 다른 측정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시간 기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학점 부여가 가능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는 4개 주이며, 특별한 상황에 한 해서만 주 승인을 받아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주는 Alabama주를 비롯한 7개 주다. New Hampshire 주는 유일하게 카네기 단위를 폐지하고 수업시간보다는 학생의 내용과 기술 습득에 기초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2013년 8월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개 주와 Columbia 특별구만 시간 기반 학점을 사용하고 있으며, 33개 주에서는 학구가 시간 기반 학점을 다른 조치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29개 주는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학점을 정의 할 수 있으며 4개 주는 시간 이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주 승인을 받아야한다. 6개 주에서는 특별 그룹의 학생 또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비 시간 기반 학점을 사용할 수 있다. New Hampshire는 역량 기반 학점을 부여하는 유일한 주(state)다(White, 2013).

카네기 단위가 이러한 교육개혁을 하는데 실질적인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없애자는 요구는 방대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일한 보편적 기준이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다(Silva et al., 2015: 32). 카네기 단위의 시간 기준은 확실히 미국 교육의 계획과 지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등 교육 기관의 경우 이미 이 기준을 사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네기 단위는 생각하는 것보다 장애가 적을 수도 있다(Silva et al., 2015: 6).

우리나라의 제2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단위제는 미국의 카네기 단위를 기반으로 한 학점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위제는 시행조차 해보지 못하고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문서에서 삭제되었다. 현행 미국의 카네기 단위를 기반으로 한 학점제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있어서도 질 관리가 가능한 교육과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3. 대학의 학점제 적용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와 달리 학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학점제는 개별 과목에 부여된 학점의 성공적 이수와 등록학기를 누적하여 학년을 진급하고 졸업에 이르는 학사관리제도로 과목에 부여된 수업시간 계량단위이면서 나아가 성취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학점을 취득하는 질적 기준이기도 하다(홍후조, 2018: 708). 미국 연방 규정(34 CFR 600.2)에 정의된 대학의 학점은 1학기, 대략 15주 동안 교실에서 또는 직접적인 교수법에 의해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의 수업과 최소 2시간의 수업 외 학습 또는 이와 동등한 양의 실험, 실습, 인턴십, 스튜디오 작업이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외 다른 학습을 합친 학습량으로 중등학교에서의 학점의 기준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Ewell, 2016: 10). 미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학기 당 15학점씩 8학기를 이수하여 최소 120학점을 취득해야 한다(Silva et al., 2015: 8).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학점 규정에 대한 변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2년 4월 23일에 제정·시행된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633호) 제126조에 대학과 대학원의 과정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주 1시간씩, 1학기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단 실험·실습, 실기, 체육과 교련은 1주 2시간 이상의 1학기 수업을 1학점으로 규정하였다. 학점은 매학기 28학점 이상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80학점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이 후 1956년 3월 27일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141호)을 일부 개정·시행하면서 대학에서는 매 학년 40학점을 취득함으로써 기준으로 하여 매 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학 졸업 학점은 180학점에서 160학점으로 감소되었다.

1972년 8월 26일 대통령령 제6331호로 일부 개정·시행된 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대학의 매 학년 취득 기준 학점은 40학점으로 하되, 매 학기 최대 취득 학점은 24학점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매 학년 취득 기준 학점을 35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 학점으로 20학점으로 규정하여 졸업 학점은 140학점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1981년 2월 28일 개정·시행된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213호)에서는 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매 학기 취득 기준 학점은 18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 학점은 21학점으로 하되, 조기 이수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에서는 15주 또는 16주로 되어 있어 국제적 경향에도 부합하고 학기 간 수업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후 교육법이 폐기되고 1997년 12월 31일 고등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1998년 2월 24일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665호)이 제정되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학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교과 이수에 있어서 학점 당 이수 시간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학생의 출석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주대학교의 경우 학사 과정의 학기당 이수 학점 상한은 다음 <표 II-4>와 같다.

<표 II-4> 학사 과정 학기당 이수 학점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	학기당 이수학점 상한	
	기본 이수학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에 따른 신청 이수학점
130학점 및 160학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수의학과)	18학점	3.0 이상인 학생 : 21학점 3.7 이상인 학생 : 24학점
140학점(간호대학)	19학점	3.0 이상인 학생 : 21학점 3.7 이상인 학생 : 24학점
150학점(사범대학)	21학점	3.0 이상인 학생 : 23학점 3.7 이상인 학생 : 24학점
143학점(교육대학), 수의예과	22학점	3.0 이상인 학생 : 23학점 3.7 이상인 학생 : 24학점

출처: 제주대학교 학칙(규칙 제1599호, 2018. 3. 2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매 학년도 제공하는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점인정을 위한 학생의 출석시간은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과목당 제공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으로 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여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은 학기당 15시간(평가시험 포함)이상으로 하며, 실험, 실습, 실기, 체육 및 그 밖에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점은 30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실습 준비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실습이나 전공봉사(서비스러닝)과목은 학점 당 15시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사과정의 음악학부와 대학원 음악학과에 개설된 음악전공실기 관련 교과목 학점의 학기당 수업시간은 별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졸업을 위한 취득 학점은 간호대학 140학점 이상, 교육대학 143학점 이상, 사범대학 150학점 이상, 수의학과·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60학점 이상, 그 밖의 학과·전공은 13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은 1.7(교육대학은 2.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점 취득을 위한 학업성적 등급과 평점은 다음 <표 II-5>와 같다.

<표 II-5> 학업 성적 등급과 평점

등급 구분	A ⁺	A ⁰	A ⁻	B ⁺	B ⁰	B ⁻	C ⁺	C ⁰	C ⁻	D ⁺	D ⁰	D ⁻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낙제)
학업성적	100-97	96-94	93-90	89-87	86-84	83-80	79-77	76-74	73-70	69-67	66-64	63-60	59-0

출처: 제주대학교 학칙(규칙 제1599호, 2018. 3. 29. 개정)

추가 시험 성적은 B+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성적 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 학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 교과목 또는 일부 교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할 때에는 학년 단위로 유급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사과정의 학년별 수료 학점은 다음 <표 II-6>과 같다.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수의학과의 학년별 수료 학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표 II-6〉 학년별 수료 학점

졸업학점	학년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130학점 이상	수료학점	32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7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수료학점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50학점 이상	수료학점	37학점 이상	75학점 이상	112학점 이상	150학점 이상
160학점 이상	수료학점	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160학점 이상

출처: 제주대학교 학칙(규칙 제1599호, 2018. 3. 29. 개정)

학사과정 학생이 6학기 이상(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재학 중 성적 평점 평균이 4.0 이상으로 대학이 규정하는 졸업자격을 충족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준 학점 이상의 초과 이수, 학점 특별 취득 및 면제에 관한 사항, 재이수에 관한 규정, 타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이수에 관한 규정(졸업 학점의 1/2까지), 학점 인정과 기재 등에 관한 사항이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고교 학점제 적용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23조에서 학교는 학생이(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 학점인정의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점인정심의회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학점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고등학교의 학점은 일반적으로 출석 시간을 기준으로 한 카네기 단위(연 24주, 주 5일, 하루 1시간 수업, 즉 120시간의 출석 시간)로 규정하

는 반면 대학의 학점은 출석 시간과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포함한 시간(1학기 약 15주, 1시간의 출석 수업, 2시간의 자기주도학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학점제는 교수의 수업인 ‘교(敎)’보다 상대적으로 학생에 의한 ‘학(學)’에 대한 인증(credit)에 중점을 두고 있다(홍후조, 2018: 706)고 볼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단위제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단위제가 도입된 것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21호로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부터다. 고등학교의 학습지도 계획은 원칙적으로 단위제에 따르되, 학교의 실정이 단위제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학년제, 또는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단위시간 배당표에는 고등학교 3년간에 이수해야 할 총 단위 수를 과목별로 표시하였으며, 여기서 1단위는 50분을 단위 시간으로 하여 한 학기(18주 기준) 동안 18단위 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문교부는 1967년 제2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고등학교에서는 단위제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학생의 진로에 맞는 융통성을 주어 더욱 국가적으로 유용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과목 선택의 융통성을 준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수업일수는 연간 34 주 기준으로 하되, 1단위는 50분을 단위 시간으로 하여 한 학기(16주 기준) 동안 18단위 시간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여 수업 주수와 이수 단위가 상이하게 규정되었다.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350호로 공포한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위제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는 학년제를 채택하거나 단위제 또는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2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융통성’ 부분이 삭제되었다. 또한 ‘1단위라 함은 50분을 1단위 시간으로 하여 매주 1단위 시간씩 1학기(18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규정하여 한 학기 16주를 18주로 다시 변경하였다.

1981년 12월 31일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동일하게 단위제를 규정하면서 1학기의 기준을 17주로 변경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단위제를 원칙으로 하되,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고시된 제

7차 교육과정 이후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단위제'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1단위에 대한 기준만 남아있게 되었다. 2009년 12월 23일 고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단위의 기준을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규정하면서 1학기 17주의 기준이 17회로 변경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단위제는 대학에서의 학점제와 같은 것으로 학년제와는 대립되는 개념 또는 다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단위제에 대한 논의나 명확한 이해 없이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거의 연구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정복, 1980; 최정희, 2014; 최정희·이길상, 2015; 함중규, 2003; 홍후조, 1999). 단위제는 과목 선택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학년에 상관없이 소정의 단위를 일정 기간 내에 이수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단위제와 학년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법으로서 상반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병용할 수 없다(이정복, 1980: 43; 함중규, 2003: 321). 단위제는 과목 선택제를 전제로 낙제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만 재이수하면 되지만, 학년제에서는 전 과목을 낙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간 배정된 모든 교과를 재이수해야 한다(함중규, 2003: 322). 한철순·현종익(1980: 408)은 제주도 인문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단위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 연구한 결과, 지침의 불충분과 교사의 필요성 인식 부족, 학급수 기준 교사 배치로 단위 수가 적은 과목의 교사 미배정 및 교사 수 부족, 전출입에 따른 과목 미 이수 등으로 단위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한 문교부의 방침은 일선학교에 더욱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제는 확실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생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무학년제 운영 등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학점제와 단위제의 비교

미국의 학점제는 1909년 카네기교육진흥재단에 의해 창안된 카네기 단위에서 파생되어 고등학교의 졸업과 대학의 학사학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고등학교에서의 학점은 카네기 단위, 즉 120 시간의 출석 시간(연 24주, 주 5일, 하루 1시간 수업)으로 계산된다.

반면 미국 연방규정(34 CFR 600.2)에 정의된 대학의 학점은 1학기, 대략 15주 동안 일주일에 1시간의 수업과 최소 2시간의 수업 외 학습 또는 이와 동등한 양의 실험, 실습 등의 학습으로 규정(Ewell, 2016: 10)하고 있다.

1910년 이후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과 중등학교에서는 효율성과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카네기 단위를 기준으로 한 학점을 사용하였다. 미국의 학점제는 대학에 입학하는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대학 입학 절차와 표준화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요구, 선택 과목제의 도입과 교육행정의 표준화 등 미국 교육 전반에 걸쳐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비판과 연구를 거듭하면서 1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 교육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내부 비판의 과정에서 단위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최정희·이길상, 2015: 45). 개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카네기 단위는 같은 시간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관리하고 측정하여 학습 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Silva & White, 2015: 68; Silva et al., 2015: 5). 따라서 시간보다는 학습에 근거한 역량 기반 교육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카네기 단위를 없애자는 요구는 방대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일한 보편적 기준이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카네기 단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으로, 카네기 단위의 미래 유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Silva & White, 2015: 68)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도 카네기 단위 기반의 학점제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는 주는 2013년 10개 주에서 Columbia 특별구를 제외한 9개 주로 감소되었다. 카네기 단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역량이나 숙련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주는 2013년 33개 주에서 2015년 34개 주로 늘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면서 미국 교육을 모형으로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정립해 나갔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사회적인 제반 여건으로 인해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당시 문교부는 1963년 제2차 교육과정에서 단위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융통성 부분이 삭제되고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단위제와 학년제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단위제는 학년별로 이수하여야 할 수업의 양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전 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수업의 양을 표시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정복, 1980; 최정희, 2014, 함종규, 2003). 국가 교육과정은 제2차 교육과정에서 제6차 교육과정까지 단위

제를 원칙으로 하되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 이후는 단위제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1단위의 기준만 남아 있다.

이정복(1980: 40)은 단위제 실시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위제 실시를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그것을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명확한 증거 없이 검토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어 현행 고교학점제 도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위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지침의 불충분과 교사의 부족 등으로 단위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으며, 학년제와 단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한 문교부의 방침은 일선학교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한철순·현종익, 1980: 408)고 지적하고 있다. 함종규(2003: 323)는 단위제에 의한 인문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및 예능과정의 개별 선택 과정을 구성해 놓고 학년제 운영을 허용한다는 것은 신교육과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개별 선택 과정 구성의 의의조차 모호해 지는 것으로 상반된 제도인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하도록 한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후조(2018: 706)는 한국에서의 단위제의 오해와 오용을 지적하면서 소규모 단위를 세분하여 여러 학년과 학기에 교과목을 분산 이수하면서 다교과 분산 피상학습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단위제는 명목적일 뿐 기능적 역할 수행이 없어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위제를 적용하는 일본은 단위의 개념을 1년 35주 동안의 수업량(5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17: 5). 일본의 단위제는 학습량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기존의 수업 시간 수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단위제 도입 이후에도 학년제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최정희·이길상, 2015: 47). 일본은 1948년부터 정시제⁴⁾와 통신제 과정에 단위제고등학교를 도입했으나 1993년부터 일반 전일제⁵⁾ 과정에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다(박부권, 2008: 48). 단위제고등학교는 학생의 흥미·관심·진로 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통적인 지식·기능·교양은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학교의 재량과 학생의 선택폭을 확대함으로써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단위제고등학교란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정해진 단위를 취득함으로써 졸업을 인정하는 학교제도(박부권, 2008; 이명실, 2010; 최정희·이길상, 2015)를 말한다. 단위제고등학교는 1993년 36개교가 설치된 이래 점차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943개로서 전체 고등학교 5,194개교(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포함)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이명실, 2010:

4) 야간 및 그 외의 특별한 시간 또는 특별한 시기를 정하여 수업을 하는 과정

5) 일반 정규 고등학교의 과정

최정희·이길상, 2015). 일본의 단위제 도입과 관련하여 최정희·이길상(2015: 46)은 1947년 전후 미국의 영향으로 신제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규정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박부권(2008: 48)은 외국 제도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시제, 통신제 과정의 단위제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학점제와 우리나라와 일본의 단위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나라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의 단위제 도입과 시행 과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 II-7>과 같다.

<표 II-7> 미국, 일본, 한국의 단위제 비교

구분	미국	일본	한국
도입 방식	고유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창안	외래 제도 수용 ⁶⁾	외래 제도 수용
도입 주체	민간 재단 및 교육자 집단	중앙 정부	중앙 정부
도입 목적 (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성과의 효율적 관리 ◦ 학교 간, 지역 간 학습 성과의 전이 가능성 제고 ◦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량 표기의 편리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법적 이념) ◦ 학습량 표기의 편리성 제고(실제적 이념) ※ 법적 이념과 실제적 이념의 괴리
도입 시기 및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9년 카네기 단위 창안 ◦ 카네기 단위에 대한 재평가 및 대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년 단위제고등학교 도입 ◦ 1993년 단위제고등학교 개설 확대(법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년 단위제 도입 ◦ 1997년 단위제 규정 삭제(1단위 기준만 남음)

출처: 최정희·이길상(2015). 미국, 일본, 한국의 단위제 교육과정 비교 연구, p.54에서 재구성.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국의 학점제는 카네기 단위를 기준으로 학습량의 측정과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질 관리 차원에서 카네기 단위에 대한 재평가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단

6) 박부권(2008: 48)은 정시제, 통신제 과정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고 있음

위제는 기존에 사용하던 시수제를 단위제로 변경하여 학습량 표기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학년제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 개혁을 위해 무학년제의 단위제고등학교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최정희·이길상, 2015: 47). 우리나라의 단위제는 학습을 출석 시수로 환산하고 배정된 교과 단위의 이수에 따라 졸업 자격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유급이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으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전제로 하였다(함종규, 2003: 322). 그러나 우리나라의 단위제도 학습량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기존의 수업 시수를 단위로 대체하여 사용되었을 뿐 단위제를 단위제답게 운영한 학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홍후조, 1999: 278), 따라서 학년제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학년제, 단위제 및 학점제를 비교하면 다음 <표 II-8>과 같다.

<표 II-8> 학년제, 단위제 및 학점제의 비교

구분	학년제	단위제	학점제
개념	특정 교과군을 학년별로 배정하고 동일한 수준의 학습량을 제시하여 모든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한 제도	과목 선택제를 전제로 학년에 상관없이 소정의 단위를 일정 기간 내에 이수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과목별 이수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 시간 기준 수업량 측정(시수 혹은 단위) 학년단위 편성 과목 선택권 제한 한 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한 학년 유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 시간 기준 수업량 측정(단위) 무학년제 과목 선택권 보장 낙제한 과목에 한해 재이수(유급 개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 시간과 학업 성취 결과로 측정(학점) 무학년제 과목 선택권 보장 낙제한 과목에 한해 재이수(유급 개념 없음)

단위제와 학점제의 공통점은 선택 과목제를 전제로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정해진 단위 혹은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유급 개념이 없으며 낙제한 과목에 대해서만 단위 혹은 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그러나 단위제는 출석 시간만을 기준으로 수업량을 측정하는 반면 학점제는 출석 시간과 학업 성취의 결과를 학점으로 측정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학년제와 단위제는 시수 혹은 단위로 수업량을 측정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서로 상반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제도로 병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함종규, 2003: 321).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종래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김란주·서경혜, 2018: 114). 따라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단위제는 물론 국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명무실한 단위제의 실행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문제점을 명확한 준거에 의해 분석하여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Ⅲ.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에 대한 분석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급에 따른 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는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3년 과정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형식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이 이러한 목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 구성 체제가 잘 갖춰져야 한다. 본 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학자들의 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난점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을 개발하였다.

1.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문제점

교육부는 2017년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8월 17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부터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여 2025년 전면 도입한다고 추진 일정을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 이후 경험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과 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들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통해서는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난점을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연구·선도학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학년제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어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되는 과목 선택권 확대와 과목 편성, 과목 이수 요건 충족을 위한 시간 또는 학점의 양 등 교육과정 기준 마련을 위한 일부 시사점은 얻을 수 있다. 이 외에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질 관리와 관련된 요소들은 학자들의 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 및 시사점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3년 간 운영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105교 지정하였다. 이 중 일반고는 연구학교 31교, 시범학교 51교가 지정되었으며 지역별 지정 현황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지정 현황(일반계고)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구학교 (31교)	4	1	3	2	1	1	2	1	5	1	2	1	0	2	2	2	1
선도학교 (51교)	5	4	4	5	3	2	4	1	8	2	2	1	3	2	2	2	1

교육부(2017b)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운영 방향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두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교 교육 개선 과제를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은 직접 수강 신청을 하여 개인별 시간표를 작성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에 한해 공동 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온라인 수업(강의) 등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 유형 예시로는 단위 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인근 학교 간 협력을 통해 공동 과목 개설), 지역 교육 시설 활용형, 지역 대학 협력형, 온라인 강의 활용형 등을 제시하고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육청·학교가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학생 진로 수요를 기반으로 학생 희망에 따른 과목 개설이 이루어지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이정복, 1980: 40; 한철순·현종익, 1980: 408; 허경철, 2014). 따라서 교육여건의 차이가 있는 도심의 대규모 학교와 읍지역 소규모 학교의 운영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중 특별시 소재 대규모 학교인 A 고등학교와 도 소재 소규모 농어촌 학교인 B 고등학교의 운영 사례는 박균열 외(2018)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운영체제 및 학교 문화 혁신 방향 연구’에서 발췌하였다.

(1) A 고등학교(특별시 소재 대규모 일반고) 운영 사례

A 고등학교는 특별시에 있는 비교적 여건이 좋은 지역의 남녀 공학 일반고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여러 단지의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비교적 중류 이상의 계층이 모여살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고 지역에는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설이 매우 많은 지역이다. A 고등학교 주변에는 7개의 사립고가 있으며, 이들은 전통적으로 명문으로 불리는 학교들로 학부모들은 공립 A 고등학교보다 사립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규모는 34학급의 1,026명으로 학급 당 학생 수는 학년에 따라 다르나 23~37명까지 편성되어 있으며 교직원인 교원 74명을 포함하여 113명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약 13.9명이다. 시설은 매해 학급 수가 감축되어 여유 공간은 있으나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의 수는 부족한 편이며 특히 휴게 공간, 사물함, 편의 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7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위한 교사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한 투표에서 85%의 교사가 참여하고, 참여 교사의 48%가 연구학교 신청에 찬성하였다. 교사들이 연구학교 신청에 반대하는 이유는 소규모 집단의 과목 편성으로 인한 대입에서의 불리함과 여러 가지 연구학교에 따른 부가적인 업무 부담이었다. 학부모들의 불만도 제기되었는데, 불만 요인으로 대학입시와 고교학점제 운영과의 괴리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협의 과정을 거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신청하고 지정되었다.

A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연구학교 운영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연구학교 지정 이후 연구학교 운영팀을 구성하고 4개의 분과로 팀을 나누어 매주 화요일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A 고등학교가 고교학점

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학교와 비교할 때 장점은 교감과 교육과정 담당부장이 교육과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적 자원이라는 점이였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구성은 3년간의 연구학교 운영 로드맵의 작성은 물론 연구학교 추진에 따른 동력을 얻게 되었다.

A 고등학교의 3개년 주요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차 년도는 체계적인 진로·학업 상담·진로설계를 위한 맞춤형 학습관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강 신청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년도는 소인수 심화과목에 한해 협력학교와 함께는 연합형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사의 전문성 강화, 성취 기준 미달 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업 보충기회 제공, 학생들의 공강 시간 활용을 위한 공간 구축 및 이동수업, 연합형 수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을 수립한다. 마지막 3차 년도에는 소인수 심화 과목에 한해 대학 연계 및 미네르바 스쿨 방식 등의 온라인 수업(강의) 개설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A 고등학교의 학생 선택 교육과정 편성의 특징은 2학년 과정에서 5개 과목을 전면 개방형으로 하여 주당 운영되는 교과 30단위 중 15단위의 수업을 이동 수업으로 실시한다. 3학년 교육과정은 9개 과목을 전면 개방형으로 편성하였으며, 1주일에 27단위를 이동수업 하도록 편성하였다.

학교는 선택 과목 개설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교과협의회와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과목 개설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에 소인수 신청 과목에 대해서는 폐강 결정을 하였다. A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을 학기당 3단위로 통일했으며 과목 개설 기준 인원을 28명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간표를 작성한 결과, 다음 <표 III-2>와 같이 A 타임 10개 반, B 타임 11개 반, C 타임 11개 반, D 타임 10개 반, E 타임 11개 반이 편성되었다. A~E 타임의 유형은 동시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으로 구성된 형식을 말한다.

A 고등학교의 1차 시간표를 작성한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2학년 시간표 배정(학급당 학생 정원 28명의 경우)

타임	인원(반) 시수:53	1개 타임에 들어가는 과목별 학생 수																				
		고전읽기	수학Ⅱ	세계사	세계지리	정치와법	경제	생활과윤리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생활과학	음악감상과비평	미술창작	평면조형	입체조형	문학과매체	정보	중국어Ⅰ	일본어Ⅰ	
A타임	282(10)		52	23		22		36		27	24	22	26		26							24
B타임	282(11)		46		27		19	31	24		23		25	20				19			23	25
C타임	281(11)		38	24		22		29		27	23	23		19		28					23	25
D타임	279(10)	16	59				20	40	22		23		26		27					23		23
E타임	282(11)	15	48			23		29		26	24		25	20			25	23				24
미배정(명)	0(0)																					
합계(명)	1406(283)	31	243	47	27	67	39	165	46	80	117	45	102	59	53	28	25	42	23	46	121	

최종적으로 A 고등학교는 집단 구성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표 III-3〉과 같이 A~E 타임 각 12반, 전체 60개 반으로 편성하였다.

〈표 III-3〉 2학년 시간표 배정(최종)

구분	조정 내용	편성된 반 수
A타임	10+1(수학Ⅱ 52명을 2개 반)+1(생활과 윤리 36명을 2개 반)	12
B타임	11+1(수학Ⅱ 46명을 2개 반)	12
C타임	11+1(수학Ⅱ 38명을 2개 반)	12
D타임	10+1(수학Ⅱ 59명을 2개 반)+1(생활과 윤리 40명을 2개 반)	12
E타임	11+1(수학Ⅱ 48명을 2개 반)	12
합계		60

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사들이 담당할 수업 시수의 변화이다. 교과별로 교사가 1~2명 증감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사 채용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다 과목을 담당하게 되므로 인해 가중되는 수업 부담이다. A 고등학교가 확정된 교육과정 편제표에 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자격별로 담당해야 할 과목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8학년도 50과목에서 2019학년도 70과목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업무 부담의 증가이다. 넷째, 수업 시간표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블록 타임 등 다양한 교수·방법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교사들의 출장이나 결근 등으로 인한 수업 시간 변경이 어려울 실정이다. 다섯째, 강사 확보와 관련 업무의 가중이다. 특히 학기별 교사의 시수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현행 보다 강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강사 확보에서 채용에 이르는 일련의 문제는 교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여섯째,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의 문제이다. 1학년 담임들은 진로와 진학에 대한 전문성과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차례 상담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됨으로써 향후 1학년 담임 기피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일곱째, 지필 고사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아직 실행해 보지 않았으나 상당 수 증가된 과목 수와 학생별 선택 과목이 달라서 교사들의 시험관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책임 지도 부분이다.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이다. 고교학점제가 제도화된다면 과락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공감하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졸업 요건과 학점 미달자 구제 방안, 대입에서의 불리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2) B 고등학교(읍 소재 소규모 일반고) 운영 사례

B 고등학교는 읍 소재 농어촌 소규모 일반 고등학교로 201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교육 여건의 변화로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어 현재 14학급이나 매년 1학급씩 감축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자치문화 개선 및 성장, 대입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면서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근 지역 중학교 줄

업생 대부분이 진학하여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매우 심해지고 있고,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까지 진학하고 있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 규모는 14학급 342명이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대상 학생은 1학년 4학급, 100명으로 학급 당 학생 수는 25명이다. 교직원은 교원 32명을 포함하여 49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0.69명이다. 시설은 일반 교실을 포함하여 수업이 가능한 공간이 29실(전 학년 14학급)이며, 매년 학급 수가 감축되고 있어 공간 확보는 가능하나 교과 교실 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학교가 개설 가능한 과목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 우선 학교에서는 교과별 협의회를 거쳐 개설 가능한 과목과 이수 경로를 예시로 제시하고 과목 선택 안내서를 작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진로 미결정과 과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3년 동안의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코디네이터와 상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B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이과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되 학년, 학기별로 과목을 편성한다. 둘째, 학교 지정 과목은 기초 교과와 체육·예술 교과로 하고 기초 교과는 가급적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중심으로 편성한다. 셋째, 탐구 및 생활·교양 교과는 학생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사회 교과와 과학 교과에서 각 1과목은 반드시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넷째, 과목 당 단위 수는 학교의 여건과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단위 수를 기준으로 융통성 있게 배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 결과, 2017학년도 입학생의 편제표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시간표 작성은 행정 학급 개설 인원인 25명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최소 과목 개설 인원은 8명(음악 이론과 미술 이론 예외)을 기준으로 하고, 공강 시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실 수는 2019학년도 7개(4학급)로 현재보다 3개의 교실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학년도 입학생과 2018학년도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한 학생들의 학교 지정 및 학생 선택 이수 단위와 과목을 비교한 결과는 <표 Ⅲ-4>와 같다.

<표 Ⅲ-4> 2017·2018학년도 입학생의 선택 과목 수 비교

구분		학교 지정 과목 수		학생 선택 과목 수		이수 단위 합계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1학년	1학기	26	25	4	6	30	31
	2학기	26	25	4	6	30	31
2학년	1학기	27	19	3	11	30	30
	2학기	27	7	3	23	30	30
3학년	1학기	17	10	13	20	30	30
	2학기	17	2	13	26	30	28
총 이수 단위		140	88	40	92	180	180
과목 수		34	20	8*	90**		

※ 8*과목 중 실제 학생의 희망 반영 개설된 과목은 제2외국어(1과목, 4단위)이며, 90**과목은 모두 학생 희망 반영 개설(단, 과목 미 개설 시 수강 신청 조정).

이상의 연구학교 운영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과목에 대한 이해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코디네이터 또는 진로상담 교사의 충분한 배치, 진로관련 과목의 이수, 체계적인 과목 안내서의 제시 등이 요구된다.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로 미결정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에 따른 교과목 선택을 위한 진로 상담 교사와 1학년 담임교사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학생 평가 방법으로 절대평가의 도입이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은 18명 내외의 소수 학생으로 집단이 편성되어 내신 9등급제 병행으로 인한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2018)는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고1부터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 및 표준편차를 제공하지 않고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

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고1학생들의 대입 전형에서의 불이익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90개 과목의 선택 과목을 개설한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는 대입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가가 현행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학생들에게 최소한 불이익은 없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셋째, 과목 미 이수자 처리의 문제다. 선택 과목은 학생의 진로와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학습의 질이나 이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필수 과목의 이수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목 미 이수자의 처리 방향에 따라 과목 당 학점의 수, 최소 이수 학점의 양, 교과목 편성 방법 등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순회교사의 증가 및 강사 확보에 따른 문제점이다.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경우, 선택 과목 수가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교사 1인당 담당 시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순회교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읍지역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의 강사 확보는 과목 시수나 도심과의 거리 등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농어촌 학교들의 안정적인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1인당 담당 과목 수 증가로 인한 교원 업무 경감, 다양한 과목 개설에 따른 교사 확보, 공간 재배치와 시설 확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 시사점

201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전국 31교 중 특별시 대규모 일반고(34학급, 1,026명)와 읍 소재 농어촌 소규모 일반고(14학급, 342명)의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안착되어야 하며,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학교의 운영 사례를 보면,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를 우선 고려하여 가급적 공강 시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과목 당 학점 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두 개의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보더

라도 동일한 선택 과목에 대해 A 고등학교는 3단위를 배당하고 있으나 B 고등학교는 2~5단위를 배당하고 있다. 동일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학습량과 질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사례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기준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이다. 단위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상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우선 학점의 개념을 규정하고 1학점의 양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점의 양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 수가 결정될 것이며, 시간표 작성 등 운영상의 문제도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편성 방법이다. 두 개의 연구학교는 학년 단위로 일부 과목에 대해 완전 개방형으로 편성하고 있다. 1학년은 공통 과목 중심으로 편성하고 2, 3학년은 대학수학능력 시험 과목은 대부분 학교 지정으로,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학생 선택 비율 및 과목 선택과 이수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과목 이수 요건의 설정이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매뉴얼(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에 따르면,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학업 보충기회를 제공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책임 지도를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가 미흡했으며, 이를 위한 운영 방안으로 학생 진단 및 이해, 맞춤형 학습목표 설정, 학습 및 평가 방법 계획을 제시(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62)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과목 이수 방안 등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대입과 연계한 평가 방법의 개선이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면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과 편성은 불가능해진다. 특히 2018학년도 입학생의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9등급제의 평가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대입 진학에 따른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는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 자료 분석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데 따른 난점은 추출할 수는 있으나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질 관리와 관련된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의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주요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된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 자료 중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논문 12편과 국가 문서 및 기타 자료 4편, 총 16편을 수합하였다. 이 중 교육과정 개발과 거리가 먼 연구 논문 1편을 제외한 나머지 15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요 요소

연구자(기관)	연구 제목 및 연구 목적	주요 연구 내용	고교학점제를 위한 주요 요소
김희규(2010) 구자역·남궁지영(2011)	“학점제 도입 방안” ▪ 고교 평준화 제도의 보 완책으로서 고등학교에의 학점제 운영 모형과 구 체적이며 현실적인 실행 방안 마련	▪ 고교학점제 개념 정의 ▪ 국내외 학점제 사례 분석 ▪ 학점제 운영 실행방안 ▪ 학교유형별 학점제 운영 예시 모형	졸업 최소 이수학점(180학점 이하), 학점 규정, 무학년제, 교과목 개설 확대, 속진제와 조기졸업, 유급과 재이수제, 이수인정평가, 과목별 위계 설정(상·중·하), 절대평가 도입, 학점 회복과 학점 교류, 최소 이수 기준, 학기제(3, 5 학기제), 시간운영 등
허경철 (2014, 2017)	“무학년·학점제의 시행을 위한 조건”(2014.3.18). “고교 학점제 도입을 생각 하며”(2017.4.19).	▪ 무학년·학점제의 시행 조건 ▪ 무학년·학점제의 개념 정의 ▪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학 점제 적용 ▪ 학점제 시행을 위한 준비	무학년제, 교과목 다양화, 단 계형 교육과정(진단평가, 성 취도),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F 기준), 재이수, 졸업연한, 선택 기회 확대(학년 간, 학년 내 선택 가능), 다학기제, 학점 개념 등

연구자(기관)	연구 제목 및 연구 목적	주요 연구 내용	고교학점제를 위한 주요 요소
손찬희 외(2017)	<p>“학생 맞춤형 선택학습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선택학습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체제로서 학점제 도입·운영 방안 도출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단계별 정책 추진 로드맵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제의 개념적 요건 및 정책적 논의 ▪ 고등학생 맞춤형 선택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정책 및 운영 사례 ▪ 학점제 도입 관련 세부 쟁점 요소 및 개선 방안 ▪ 학점제 도입 방안과 정착을 위한 지원체제 및 단계별 정책 추진 로드맵 	<p>교과목 개설 확대, 절대평가, 교과목별 이수 기준(F), 재시험, 재이수, 대체이수, 졸업 요건, 이수단위 축소, 단위와 학점의 개념, 필수 선택과목 이수 비율, 교육과정 운영(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지역사회 교육과정 등), 수강신청, 낙제와 재수강, 추가적인 학점 획득 기회, 출석 인정 등</p>
정광희 외(2017)	<p>“고교 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진로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방안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고에 적용 가능한 학생 맞춤형(DIY형) 선택 교육과정 도입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 시간(단위) 기반의 학점제 관점에서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 방안 제시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실현을 위한 조건 및 발전과제 제안 	<p>무학년제, 평가방법과 기준, 선택과목 시수 확대, 진로과목 필수 과목의 모듈화, 성취평가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조건 (학점형, 수업지원형)</p>
이광우 외(2017)	<p>“학습자 중심의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점제 실행 방안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의 일환으로 학습자 맞춤형 교육 실행을 위한 고교학점제 실행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점제 ▪ 국내외 운영 사례 조사 ▪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점제 관련 요구 조사 ▪ 고교학점제 실행 방안 및 정책 제언 	<p>과목 개설 확대, 졸업 이수 단위 조정, 필수 선택 이수 비율 조정, 과목 이수 기준, 절대평가, 선택과목 위계화(모듈화), 교과목 개발(수준별 위계화), 학점 취득 의의 졸업 요건, 속진, 조기졸업, 유급과과락, 재이수제, 진단평가(학생의 이수경로 안내) 등</p>
김정빈(2017) 김정빈 외(2017)	<p>“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연구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연장선상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및 학생평가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 고교학점제 및 학생평가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의견 ▪ 고교학점제 및 새로운 학생평가방안 	<p>졸업이수학점, 필수과목 지정, 절대평가, 과목 선택, 무학년제, 학점 회복(재이수, 소정의 보충교육 후 이수 인정 방식) 등</p>

연구자(기관)	연구 제목 및 연구 목적	주요 연구 내용	고교학점제를 위한 주요 요소
홍후조 (2017, 2018)	“학습자 중심의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점제 실행 방안 탐색에 대한 토론”(2017) “고교 학점제 도입의 문제와 과제”(2018) ▪ 고교학점제를 폭넓게 이해하고, 고교 교육에 의미하는 바를 교육과정 측면에서 친착하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의 맥락적 이해 ▪ 고교학점제의 구현을 위한 도입 목적 규명, 해법 모색, 개념과 대상 규정, 과목 이수, 학년진급, 학교졸업 규정, 성적 평가와 후속 조치 등 해법 모색 	이수단위 고정(등가성), 선택 과목 위계화, 수업시간 계량 단위, 과목이수요건, 학년진급요건, 졸업요건, 선택이수, 대체이수, 무학년제, 절대평가, 이수면제, 속진, 재시험, 재이수, 유급, 수료와 졸업, 교과목 안내(course description), 학교 밖 공인 시험의 인정 범위, 통신 강좌와 타교 수강 등의 이수 단위 규정, 학점 취득 미달 학생과 우수 학생에 대한 대책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제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 대입 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 	학생평가 내실화 방안, 학교 밖 학습(공동교육과정 등)에 대한 평가 및 학점 인정 기준, 졸업 기준, 수업연한, 선택과목 개설 확대, 수강 신청제,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 맞춤형 학습 관리 지원,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부(2017b)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의 이해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운영 개요 및 준비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방안 	

이상의 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 추출된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주요 요소들은 대부분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준들이다. 학점에 대한 개념 정의, 과목 이수 기준, 무학년제, 졸업 요건, 유급과 재이수, 학점 회복, 절대 평가, 이수면제, 수강 신청제 등 학자들의 연구 자료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들은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들의 운영 과정을 통해서도 추

출되기 어려운 질 관리 측면의 요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고교학점제 개념에 부합하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고교학점제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구성 체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규정할 것인가도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의 형식이 기존 국가 교육과정의 형식과 달리 규정된다면 단위 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학교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 교육과정의 구성 중점 및 교육목표를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각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및 지원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면 교육과정 총론의 규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행 국가 교육과정의 총론의 형식은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고교 학점제를 위한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은 학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기에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고교학점제로 인해 그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 총론 규정 상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4. 고등학교'는 기존 단위제와 달리 학점제로 전환이 요구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난점들을 중심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4. 고등학교'의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해당하는 영역의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고,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위 배당 기준인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공통 과목은 한국사(6단위), 과학탐구

실험(2단위)을 제외하고 8단위를 기본 단위로 하되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선택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다. 교양 교과목(3단위 범위 내 증감 가능)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어·수학·영어 중심의 교육과정 편제를 지양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고등학교 편제표는 다음 <표 Ⅲ-6>과 같다.

<표 Ⅲ-6>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 (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408시간)로 나누어 편성한다.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해야 한다.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나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계성을 갖는 과목은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해야 한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은 다른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대학과목 선이수제 과목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국가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분석하여 고교학점제 적용 시 수정·보완되어야 할 기준 또는 추가되어야 할 기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기준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1단위 수업량은 50분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양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영역별, 교과별 이수 단위와 3년간 이수해야 할 총 이수 단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영역별, 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학년 구분 없이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할 경우 학점 이수가 가능하며 학점을 기준으로 졸업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석 요건만 충족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한 현행 교육과정 이수 기준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질 관리가 가능한 기준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과 <표 III-5>에 제시된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주요 요소를 토대로 현행 국가 교육과정의 '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고등학교 기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I-7>과 같다.

〈표 III-7〉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분석

구분		2015 개정 교육과정	비고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편제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구분(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구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단위 배당 기준	교과 영역과 교과(군)	
		1단위 기준: 50분 기준으로 하여 17회 이수하는 수업량	학점제 전환 필요
		필수 과목의 지정	
		필수 이수 단위와 자율 편성 단위	수정·보완
		기초 교과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수정·보완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단위(시수)	수정·보완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	수정·보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공통 사항	기본 단위 수 증감	수정·보완
		총 이수 단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정·보완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	수정·보완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8개 이내 편성	수정·보완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단,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 성·운영(원칙)	수정·보완
		선택 과목 중 위계성을 갖는 과목은 계열적 학습 가능하도록 편성	
일정 규모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개설 요구 시 과목 개설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 희망하는 경우 다른 학교 이수 인정	수정·보완		

구분	2015 개정 교육과정	비고
일반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 포함)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 개설 가능	
	지역사회 학습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	수정·보완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 개설 가능	
	필요에 따라 교과외 총 이수 단위 증배 운영 가능	수정·보완
	학교는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 단위 이상 이수	수정·보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외 과목 개설 가능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외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 이수	수정·보완
	제2외국어 과목 개설 시 2개 이상 동시 개설	
	중점학교로 운영하는 경우 자율 편성 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	수정·보완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 시 지역 내 중점학교 및 지역사회 학습장 활용	수정·보완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수정·보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우선 1단위의 기준 수업량을 학점제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 이수하는 수업량을 1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학점제로 전환할 것인지, 수업량의 크기를 달리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총 이수 학점, 필수 이수 학점, 졸업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구자역·남궁지영(2011: 3)은 1단위를 1학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필수 이수 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단위(시수), 과목의 기본 단위와 증감, 총 이수 단위 등의 단위 배당 기준은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있어서도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밖 학습에 대한 규정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 나머지 기준들은 수정·보완하거나 통합하여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나. 현행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기준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추가되어야 할 기준들은 현행 기준보다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다. 관련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학자마다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게 용어를 정리하여 기준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III-7>에 제시된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분석 결과에 따라 <표 III-5>에 제시된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주요 요소를 <표 III-8>과 같이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조화하였다.

<표 III-8>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외 추가 사항

구분	기준	김희규 (2010)	구자익· 남중지영 (2011)	허경철 (2014, 2017)	손찬희 의(2017)	정광희 의(2017)	이광우 의(2017)	김정빈 (2017), 김정현의 (2018)	홍후조 (2017, 2018)	교육부 외기)
국가 교육과 정 기준 외 추가	학점 당 이수 시수, 수업 주수	√	√	√	√				√	
	학점 배당 기준								√	
	(등가성 고려한 과목별 학 점 고정)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이수 비율				√	√	√			
	무학년제 선택과목 편성		√	√		√		√	√	√
	교육 과정 편성	√	√	√		√	√		√	√
	· 운영 기준		√						√	
	절대 평가 도입 및 성적 산출 방법		√		√	√	√	√	√	
	과목 이수 요건(최소 이수 기준, 출석 등)	√	√	√	√		√	√	√	√

구분	기준	김희규 (2010)	구자익· 남궁지영 (2011)	허경철 (2014, 2017)	손찬희 외(2017)	정광희 외(2017)	이광우 외(2017)	김정빈 (2017), 김정민 외 (2018)	홍후조 (2017, 2018)	교육부 외 ⁷⁾
	교과목 개설 확대(선택 과목 수, 다른 학교 또는 기관, 온라인 수업(강의) 등)		✓	✓	✓	✓	✓	✓		✓
	학점 회복(재이수, 대체이수, 재시험, 별도 프로그램 이수 등)	✓	✓	✓	✓		✓	✓	✓	✓
	학점 교류(선택과목 확대, 학점회복,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강의) 등)		✓		✓	✓	✓		✓	✓
	졸업 요건(최소 이수 학점, 필수 이수 학점, 졸업 시험, 출석 등)	✓			✓		✓	✓	✓	✓
	진급 요건(학점, 출석 등), 속진과 유급	✓	✓				✓		✓	
	졸업 연한(조기졸업, 졸업 기한 연장 등)			✓			✓			
	진로 미결정 학생 지원, 수강신청 등				✓	✓			✓	✓

학점 배당 기준과 과목 이수, 진급·졸업에 관한 기준은 현행 교육과정과 달리 학점제 로 전환되어야 할 기준들이다. 무학년제 편성, 과목별 위계 설정 및 수준 구분, 교과목 개 설 확대, 학점 교류 등의 기준은 현행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학점 제에 맞게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현행 국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1단위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 험활동 24단위(408시간)를 이수하고, 출석 일수의 2/3이상 출석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졸업 인정 여부의 판단은 학교장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출석

7) 교육부 외*: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더불어 민주당(2017), 교육부(2017b),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요건만으로 결정되고 있어 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 기준을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수정·보완하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사항을 토대로 추가된 기준들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형식 탐구

국가 교육과정 문서는 국가의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이러한 기준은 국가 수준 이하 모든 교육과정 기준 설정에 있어서 기본 토대로서의 역할을 한다(이병호, 2009: 24).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기준 문서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 총론 문서를 중심으로 구성 형식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구성 형식(안)을 개발하였다.

가. 국가 교육과정 구성 체제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목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구성 체제가 잘 갖춰져야 한다. 김진숙(2006: 123)은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문서의 외형적, 내용적 구성 요소 전반으로 보고, 교육과정 문서의 종류, 도서의 형식 및 규격 등 발간 방식, 문서의 목차 등 외형적 구성 요소를 교육과정 문서의 외적 체제(體裁)로,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와 목차의 하위 항목 간 관계, 서술된 내용의 질적 의미 등 내용적 구성 요소를 교육과정 문서의 내적 체제(體裁)로 정의하고 있다. 정영근 외(2009: 12)는 국가 교육과정 관련 문서의 체제는 종(種) 체제와 구성 체제, 내용 체제의 하위체제로 보고, 구성 체제는 해당 문서의 목적에 따른 구성 요소를 말하며 내용 체제는 각 구성 요소에 담겨지는 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병호(2009: 25)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 문서의 목차를 구성 요소로 보고 있으며, 진술과 제시를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광우(2006: 69)는 국가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문서의

구성 목차로 보고 있다. 이미숙 외(2008: 26)는 국가 교육과정의 체제의 의미를 국가 교육과정의 틀, 구성 요소로 보고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학교 급별 교육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현정 외(2011: 117)는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책의 형태, 책의 구성, 내용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승미 외(2013: 17)는 문서 체제의 형식을 문서 내부 측면과 문서 외부 측면으로 구분하고, 문서 내부의 측면은 문서 구성 영역(문서의 목차)의 외적 체제와 기술 방식의 내적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임유나·홍후조(2014: 43)는 교육과정 문서의 전체적인 형식 측면을 구성 체제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측면을 구성 요소로 보고 있다. 교육과정 구성 형식과 내용에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념 규정을 정리하면 <표 III-9>와 같다.

<표 III-9> 교육과정 구성 형식과 내용에 대한 개념 규정

구분	구성 형식	구성 내용
김진숙(2006)	교육과정 문서의 외적 체제(體裁) (교육과정 문서의 종류, 도서의 형식 및 규격 등 발간 방식, 문서의 목차 등 외형적 구성 요소)	교육과정 문서의 내적 체제(體裁)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와 목차의 하위 항목 간 관계, 서술된 내용의 질적 의미 등 내용적 구성 요소)
이광우(2006)	문서의 구성 목차를 구성 체제로 보고 있음	
이미숙 외(2008)	국가 교육과정의 틀, 구성 요소	
이병호(2009)	국가 교육과정 기준 문서의 목차	국가 교육과정 기준 문서의 진술 과 제시
정영근 외(2009)	해당 문서의 목적에 따른 구성 요소	구성 요소에 담겨지는 내용
임현정 외(2011)	책의 구성(목차)	내용
이승미 외(2013)	외적 체제 (문서의 구성 영역/문서의 목차)	내적 체제 (기술 방식)
임유나·홍후조(2014)	구성 체제(교육과정 문서의 전체 적인 형식 측면)	구성 요소(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측면)

본 연구에서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 형식은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목차를 구성 요소로 보고, 구성 내용은 구성 요소에 따라 진술되는 내용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영역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구성 형식과 구성 내용을 개발하고자 한다([그림 Ⅲ-1] 음영 부분 참조).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 형식과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 총론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초점을 두었다. 현행 국가 교육과정의 총론 체계는 [그림 Ⅲ-1]과 같다.

고시문 교육과정의 성격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2. 교수·학습 3. 평가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그림 Ⅲ-1] 국가 교육과정 총론 체계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 개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일반 고등학교의 단위 배당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우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운영 사례와 학자들의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난점을 추출하고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고교학점제를 위해 현행 국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추가되어야 할 사항들을 구조화하였다. 현행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두 영역에서 편제 부분을 제외한 영역으로 구성 요소를 재구조화 하였다. 우선 교육과정 편제에 관련된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학점의 기준, 최소 이수 학점, 과목 당 학점 배당 그리고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의 구성 요소로 설정하였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은 과목 편성, 과목 이수,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학점 회복으로 구성 요소를 설정하고 세부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형식(안)은 <표 Ⅲ-10>과 같다.

<표 Ⅲ-10>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

영역	구성 요소	
1. 학점 배당 기준	1-1. 학점의 기준	1-1-1. 학점의 기준
		1-1-2. 1학점 기준 수업량
		1-1-3. 과목 당 기본 학점
	1-2. 최소 이수 학점	1-2-1.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평가 유무)
		1-2-3.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량
	1-3. 과목 당 학점 배당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의 배당 비율

2.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기준	2-1. 과목 편성	2-1-1. 학년제/무학년제 편성	
		2-1-2. 위계 또는 수준별 과목 편성	
	2-2. 과목 이수	2-2-1.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2-2-2.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조건	
		2-2-3. 이수 면제(이수 인정 평가)	
		2-2-4. 학점 인정 기준 및 범위	2-2-4-1. 학점 인정 대상 기관
			2-2-4-2. 학점 인정 대상 과목
	2-2-4-3. 학점 인정 범위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2-3-1. 교과 평가 방식	
		2-3-2.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	
		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	
		2-3-4. 졸업 요건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2-4. 학점 회복	2-4-1. 학점 회복 허용 기준	
		2-4-2. 학점 회복에 의한 성취도 취득 기준	
		2-4-3.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의 학교생 활기록부 기재 방법	
2-4-4. 학점 회복 방법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은 학점 배당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두 영역에 포함될 8개의 구성 요소와 25개의 하위 구성 요소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에 따른 세부 구성 요소의 설정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점 배당 기준

본 연구에서의 교육과정 구성 형식은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학점 배당 기준 설정을 우선으로 하였다. 학점의 기준을 학기 단위와 학년 단위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학기, 학년 단위 규정에 이어 1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량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현행 1단위의 수업량을 그대로 학점으로 전환할 것인지, 수업량을 확대 혹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논의되면서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구자역·남궁지영, 2011: 11; 김진숙 외, 2018: 9; 손찬희 외, 2017: 95). 최소 이수 학점을 줄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 줄여야 하는지, 교과와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을 학점으로 할 것인지,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비교과의 이수 규정을 학점으로 규정할 경우 학점 이수 규정을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과목 당 학점 배당은 과목 당 기본 학점을 어느 정도로 규정할 것인지, 현행 증감 규정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홍후조(2018: 712)는 고등학교에서 개설되는 모든 과목들은 학점 단위가 일정해야 하며, 과목별로 이수량이 통일되지 않거나 가감할 수 있게 하면 대체이수, 타교에서의 학점인정 등에서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180단위 중 94단위를 필수 이수 단위로 하고 86단위를 자율 편성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점제를 적용할 경우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규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학점 배당 기준은 4개의 구성 요소와 8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었다.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은 과목 편성, 과목 이수,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학점 회복에 관한 구성 요소를 설정하고 17개의 하위 요소를 제시하였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과목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구분하여 학년제와 무학년제를 적용할 것인지, 모두 무학년제로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과목의 난도 또는 수준에 따라 과목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미국(플로리다주)은 모든 과목을 기초, 정규, 우등의 3단계 수준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으며, 영어는

학년 위계, 수학은 내용 수준 위계에 따라 과목을 편성하고 있다(임광국, 2017: 79).

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학기 당 이수 과목 수를 어느 정도로 규정할 것인가 결정되어야 한다. 학기 당 이수 과목 수의 결정은 과목 당 학습량과 학기 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선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집중이수제로 하여 학기 단위 과목을 이수하게 할 것인지, 독일이나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이하 IBDP)의 사례와 같이 4학기 2년 동안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량을 확대할 것인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준별 과목을 편성할 경우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사 추천서나 선 이수 과목의 학업성취도 등의 조건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도 결정되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목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하여 과목의 이수를 면제하고 학점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과목 선택권 확대 및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혹은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한 대체 이수 등을 고려한 학교 밖 학습에 대한 규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교육부(2018: 17)는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에 한해 공동 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온라인 수업(강의) 등을 개설하도록 규정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의 운영 유형은 첫째, 단위 학교 내에서 모든 선택 과목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단위 학교 단독형, 둘째, 일반고 간 연계 또는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연계 등 인근 학교 간 협력을 통해 공동 과목을 개설하는 타 학교 연계형, 셋째, 교육청 혹은 지역 공공기관, 대학 등의 유휴 공간 내 수업 운영 및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 교육 시설 활용형, 넷째, 심화과목, 실습 등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 내에 고교생 대상 수업을 개설·운영하고, 계절 수업 등을 활용해 정규 교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대학 협력형, 다섯째,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강의 활용형으로 선택형 교육과정 외에도 보충·심화과정 등도 온라인 강좌로 개설·운영 할 수 있도록 제시 하고 있다. 미국(플로리다주)은 졸업 이수 학점(24학점) 중 반드시 1학점으로 온라인 강좌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17a). 학교 밖 학습 경험을 관련 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과목의 제한 요건, 학점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교과 평가 방식이 절대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현행 9단계의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의 병행을 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방식으로 재규정되어야 한다.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의 최소 이수 기준 설정에 있어서 과락의 기준과 출석 반영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현행 수업 일수를 기준으로 한 출석 일수의 2/3이상의 진급과 졸업 요건은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학점제에 있어서 출석 요건은 과목별 학점 취득 요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제주대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과목당 제공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학점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졸업 요건은 기준 학점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졸업 평점이나 졸업 시험 등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준 학점 충족을 위해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점 회복과 관련된 하위 구성 요소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학점 회복은 이미 해당 과목에 배당된 시간을 이수했고 학점도 취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졸업 요건으로 기준 학점 외에 평점을 추가할 경우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해 학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혹은 학생 개인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 신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점 회복 허용 기준, 학점 회복에 의한 성취도 취득의 상한선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 이전 학점을 병기할 것인지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과락을 포함한 학점 회복 방법으로 재시험, 보강이나 재이수 등에 대한 검토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구성 형식에 포함될 구성 요소들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 구성 요소에 따른 내용 기준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진술되었는지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 학자들의 연구 자료와 현행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개발한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은 타당성 검증을 통해 내용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된 구성 요소로 최종 교육과정 구성 형식을 개발하였다.

IV.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내용에 대한 분석

본 장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준거를 설정하고 대상국을 선정하여 준거에 따라 외국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후 시사점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델파이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1. 교육과정 국제 비교 준거 및 대상

어떤 사대나 대상을 비교하는 활동은 그 성격 상 비교 준거를 논리적으로 요구하며, 비교 준거는 비교 대상의 성격을 잘 반영해야 한다(강현석, 2003: 330). 새로운 교육과정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례를 비교 분석할 때에는 타당한 비교 준거를 필요로 한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시행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추출하고 이에 따른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 가능한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교 준거는 앞의 III장에서 고교학점제 연구 학교 운영 사례와 학자들의 연구 자료,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개발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 형식은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목차를 구성 요소로 보고, 구성 내용은 구성 요소에 따라 진술되는 내용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표 III-7>의 구성 형식(안)을 비교 준거로 활용하였다.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은 '학점 배당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영역에 따른 8개의 구성 요소와 2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비교 대상국은 미국, 핀란드, 독일, 일본, IBDP를 선정하였다. 미국은 카네기 단위를 창안하여 이를 기준으로 학점제를 100년 이상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주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플로리다주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핀란드의 교육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Hargreaves & Shirley, 2009; 이찬승·김은영 역, 2015). 핀란드는 OECD에서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인 PISA 테스트 결과만 높은 것이 아니라 대학 경쟁력, 교육제도 경쟁력, 학생 인성지수 등 거의 모든 교육 영역에서 세계 최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김병찬, 2017: 33). 독일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있어서 아비투어를 통한 교육의 질 관리(소경희 외, 2000: 243) 측면을 고려하여 비교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편제와 매우 유사하지만 단위제를 달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단위제고등학교의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이하 IBO)의 IBDP는 최근 우리나라의 공교육 도입에 관한 관심이 증가(매일경제, 2018; 오마이뉴스, 2018; 조선일보, 2018)되고 있다. IBDP는 토론·발표 중심의 수업과 논술형 시험으로 현행 수능 중심의 고교 교육의 혁신적 모델로 제시(이혜정 외, 2017: 139)되고 있어 고교학점제 도입에 비추어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 자료 중 관련 국가 연구 자료와 연구자가 직접 구매한 교육과정 원문 자료 및 관련 국가의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교육과정 원문들을 활용하였다.

2. 교육과정 국제 비교

가.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

(1) 미국(플로리다주)

미국의 학제는 주나 학구마다 다양하나 대개 6-3-4, 7-2-4, 5-4-4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대체로 9-12학년까지 4년간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은 주마다 다양하게 편성·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세부 과목을 제공하고 학생 개인의 진로와 능력에 따라 교과를 선택·이수하는 무학년제 기반의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졸업 요건은 학교마다 지정하는 일정한 양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시험에 합격하면 졸업을 인정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128).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이하 FDE)는 135시간을 1학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만, 학구의 승인을 받아 블록 스케줄을 운영하는 학교는 120시간을 1학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고등학교 졸업 요건은 4년간 표준 24학점을 이수하거나 AICE(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 또는 대학진학을 위한 속진과정(Academically Challenging Curriculum to Enhance Learning: ACCEL, 18학점)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 평균(Grade Point Average: GPA)이 4.0만점에 2.0을 얻어야 한다. 24학점인 표준 졸업 요건은 필수 과목 16학점(영어 4학점, 수학 4학점, 과학 3학점, 사회 3학점, 체육 1학점, 공연예술·연설과 토론·실용예술 1학점)과 선택 과목 8학점이며, 24학점 중 반드시 온라인 강좌 1학점을 포함해야 한다.

고등학교 과정(9-12학년)에서 제공되는 학과군은 필수 과목을 포함하는 핵심 학과군과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진 기타 학과군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과목은 3단계의 수준과 과목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학점의 양이 명시되어 있다. 1수준은 기초과목이며, 2수준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이다. 3수준은 Honors, IB, AP, AICE와 같은 심화과목들이다.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려면 교사 추천서, 주 단위 시험 성적, 교과목 시험 성적 등을 필요로 한다. 학과군별로 개설된 교과목은 핵심 학과군에 731개의 과목, 기타 학과군에 368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개설 과목 수는 일반과목에 Honors, AP, IB, AICE 등에서 제공하는 학과목을 포함한 숫자이며, 필수 과목은 Honors와 재이수 과목이 제시된다(임광국, 2017: 78). FDE는 매년 모든 과목에 코드를 부여하여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과목을 포함한 교과규정안내서(Course Code Directory: CCD)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학과군과 개설 과목 현황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학과군과 개설 과목

구분	학과군	필수과목8)*	졸업요건 학점	개설과목 수	비고
핵심 학과군 (필수)	영어(Language Arts)	영어 1,2,3,4	4	111	
	수학(Mathematics)	대수 1(1학점) 기하(1학점)	4	61	
	과학(Science)	생물 1(1학점)	3	120	
	사회(Social Studies)	세계사(1학점) 미국사(1학점) 미국정치(0.5학점) 경제(0.5학점)	3	144	

	체육(Physical Education)		1	59	
	예술	음악(Music)	1	85	
		드라마(Drama-Theatre Arts)		36	
		댄스(Dance)		27	
		예술/시각예술(Art/Visual Arts)		88	
		연설 및 토론(Speech and Debate)		(12)	영어에 포함
	6개 학과군		16	731	
기 타 학과군 (선택)	외국어 (World Languages)		8	249	
	컴퓨터 교육(Computer Education)			19	
	경험 교육(Experiential Education)			13	
	건강(Health)			10	
	인문학(Humanities)			14	
	도서 매체(Library Media)			3	
	동료 상담(Peer Counseling)			5	
	연구 및 비판적 사고(Research and Critical Thinking)			20	
	군사학 (J.R.O.T.C./Military Training)			22	
	안전 및 운전교육(Safety and Driver Education)			2	
	스터디 홀(Study Hall)			4	
	직업 및 기술(Career and Technical)				
	리더십(Graded Self-Contained or Leadership Skills Development)			2	
	임시(Temp Instructional Placement)			1	
	통합 교육(Applied, Combined, and Integrated Course)			4	체육관련 과목
			8	368	
	총 졸업 이수 학점		24		

출처: 임광국(2017). 고교학점제 운영의 해외 사례, pp.79-80에서 재구성.

학생들은 1년 평균적으로 6-7과목을 수강하며, 학년 위계가 설정되어 있는 영어를 제외

8) 필수 과목은 Honors와 재이수 과목이 제시됨

한 과목은 학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다. 필수 과목 학점은 동일 교과로 인정되는 Honors, AP, IB, AICE, 이중등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수 교과군의 과목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즉, 필수 학과군 내에서도 필수로 지정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기타 학과군에서 선택과목을 반드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대학의 이중 등록 과목을 이수하면 대학과 고등학교 모두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중 등록을 하려면 11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주 또는 전미 수준의 성취도 검사에서 대학 준비 수준의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임광국, 2017: 91).

필수 과목 중 몇 과목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온라인 선이수 또는 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력시험을 통과하면 속진과정(Credit Acceleration Program: CAP)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목 이수 결과, D, F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학점을 포기하고 학점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 과목은 동일한 과목 또는 유사 과목으로, 선택 과목은 다른 과목을 이수하여 C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C, D, F 등급을 받은 경우 학점 포기가 가능하며 C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성취도는 5단계(A, B, C, D, F)로 구분하고 있으며 F는 과락이다. 학점 회복과 관련된 기록에서는 C학점 이상 취득하면 이전 성적의 기록에는 'X'(Exclude) 표시를 하고 이후 취득한 성적에는 'I'(Include)를 표시하며 관련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하다. 누적 GPA 계산 시에는 'I' 표시된 등급만 포함된다. 만약 C 등급 이상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이전 성적을 유지하게 된다. 고등학교 과정 4년 동안 기준 학점은 충족되었으나 누적 GPA가 미달될 경우 6개월 또는 1년 동안 과목을 이수하거나 특별 수업 등을 이수하여 충족할 수도 있다(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17a). 대학선이수제, 이중등록제, 고급반 과목을 수강하고 C 등급 이상 취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일반 과목 A는 4점, 고급 수준 과목 A는 5점(+1), AP 과목 A는 6점(+2)으로 계산된다(임광국, 2017).

졸업을 위한 온라인 강좌는 플로리다 가상학교, 학구의 고등학교, 온라인 이중등록 강좌가 개설된 고등학교, 학구의 가상 수업 프로그램이나 중학교에 개설된 고등학교 수준의 강좌로 이수할 수 있다. 또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나 IT 산업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온라인 강좌는 플로리다 공인 강사가 강의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플로리다 CCD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핀란드

핀란드의 학제는 1년 예비학교, 초·중학교 과정인 종합학교 9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된다. 수업 시수는 초·중학교(1-9학년)의 경우 190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일반 고등학교는 연간 수업일수나 방학 등에 관한 규정이 달리 정해져 있지 않다.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직업고등학교로 구분되며,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2년 혹은 4년에 졸업할 수도 있다. 1990년 대 중반부터 일반 고등학교는 학년별 운영에서 무학년제 운영으로 바뀌었으며, 고정된 학급별 수업에서 자유로운 선택제로 전환하여 무학급제로 운영되고 있다(김병찬, 2017: 91).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이하 FNBE)은 개정된 국가핵심교육과정 2015(National Core Curriculum for General Upper Secondary Schools 2015)를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국가핵심교육과정을 토대로 지역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하며, 이 교육과정에 따라 각 학교는 매 학년도에 연간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학생은 지역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간 계획에 근거하여 자신의 개별 학습 계획서를 작성한다.

FNBE의 개정된 국가핵심교육과정2015(National Core Curriculum for General Upper Secondary Schools 201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핀란드의 일반 고등학교는 5-6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시간표도 1년 동안 5-6회 바뀌게 된다. 학생들은 과목별로 6-7주 동안 집중 이수함으로써 학습 성과 측정과 학습 계획변경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각 과목(course)은 3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수업 시간은 60분이나 최소 45분 이상 수업을 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필수 과목, 특별 과목, 응용 과목으로 구성된다. 특별 과목은 주로 필수과목과 관련된 심화과목으로 학생들은 특별과목을 최소한 10개 이상 이수해야 하며, 특별 과목은 국가에서 지정된 과목과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 있다. 필수 과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취득해야 심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응용 과목은 여러 과목의 융합, 방법론 과목, 직업과목 등에 관한 것으로 해당 학교에서 이수할 수도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다른 기관에서도 이수할 수도 있다.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학점 교류를 인정하고 있다.

졸업 요건은 75개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75개 과목 중 47-51개는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 국가가 지정하는 10개의 특별 과목과 진로상담

과목은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과목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일반 고등학교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일부 과목만 이수한 학생에게는 이수 과목에 대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핀란드 일반 고등학교의 이수 과목 수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핀란드 일반 고등학교의 이수 과목 수

교과		필수 과목 수	심화 과목 수
국어		6	3
외국어	외국어A	6	2
	외국어B	5	2
	기타 외국어		8+8
수학	공통과정	1	
	기본과정	5	2
	응용과정	9	3
환경 및 자연과학	생물	2	3
	지학	1	3
	물리	1	6
	화학	1	4
종교/문화, 세계관 및 윤리		2	4
인문학 및 사회과학	철학	2	2
	심리학	1	4
	역사	3	3
	사회	3	1
예체능 * 필수5과목	체육	1	1
	음악	1~2	2

	미술	1~2	2
건강교육		1	2
교육상담 및 진로상담		2	
필수코스 최소 이수과목 수		47~51	
특별코스 최소 이수과목 수			10
총 최소 이수과목 수		75	

출처: 김병찬(2017). 왜 핀란드 교육인가? p.95.

과목별 평가는 과정평가로 실시되며 평가 척도는 10-4점으로 10(excellent), 9(very good), 8(good), 7(satisfactory), 6(moderate), 5(adequate)로 부여되며 4점은 낙제 점수다. 진로상담과 주제학습은 S(pass)/H(fail)로 표시된다. 개별 학생의 학습 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낙제 과목의 수가 다르며 허용된 낙제 과목의 경우 학점에 포함(낙제 과목 4점 부여)되어 계산될 수 있다. 낙제 허용 과목 수는 1-2 과목 선택 시 없으며, 3-5개 과목 선택 시 1개 과목, 6-9개 과목 선택할 경우 2개 과목, 9개 과목 이상 선택할 경우 3과목까지 허용된다. 학생이 선택한 필수 과목과 특별 과목에서 낙제한 경우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과목의 성적이 없을 수도 있다.

과목 이수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등급을 높이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등급을 올리기 위한 별도의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과목 등급의 평균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체 등급은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핀란드의 학생들은 과목 성취도를 다른 학생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 계획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이다.

핀란드의 고등학교에서는 상담과 진로지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모든 학생은 진로상담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로 지도 및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상담 및 진로지도와 관련된 교원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충분한 수의 상담 및 진로지도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김병찬, 2017: 100). 핀란드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1, 2, 3학년에서 이수할 과목을 선택하는 학습계획서(study plan)를 작성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 3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의 오버슈투페(Oberstufe)는 아비투어(Abitur)를 준비하는 3년간의 중등 2단계 교육과정이다. 1단계는 입문단계(1년)로 학점제⁹⁾ 교육과정에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자격획득 단계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정수정, 2018). 입문단계의 성적은 내신에 포함되지 않으나 입문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자격획득단계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비투어 시험 과목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과목을 최대한 선택하려고 한다. 2단계는 자격획득단계(2년)로 아비투어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 단계에서의 성적은 아비투어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 자격획득단계 1년이 아비투어 전체 성적의 1/3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격획득단계의 성적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은 모든 학교 과정에서 유급 제도를 두고 이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김영은 외, 2018: 24; 정수정, 2018).

오버슈투페는 문·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교육과정으로 과목군은 (가) 언어, 문학, 예술 과목 분야, (나) 사회과학 과목 분야, (다) 수학, 자연과학, 기술 과목 분야, (라) 그 외 과목 분야로 분류된다. 독일의 자격획득단계 필수 이수 교과목과 이수 학기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독일의 자격획득단계 필수이수 권장 교과목과 이수 학기

영역 및 교과목		필수 이수 학기
언어-문학-예술	독일어	4
	중급 이상 외국어	4
	예술	2
사회과학	역사	4
	종교 또는 윤리학	2
수학-자연과학-기술	수학	4
	자연과학 또는 기술	4
기타	체육	4

출처: 김영은 외(2018).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 국내·외 사례, p.26.

오버슈투페의 과목은 필수과목, 선택과목, 심화과목의 3가지로 구분된다. 필수 이수 과

9)임광국(2017)은 오버슈투페는 일반적인 의미의 학점제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시하고 있음

목은 과목 군으로 주어지며 학생들은 그 가운데서 과목을 선택하여 어떤 과목은 필수 이수 과목으로, 어떤 과목은 선택 이수 과목으로 운영한다(임광국, 2017: 106). 심화 과목은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이나 자신 있는 과목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능력 과목이라고도 한다. 능력 과목은 내용과 이론들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확장시켜 주고 연구 방법 등을 통해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며 과목 당 일주일에 5시간 편성한다(김영은 외, 2018: 25).

자격획득단계에서 학생들은 아비투어 시험 과목을 확정한다. 아비투어 시험 과목은 4-5 과목으로 자격획득단계 2년 동안 연속해서 수강해야 하며, 아비투어 과목 중 2개 과목은 자신이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과목으로 선택해야 한다. 능력 과목은 수업 시수가 많고 내신에 두 배로 환산된다. 자격획득단계에서는 한 학기에 2개의 능력과목과 그 외 8개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0개 강좌를 수강해야 한다. 자격획득단계의 4학기 동안 수강한 강좌 중 38개(기본과목 강좌 30개, 능력과목 강좌 8개) 강좌에서 점수를 획득해야 하며, 이 중 5점미만 받은 강좌는 최대 8개 이하이어야 하고 능력 과목 강좌는 5점미만 받은 강좌가 3개 이하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4학기 동안 이수한 38개 강좌 중 성적 순으로 내신에 포함될 35개 강좌를 선택한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면 아비투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정수정, 2018; 김영은 외, 2018: 26).

자격획득단계의 성적 평가는 지필평가와 구두시험으로 실시되며, 아비투어 시험 과목으로 선택한 과목은 모두 지필고사를 치러야 한다. 지필고사는 모두 주관식 서술형이다. 성적 평가는 자격획득단계 이전 학년은 <표 IV-4>와 같이 6등급 체계로 평가한다.

<표 IV-4> 입문단계의 성적 평가 체계(6등급)

도달된 점수(%)	등급
100%-95%	1
95% 이하 81%까지	2
81% 이하 66%까지	3
66% 이하 51%까지	4
51%이하 26%까지	5
26% 이하	6

출처: 김영은 외(2018).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 국내·외 사례, p.29.

그러나 자격획득단계의 성적은 내신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분화하여 1-15점의 점수로 평가되며 5점 이하의 점수를 취득한 과목은 낙제로 처리된다(정수정, 2018; 김영은, 2018: 27). 모든 학생들은 지침에 맞게 출석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충분(0점)'을 받게 된다. 이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아비투어 시험 자격을 받을 수 없다(이근호, 2013: 38). 독일의 자격획득단계의 성적 평가 체계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 독일의 자격획득단계 성적 평가 체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만족			충족			부족			불충분		
	+	1	-	+	2	-	+	3	-	+	4	-	+	5	-	+	6	-
점수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출처: 정수정(2018). 독일의 고교학점제: 김나지움 오버슈투페 운영방식.

독일의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동시에 대학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의 성적은 내신 성적 2/3, 아비투어 시험 성적 1/3의 비율로 합산된다. 아비투어는 총 900점 만점으로 내신 성적 600점, 아비투어 성적이 300점이다. 내신 성적 600점 중 최소 200점을 획득해야 아비투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며, 아비투어 시험에서는 300점 중 최소 100점을 획득해야 한다(김영은 외, 2018; 정수정, 2018). 아비투어는 주 단위로 실시되지만 대입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취업 시에도 동일한 역량지표로 활용된다. 2017년 주 교육부장관회의에서 전체 아비투어 수준을 통일하기 위해 공동의 문제 풀(pool)을 만들어 이 가운데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합의하였다. 독일은 학교교육 의무가 있어 홈스쿨이 허용되지 않으며, 검정고시 제도도 없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해 일정 학점을 취득하여 아비투어 시험을 통과해야만 대학입학 자격이 주어진다(정수정, 2018).

(4) 일본

일본의 학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6-3-3 체제를 이루고 있다. 고등학교는 전일제(full time), 정시제(定時制, part time) 및 통신제(通信制,

correspondence education) 과정이 있다. 전일제 과정의 경우 수업연한은 3년이며 정시제 과정 및 통신제 과정은 3년 이상을 수업연한으로 하고 있다. 정시제 과정의 고등학교는 일과 학업의 양립을 위해 세워진 고등학교로 이전에는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통신제 과정은 전일제와는 달리 매일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되며 자택이나 학교가 설치한 학습센터 등에서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침삭지도, 면접지도, 시험을 통해 단위를 취득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文部科學省, 2017; 백경선 외, 2013: 36).

1988년 일본 문부성은 정시제와 통신제 고등학교에서는 학년별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단위제고등학교 교육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다(최정희·이길상, 2015: 48). 단위제고등학교는 1993년 36개교가 설치된 이래 점차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943개교로서 전체 고등학교 5,194개교(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포함)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이명실, 2010: 8; 최정희·이길상, 2015: 49). 단위제고등학교는 학생의 흥미·관심·진로 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통적 지식·기능·교양은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학교의 재량과 학생의 선택폭을 확대함으로써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단위제고등학교란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정해진 단위를 취득함으로써 졸업을 인정하는 학교제도를 말한다(이명실, 2010: 1).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은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을 2017년 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文部科學省, 2017)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졸업까지 이수해야 할 각 교과·과목 및 단위, 종합적 탐구 시간 단위 및 특별 활동 시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각 교과·과목의 단위 수 및 종합적 탐구 시간 단위를 포함하여 74단위 이상으로 편성한다. 단위 기준은 1단위 시간을 50분으로 하고 35단위 시간의 수업을 1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통신제 과정에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과목 및 종합적 탐구 시간에 배당된 표준 단위 수를 기준으로 학생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초과하여 배당 할 수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과목 및 표준단위를 현행과 개정 내용을 비교하면 <표 IV-6>과 같다.

〈표 IV-6〉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과목 및 표준단위

[개정]				[현행]				
교과	과목	표준단위수	필이수과목	교과	과목	표준단위수	필이수과목	
국어	현대국어	2	○	국어	국어종합	4	○(2단위까지 감소 가능)	
	언어문화	2	○		국어표현	3		
	논리국어	4			현대문A	2		
	문학국어	4			현대문B	4		
	국어표현	4			고전A	2		
	고전탐구	4			고전B	4		
지리역사	지리종합	2	○	지리역사	세계사A	2	○(1과목 선택 필수)	
	지리탐구	3			세계사B	4		
	역사종합	2	○		일본사A	2	○(1과목 선택 필수)	
	일본사탐구	3			일본사B	4		
	세계사탐구	3			지리A	2		
			지리B		4			
공민	공공	2	○	공민	현대사회	2	“현대사회” 또는 “윤리”·“정치경제”	
	윤리	2			윤리	2		
	정치·경제	2			정치·경제	2		
수학	수학 I	3	○(2단위까지 감소 가능)	수학	수학 I	3	○(2단위까지 감소 가능)	
	수학 II	4			수학 II	4		
	수학 III	3			수학 III	5		
	수학 A	2			수학 A	2		
	수학 B	2			수학 B	2		
	수학 C	2			수학 활용	2		
이과	과학과 인간생활	2	“과학과 인간 생활”을 포함한 2 과목 또는 기초가 붙은 3과목	이과	과학과 인간생활	2	“과학과 인간 생활”을 포함한 2 과목 또는 기초가 붙은 3과목	
	물리기초	2			물리기초	2		
	물리	4			물리	4		
	화학기초	2			화학기초	2		
	화학	4			화학	4		
	생물기초	2			생물기초	2		
	생물	4				생물		4
	지학기초	2				지학기초		2
	지학	4				지학		4

				이과과제연구	1		
보 건 체 육	체육	7~8	○	보 건 체 육	체육	7~8	○
	보건	2	○		보건	2	○
예 술	음악 I	2	○ (음악I, 미술I, 공예I, 서도I 중 1과목 선택 필수)	예 술	음악 I	2	○ (음악I, 미술I, 공예I, 서도I 중 1과목 선택 필수)
	음악II	2			음악II	2	
	음악III	2			음악III	2	
	미술 I	2			미술 I	2	
	미술II	2			미술II	2	
	미술III	2			미술III	2	
	공예 I	2			공예 I	2	
	공예II	2			공예II	2	
	공예III	2			공예III	2	
	서도 I	2			서도 I	2	
	서도II	2			서도II	2	
	서도III	2			서도III	2	
외 국 어	영어회화 I	3	○(2단위까지 감소 가능)	외 국 어	커뮤니케이션 영어기초	2	
	영어회화II	4			커뮤니케이션 영어 I	3	○(2단위까지 감소 가능)
	영어회화III	4			커뮤니케이션 영어II	4	
	논리·표현I	2			커뮤니케이션 영어III	4	
	논리·표현II	2			영어표현 I	2	
	논리·표현III	2			영어표현II	4	
가 정	가정기초	2	○(1과목 선택 필수)	가 정	가정기초	2	○(1과목 선택 필수)
	가정종합	4			가정종합	4	
					생활디자인	4	
정 보	정보 I	2	○	정 보	사회와 정보	2	○(1과목 선택 필수)
	정보 II	2			정보의 과학	2	
이 수	이과탐구기초	1		이 수	이과탐구	2~5	
	이과탐구	2~5					
종합적 탐구시간		3~6	○(2단위까지 감소 가능)	종합적 탐구시간		3~6	○(2단위까지 감소 가능)

출처: 文部科學省(2018). 新しい學習指導要領の考え方: 中央教育審議會における議論から改訂そして實施へ.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서 종합적 탐구 시간을 포함하여 74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이나 학교, 지역의 실태 및 학과의 특색 등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위의 표에 열거된 교과 이외 교과 및 과목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학교 설정 교과라고 한다. 전일제 과정의 각 교과목 및 홈룸 활동 수업은 연간 35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교과·과목의 수업을 특정 학기 또는 특정 기간(하계, 동계, 학년 말 등의 휴업일 기간에 수업 날짜를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할 수 있다. 전일제 과정의 주당 수업시수는 30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 늘어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서는 학생의 특성, 진로 등에 따라 적절한 교과·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유형을 만들어 그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에도 그 유형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과·과목 이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 이수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전체 필수 이수 단위 수는 현행 보다 감소하였으나 공통 필수 이수 단위 수와 해당 과목 수가 증가하고 선택 필수 이수 단위 수와 해당 과목 수가 감소하였다. 필수 이수 단위 수와 과목 수를 현행 교육과정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IV-7>과 같다.

<표 IV-7> 일본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 단위와 과목 수 비교

구분	개정 학습지도요령(2017)	현행 학습지도요령
공통 필수 이수 단위(과목 수 ¹⁰⁾)	27-28단위(10과목)	19-20단위(5과목)
선택 필수 이수 단위(과목 수)	10-14단위(5과목)	20-32단위(10과목)
필수 이수 단위 합계	37-42단위	39-52단위

※ 단위 수 감소 여부는 반영되지 않음.

교과목 이수는 학교가 정한 지도 계획에 따라 각 교과·과목을 이행하고 그 성과가 교과 및 과목의 목표에 비추어 만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각 교과·과목의 단위를 취득한

10) 종합적 탐구 시간 제외

것으로 인정한다. 과목 또는 종합적 탐구 시간을 2년 이상의 학년에 걸쳐 이수하는 경우, 단위의 취득 인증은 학년, 학기 구분으로 할 수 있으나 그 과목 이수 인증은 안 된다. 학교에서는 졸업까지 정해진 단위 수를 취득한 자에 대해 고등학교 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이 경우 졸업까지 취득한 단위 수는 74 단위 이상이어야 하며, 보통과의 경우 학교 설정 교과 및 과목의 단위 수는 총 20단위를 초과 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 인정은 단위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일본에서는 학교교육법시행규칙 등으로 학교 외 활동을 단위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가) 해외유학 30단위까지, (나) 학교 간 연계 36단위까지, (다) 대학, 고등전문학교 또는 전수학교 등에서 수학한 단위, (라) 기능심사 성과(실용영어능력검정, TOEIC 등), (매) 자원 봉사 활동 등의 단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나)~(매)를 합쳐 36단위까지 인정한다. 이 외에도 (바) 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의 합격 과목 단위 (사) 별과 과목의 단위 (아) 정시제 과정 및 통신제 과정의 기능 연계 단위 (자) 정시제 과정 및 통신제 과정의 단위를 인정한다(이명실, 2010: 14).

평가 결과는 1, 2학기말과 학년말에 제시하는데 1, 2학기말에는 교과별로 10단계 평정을 하고, 학년말에는 1, 2학기 성적과 3학기 성적을 종합하여 5단계 평정을 한다(소경희 외, 2000: 90). 5단계의 교과·과목의 평정은 5, 4, 3, 2, 1로 표시한다.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교과·과목의 목표에 근거하여 학교가 설정한 목표와 내용에 비추어 총괄적으로 평가 한 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 그 성과가 특히 높은 수준일 경우'를 5,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4, '대체로 만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3,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2,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 그 성과가 특히 낮은 수준일 경우' 1로 평가한다. 평정이 1이면 단위 습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과목 이수를 위해서는 결석 시간 수가 출석해야 하는 시간 수의 1/5(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3)를 넘으면 이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김영은 외, 2018: 33).

(5) IBDP

IB는 해외 거주 글로벌 전문가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었으나 국제통용이 가능한 교육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대학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국가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통용되는 공통된 표준 교육과정 개발의 요구에서 시작되었

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 비영리 교육재단 IBO를 설립하고 표준화된 국제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을 갖춘 IB 프로그램 개발하게 되었다.

IBO는 산하에 지역별 글로벌 센터를 3군데 두고 있다. IB 아프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센터(IB Africa, Europe, Middle East Center), IB 미주 센터(IB Americas Center), IB 아시아 태평양 센터(IB Asia-Pacific Center)가 있다. IB 아프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센터는 헤이그(Hague)에 있으며 아프리카, 유럽 및 중동의 80 개국에 900개 이상의 학교가 속해 있다. IB 미주 센터는 미국의 메릴랜드(Maryland)주 베테스다(Bethesda)에 있으며 북미, 중미 및 남미 전역의 30 개국 이상에서 3,000 개 이상의 IB 세계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IB 아시아 태평양 센터는 싱가포르(Singapore)에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9 개국 600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BO, n.d.).

IBO는 2016년 영국의 카디프(Cardiff)에 새로운 평가 센터를 개설하였다. 이 센터는 3개의 글로벌 센터에 소속된 IB 직원 700명 중 200명이 넘는 직원이 거주하는 곳으로 IB의 네 가지 국제 교육 프로그램 평가 활동을 만들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BO, n.d.).

IBO는 해마다 국제 교육에 관한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개발하기 위해 지역별로 학교, 대학 및 정부, 학생 등 관계자들이 모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2018년은 IB 5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개의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철학의 공유, 향후 달라지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안내 등 IB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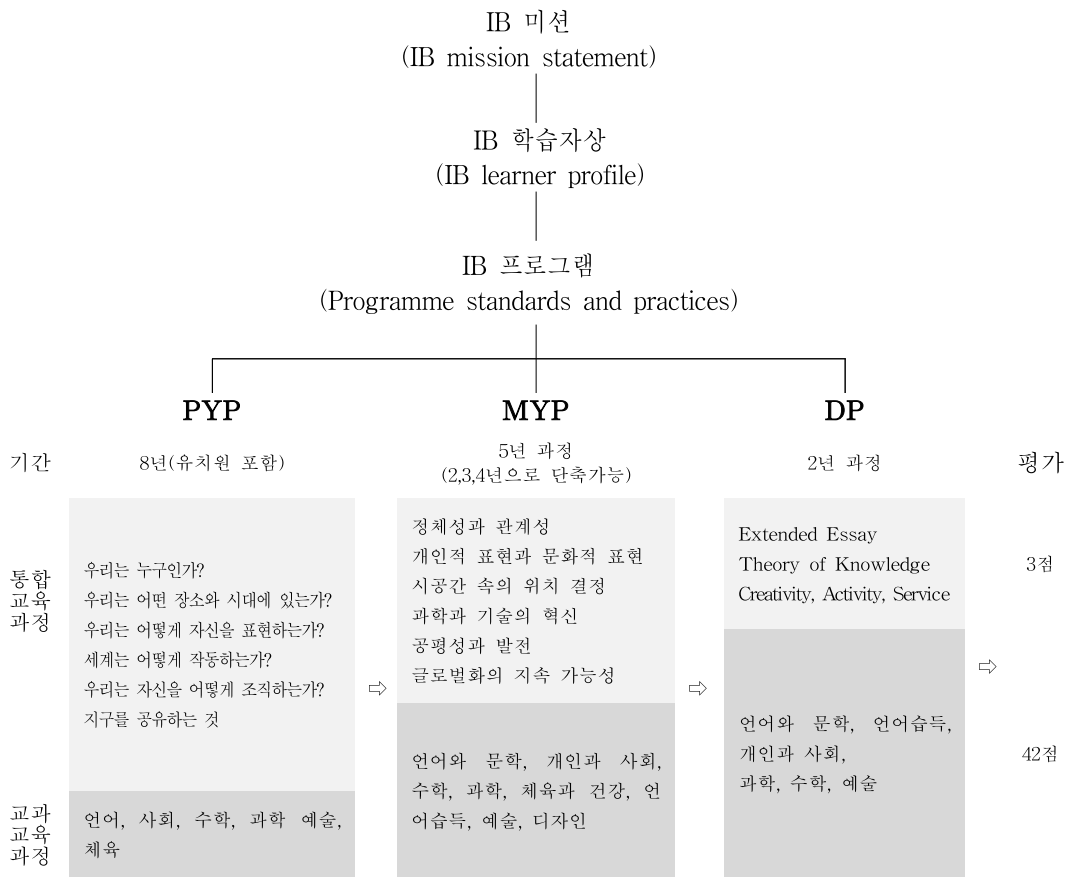
IB는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1968년 16-19세 사이의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IBDP를 시작으로 1994년 중학교 과정인 Middle Years Programme(이하 MYP), 1997년 초등과정인 Primary Years Programme(이하 PYP)를 개설하였으며, 2012년 Career-Related Programme(이하 CP)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IBO는 3세에서부터 19세에 이르는 학생들이 연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IB의 교육 철학과 목적을 담고 있는 미션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BO, nd).

IB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더 좋은 그리고 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탐구적이고 지식이 풍부하며 배려심이 있는 학생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B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도전적인 국제교육 프로그램과 엄격한 평가 체도를 개발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능동적이며 공감적이고 평생학습자가 되도록 한다.

IB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IV-1]과 같다.



교수 학습 방법: 탐구에 기반 한 교수, 개념 이해에 중점을 둔 교수, 지역과 글로벌 맥락에서 전개되는 교수, 효과적인 팀워크와 협력에 중점을 둔 교수, 학습 방해 요소 제거 설계 교수, 평가 정보를 활용하는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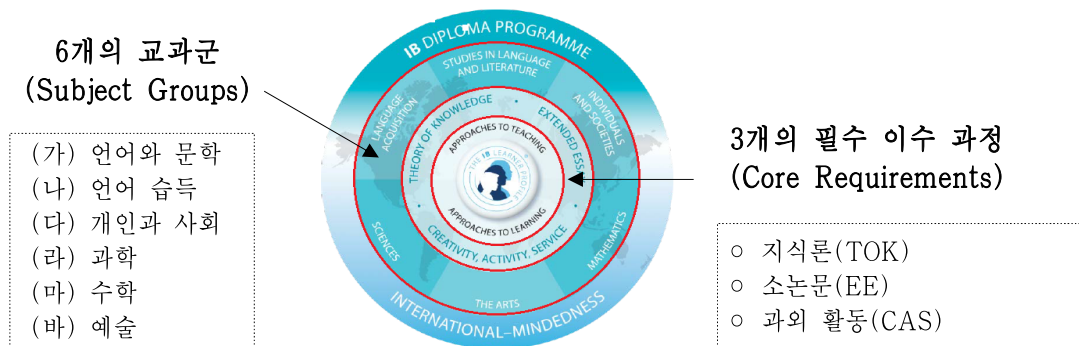
[그림 IV-1] IB 프로그램의 연속성

출처: 김대영 (2018). 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인가?: 평가의 공정성 vs 교육 거버넌스, p.60에서 재구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국제적인 관점을 지닌 학습자가 되기 위한 IB

학습자상은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IB가 추구하는 학습자상은 탐구하는 사람(Inquirers), 지식이 풍부한 사람(Knowledgeable), 사고하는 사람(Thinkers), 의사소통 할 줄 아는 사람(Communicators),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Principled), 개방적인 사람(Open-minded), 배려하는 사람(Caring), 모험적인 사람(Risk-takers), 균형 감각을 지닌 사람(Balanced), 반성적인 사람(Reflective)이다.

IBDP는 학문적으로 도전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대학과 삶을 위해 16세에서 19세 사이의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IBDP의 사용 언어는 공식적으로는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다. IBDP의 교육과정은 [그림 IV-2]와 같이 6개의 교과군(Subject Groups)과 3개의 필수 이수 과정(Core Requirements)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IV-2] IBDP 교육과정의 구성

출처: IBO(2015c). The IB: An Historical Perspective.에서 재구성.

6개의 교과군은 (가) 언어와 문학(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나) 언어 습득(Language Acquisition), (다) 개인과 사회(Individuals and Societies), (라) 과학(Sciences), (마) 수학(Mathematics), (바) 예술(The Arts)로 되어있다. 필수 이수 과정은 지식론(Theory of Knowledge: TOK), 소논문(Extended Essay: EE), 과외 활동(Creativity, Action, Service: CAS)으로 전체 교육과정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학생들은 지식과 이해의 폭과 깊이를 보장하기 위해 (가)-(바)까지의 6개 교과 군에서 적어

도 한 과목은 선택해야 한다. 다만, (배) 예술 과목군은 (가)-(배)까지의 교과 군에서 다른 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6과목 중 3과목(4과목 이하)은 고급 수준(Higher Level: HL)에서, 나머지 과목은 표준 수준(Standard Level: SL)에서 선택해야 된다.

IBDP는 교육과정 이수에 있어서 '학기'나 '단위'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기간 총 2년 동안 과목별로 실시간으로 진행해야할 수업 시간만을 제시하고 있다. IBDP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6개 교과군 중에서 선택한 표준수준의 과목은 총 150시간, 고급수준의 과목은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그리고 필수 이수 과정의 지식론과 소논문은 교과적 성격을 갖는 과정으로 지식론은 100시간, 소논문은 40시간의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박하식 외, 2013).

IBO는 2010년 Pamoja Education과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IBDP를 위한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DP 과정은 기간(2년), 내용 및 평가 방법 등 전통적인 면대면 DP 과정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IBDP 전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온라인 DP 과정의 이수 과목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학생과 학교가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은 1-2개 과목 정도 선택하고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학생은 3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BO, nd). IBDP의 교과 군별 개설 과목과 온라인 개설 과목은 <표 IV-8>과 같다.

<표 IV-8> IBDP의 교과 군별 개설 과목 및 온라인 개설 과목

교과군	개설 과목	온라인 개설 과목
제1군: 언어 및 문학 연구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guage A: literature ▪ Language A: language and literature ▪ Literature and performance 	
제2군: 언어 습득 (Language Acquis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guage ab initio ▪ Language B ▪ Latin or Classical Gre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nish ab initio ▪ Spanish B SL ▪ Mandarin ab initio ▪ French ab initio
제3군: 개인과 사회 (Individuals and Socie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Management ▪ Economics ▪ Geography ▪ Global Poli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Management SL ▪ Business Management HL ▪ Economics HL ▪ Economics S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story ▪ Information Technology in a Global Society ▪ Philosophy ▪ Psychology ▪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 World Religions(SL on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ormation Technology in a Global Society SL ▪ Information Technology in a Global Society HL ▪ Philosophy SL ▪ Psychology SL ▪ Psychology HL
제4군: 과학(Sci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ology ▪ Computer Science ▪ Chemistry ▪ Design Technology ▪ Physics ▪ Sports, Exercise and Health Science ※ Interdisciplinary Subject ▪ Environmental Systems and Societies 	
제5군: 수학(Mathema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hematical Studies Standard Level ▪ Mathematics SL ▪ Mathematics Higher Level ▪ Further Mathematics Higher 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hematics SL ▪ Mathematics HL
제6군: 예술(The A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nce ▪ Music ▪ Film ▪ Theatre ▪ Visual arts 	Film SL

출처: IBO(n.d.). Diploma Programme Courses Online.

IBDP의 평가는 다른 시험 응시자의 성취에 비교해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근거하여 개별 평가한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각 과목의 목표와 목적을 반영하여 각 학년 수준에서 기대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IBDP의 평가는 내부평가(Internal Assessment)와 외부평가(External Assessment)를 실시한다. 내부평가는 교사들이 대부분의 수업 과정에서 실시하는 평가로 구술시험, 실험실습, 예술 공연 등을 포함한다. 내부평

가는 과목 평가의 20-30%를 차지하나 일부 과목은 50%까지 차지할 수도 있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IB는 전 세계적으로 약 8,500 명의 시험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IBDP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다(IBO, 2014b: 2).

학생들은 과목별로 최고 7점에서 최저 1점까지의 성적을 받는다. 고급 수준(HL)과 표준수준(SL) 과목 모두에 대해 동일한 점수가 부여된다. 졸업장은 필수 이수 요건인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45점 만점 기준 최소 24점 이상을 받은 학생에게 수여된다. 지식론(TOK)와 소논문(EE)은 개별 성적으로 부여되며, 종합 점수에 3점이 추가된다. 과외 활동(CAS)은 총점에 점수로 가산되지는 않지만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IBDP의 점수는 총 45점(6과목 x 7점 + TOK와 EE의 총점 3점)이다. 45점 만점자는 1% 미만이며 응시자의 약 5%는 40점 이상을 얻는다. 평균 점수는 약 30점이다. IBDP 학생의 약 80%가 졸업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BO, 2014b: 2).

(6) 시사점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기준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질 관리이다.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 분석 결과, 일본을 제외한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IBDP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성취도를 취득하지 못하면 과목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 과락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단위제고등학교는 학점제와 동일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진급·졸업 요건은 출석 일수의 2/3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만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장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평가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질 관리를 위한 과목 이수 요건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과목 편성과 이수에 관한 사항이다. 미국(플로리다주)은 모든 과목을 3단계의 수준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필수 과목, 특별 과목, 응용 과목을 구분하여 특별 과목은 필수 과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취득해야 선택 이수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및 진

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조건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편성, 필수 이수와 선택 이수 학점의 배당 등에 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학점 인정과 관련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미국(플로리다주)은 반드시 온라인 강좌를 통해 1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반드시 학교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일본은 해외 유학 및 실용영어 능력검정이나 TOEIC 등 폭넓게 단위를 인정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설정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현행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점 미 취득자를 위한 방안 마련이다. 미국(플로리다주)은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해 학점 포기 및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이수 또는 대체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시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독일이나 IBDP와 같이 과목 당 이수 학점 또는 시수를 늘려서 집중적으로 2년간 이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BDP의 운영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 있어서 벤치마킹할 요소를 추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현행 국가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IBDP의 필수 이수 과정(Core Requirements)의 과외 활동(Creativity, Action, Service; CAS) 운영 사례에서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질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공교육에 IBDP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매일경제, 2018; 오마이뉴스, 2018; 조선일보, 2018). 그러나 현재 IBO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IB 인정 학교는 2018년 3월 현재 12개교(정영근 외, 2018: 20)로 이들 학교들은 설립 주체가 모두 사립이며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 교육기관,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들이 대부분이다. 국내 공교육에서 IBDP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010년 IB 인정 학교가 된 경기외국어고등학교가 유일하다. IB는 국제적 시각에 대한 지향이고, 교육과정 설계는 교과 경계를 초월한 통합·융합을 통한 연결성을 도모하며, 학생들이 국제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정영근 외, 2018: 3). 특히 교과의

편성·운영에 있어서 학기나 단위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2년 동안 과목별 시수를 배당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교육과정 국제 비교 및 시사점

이상의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DP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표 III-7>의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을 준거로 비교 분석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학점 배당 기준

학점 배당 기준 영역 구성 요소는 학점의 개념을 규정할 수 있는 학점의 기준과 1학점의 수업량, 과목 당 기본 학점,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과 활동량,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의 배당 비율로 구성되었다. 학점 배당 기준에 해당 하는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국가별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점의 기준

국가에 따라 교육과정 편제의 기준을 학점 또는 단위, 시간이나 학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수업 연한은 국가에 따라 3년 또는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후기 과정 2년을 자격획득단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IBDP 또한 2년 과정의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점 또는 단위의 기준은 미국(플로리다주)과 일본은 1년 기준이며, 핀란드는 5-6학기제로 과목 당 38차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독일과 IBDP는 한 과목을 2년 동안 이수하되, 독일은 4학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IBDP는 표준 수준 과목과 고급 수준 과목의 이수 시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미국(플로리다주)이나 핀란드는 과목 당 학점 기준에 따라 수업 일수나 수업 주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수업 일수나 수업 주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별 학점의 기준 설정과 관련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비교 결과는 <표 IV-9>와 같다.

출처: ①교육인적자원부·경상남도교육청(2008), ②김병찬(2017), ③김영은 외(2018), ④김진숙

<표 IV-9> '1-1. 학점의 기준' 관련 국제 비교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 (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1-1-1. 학점의 기준	회(학기)	1년 ²⁰	학기 ¹⁹	※ 학기 ¹¹ ¹⁶	1년 ¹⁷	※ 2년 ²¹	
1-1-2. 1학점 기준 수업량	17회	135시간 ²⁰	과목 당 38차시 ¹⁹	※ 4학기 ¹¹ ¹⁶	35차시 ¹⁷	※ 과목별 시간 ²¹	
1-1. 학점의 기준 참고	단위 수업 시간	50분	최소 45분 이상(60분) ¹⁹	정해져 있지 않음(초등 45분) ¹	50분 ¹⁷	SL 150시간, HL 240시간 ²¹	
	편제 단위	단위	Credit/Carnegie Unit ¹⁸ ²⁰	과목(Course) ¹⁹	시간/학기 ¹¹	단위 ¹⁷	시간 ²¹
	연간 수업 주수	34주	27주 (주5일 환산)	38주 (주5일 환산) ⁸	약38주 (주5일 환산)	35주 ¹⁷	35주 ²¹
	주당 수업 시간	35시간	30시간 (주5일 27주 환산)	30시간 내외 ¹⁶	주당30시간내외 (자격 단계) ¹	30시간 ¹⁷	30시간 ²¹
	연간 수업 일수	190일	180일 ¹¹	190일 ¹⁶	평균188일 ¹	최소 175일, 평균 190-210일 ⁴	176일 ²¹
	수업 연한	3년	4년 기본, 조기 졸업 및 1년 연장 가능 ²⁰	3년 기본, 2-4년 가능 ²	3년 기본(자격 단계 2년), 2-4년 가능 ¹⁴	3년 기본, 예외 (다음년도 1학기 말까지 이수, 학년말 졸업) ⁸ ¹⁰ ¹⁷	2년 ²¹
1-1-3. 과목 당 기본 학점	공통 과목 8단위 선택 과목 5단위	필수 1학점 (2과목은 각 0.5 학점) 선택 0.5, 1, 2 학점 ¹¹	과목별 38차시 ¹⁹	핵심 5과목×4학기(20 강좌), 다른 교과목 20강좌 ¹⁶ ※ 1학기 10과목(능력 과목 2) 이수 ³ ¹¹	필수 2-4단위 (체육 제외) 선택 2-4단위 (理數교과 제외) ¹⁷	SL 150시간 HL 240시간 TOK 100시간 EE 40시간 ⁷ ²¹	

외(2018), ⑦박하식 외(2013), ⑧백경선 외(2013), ⑩이명실(2010), ⑪임광국(2017), ⑭정수정 (2018), ⑮이근호(2013), ⑰文部科學省(2017), ⑱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2014), ⑲Fi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16), ⑳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2017a), ㉑IBO, ㉒NLCS_Jeju

우리나라의 1단위는 17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미국(플로리다주)은 135시간, 핀란드는 38차시, 독일은 2년 4학기, 일본은 35차시, IBDP는 표준 수준(SL) 과목 150시간, 고급 수준(HL) 과목 240시간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이 1년 또는 2년 과정의 수업 분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위 수업의 양이 적은 반면 비교 대상국들의 기준 수업량은 상대적으로 1년 또는 2년에 해당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고교학점제 적용 시 1학점의 기준 수업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과목 당 학점, 총 이수 학점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나) 최소 이수 학점

고교학점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일부 연구에서는 현행 총 이수 단위 수를 줄여야 한다(구자익·남궁지영, 2011: 11; 김진숙 외, 2018: 9; 손찬희 외, 2017: 95)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만약 총 이수 단위 수를 줄여야 한다면, 교과와 비교과 중 어느 영역을 줄일 것인지, 어느 정도 줄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례를 토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최소 이수 학점과 관련된 국제 비교 결과는 다음 <표 IV-10>과 같다.

<표 IV-10> '1-2. 최소 이수 학점' 관련 국제 비교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 (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1-2 최소 이수 학점	1-2-1.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	180단위	24학점 ^㉑	75과목 ^㉒	38강좌(2년) ^㉓ ^㉔ ※ 1과목 4학기 편성(4강좌)	74단위 ^㉕	SL 3, HL 3 (SL 2, HL 4) TCK EE 14 ^㉖	
	참고	시간 환산	180×17×50/60 =2,550	24×135 =3,240	75×38×60/60 =2,850	38×(30×50/60) ×2=1,900 ※ 1시간 50분 산정	74×35×50/60 =2,158.3	(150×3+240×3) +140=1,310 (150×2+240×4) +140=1,400
		3년 환산	2,550시간	2,430시간	2,850시간	2,850시간	2,158.3시간	1,965/2,100 시간
	1-2-2. 비교과 (청의적 체험활동) 의 이수 규정 (평가 유무)	단위(시간)					단위 ^㉗ ※ 총 이수 단위 미포함, 졸업 요건	시간 ^㉘
	1-2-2. 비교과 (청의적 체험활동) 의 활동량	24단위 (408시간)					특별활동은 HR 포함 졸업 시 까지 30단 위 이상 ^㉙	CAS 150시 간 ^㉚
	참고	시간 환산	24×17×50/60 =340				30×35×50/60 =875	150×3/2=225
3년 환산		340				875	225	

출처: ③김영은 외(2018), ④정수정(2018), ⑦文部科學省(2017), ⑨Fi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16), ⑩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2017a), ⑫IBO

교과 총 이수 학점은 국가에 따라 학점 또는 이수 과목 수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플로

리다주) 24학점, 핀란드 75과목, 독일 38강좌, 일본 74단위, IBDP는 6개 과목 중 표준 수준(150시간) 3과목, 고급 수준(240시간) 3과목 또는 표준 수준(150시간) 2과목, 고급 수준(240시간) 4과목과 지식론(TOK) 100시간, 소논문(EE)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과 최소 이수 시간을 3년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핀란드와 독일은 우리나라의 2,550시간보다 12%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초등학교의 경우만 단위 수업 시간을 45분으로 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과정은 일정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있어서 비교 시수에는 융통성이 있음을 전제한다. 일본은 2,158시간 정도로 우리나라 보다 약 15-16%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플로리다주)은 2,430시간으로 우리나라 보다 약 5%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BDP는 표준 수준의 과목과 고급 수준의 과목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2,000-2,100시간 정도로 교과 총 이수 시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약 18-20%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과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최소 24단위 또는 408시간(단위 시간 50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HR을 포함한 특별활동은 졸업 시까지 30단위 이상을 이수하되 졸업 이수 단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졸업 요건으로서 특별활동의 성과가 만족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IBDP의 과외 활동(CAS)은 졸업 요건으로서의 점수는 부여되지 않으나 반드시 2년 동안 1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 과목 당 학점 배당

현행 국가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의 경우 한국사와 과학탐구실험을 제외하고는 기본 단위를 8단위로 하고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로 하고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플로리다주)은 필수 과목에 한 해 이수 학점을 배당하고 나머지 과목은 과목(군)으로 학점을 배당하여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은 영어 1, 2, 3, 4의 4학점, 수학은 대수 1(Algebra 1)의 1학점과 기하(Geometry) 1학점을 포함한 4학점, 과학은 생물 1(Biology 1)의 1학점을 포함한 3학점이며 사회는 미국사(U. S. History) 1학점, 세계사(World History) 1학점, 미국 정치(U. S. Government) 0.5학점, 경

제(Economics) 0.5, 체육 1학점, 예술(영어 학과군인 Speech & Debate로 대체 가능) 1학점이다(임광국, 2018: 105). 필수로 지정된 과목을 제외하면 해당 교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과목이 아니라 해당 교과목의 필수 이수 학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수 과목은 0.5학점 또는 1학점을 배당하고 있으며 선택과목은 과목에 따라 0.5학점, 1학점, 2학점으로 배당하고 있다.

과목 당 학점 배당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비교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1-3. 과목 당 학점 배당' 관련 국제 비교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 (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1-3. 과목 당 학점 배당	1-3 과목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공통 과목 -2 선택 과목 ±2~3				필수(수학 I, 영어회화I, 종 합적 탐구시간) 2단위까지 감 가능⑰	
	참고 필수 과목 수	7과목 (공통과목)	영어(1-4, 4년, 4학점)외 9과목 ⑪	47-51 과목, 진로 과목 필 수 이수⑬ ※ 5-6학기제 로 과목별 6-7주 집중 이 수②	28강좌(6과목 4학기 편성, 2 과목 2학기 편 성)③⑧⑪	14-15과목⑰	TOK, EE, (6과목)⑦⑱

출처: ②김병찬(2017), ③김영은 외(2018), ⑧백경선 외(2013), ⑪임광국(2017), ⑬정광희외(2017),
⑰文部科學省(2017), ⑱IBO

핀란드는 필수 이수 과목과 선택 이수 과목은 구분되어 있으나 과목 당 이수 시수는 38차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기를 5-6학기로 구분하고 있어 과목별 집중 이수를 하고 있다. 독일은 자격획득단계에서 제공된 과목은 주당 2시간 또는 4시간으로 운영된다. 이 단계에서는 4학기 동안 5개의 핵심 과목을 4시수로 이수하며, 학교가 제공하는 과목 중에서 20개의 4시수 핵심 과목뿐만 아니라 최소한 20개의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4학기 동안 이수하여야 한다(이근호, 2013: 37). 한 학기에 10과목 정도 이수하는데 이 중 능력과목 2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일본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과목별 표준 단위 수를 제시하고 있다. 필수 이수 과목은 체육(7-8단위)을 제외하고 2-4단위를 배당하고 있으며 수학 I, 영어회화 I, 종합적 탐구시간은 2단위까지 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 과목은 이수 교과목의 경우 '이과탐구기초' 1단위, '이과탐구' 2-5단위를 제외하고 2-4단위를 배당하고 있

으며 증감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IBDP는 과목에 관계없이 수준에 따라 표준 수준(SL)의 과목은 150시간, 고급 수준(HL)의 과목은 240시간을 배당하고 지식론(TOK) 100시간, 소논문(EE) 40시간을 배당하고 있다.

(라)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현행 국가 교육과정은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 공통 과목 단위 수를 포함하여 94단위를 편성하고, 나머지 86단위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수 이수 단위가 약 52%, 선택 이수 단위가 약 48%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에 관한 국제 비교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관련 국제 비교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 (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필수 이수 94 단위 선택 이수 86 단위	필수 이수 16 학점 선택 이수 8학점 ⑳	필수 이수 47-51과목 나머지 선택 (응용 10 과목, 나머지 심화)㉒	필수 이수 28 강좌 선택 이수 12 강좌③⑩	필수 38-46 단위①) 선택 26-34단위 ⑰	필수 2(TOK, EE) 선택 6과목②)
참고	비율 환산 필수 52.2% 선택 47.8%	필수 66.7% 선택 33.3%	필수 62.7-68.0% 선택 32.0-37.3%	필수 70% 선택 30%	필수 55.9-64.8% 선택 33.2-44.1%	※ 시간수 환산 필수 10-11% 선택 89-90%

출처: ②김병찬(2017), ③김영은 외(2018), ⑩임광국(2017), ⑰文部科學省(2017), ⑳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2017a), ㉒IBO

미국(플로리다주)은 필수 이수 학점 16학점, 선택 이수 학점이 8학점이다. 핀란드는 졸업에 필요한 과목 수는 75과목이며, 이 중 진로상담 과목과 47-51개의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 나머지는 선택 이수할 수 있으나 선택 과목 중 반드시 10개의 응용 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졸업에 필요한 강좌는 38강좌이나 학기 당 약 10강좌를 이수한다. 이 중 28강좌는 필수 이수 강좌이며 나머지 12강좌는 선택이다. 일본의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필수 이수 단위는 현행 39-52단위에서 37-42단위로 감소하였으나 공통 필수

11) 종합적 탐구시간 제외

이수 단위와 과목 수는 현행 19-20단위, 5과목에서 27-28단위, 10과목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선택 필수 이수 단위와 과목 수는 현행 20-32단위, 10과목에서 10-14단위 5과목으로 감소되었다.

이상의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필수 이수 단위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선택 이수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선택 이수 학점의 비율이 높은 미국, 핀란드,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과목을 지정하기 보다는 과목 군으로 주어지고 학생들이 선택하여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 이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필수 이수와 선택 이수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목 선택권 확대와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외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관한 사례는 과목 편성, 과목 이수,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학점 회복에 관한 구성 요소를 준거로 비교 분석하였다. 구성 요소별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 과목 편성

현행 국가 교육과정은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해야 한다.

미국(플로리다주)은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무학년제로 편성하고 있다. 영어는 학년 위계에 따라 편성되어 4년간 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 과목을 포함한 핵심 학과 군에는 731개의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선택 과목으로 구성된 기타 학과 군에는 368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필수 과목은 Honors, 재수강 과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과목은 3단계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학년별 운영에서 무학년제 운영으로 전환하였다(김병찬, 2018: 91). 교과목별로 단원과 위계를 고려하여 1-14단계로 나누어 필수, 심화, 응용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독일은 과목을 학기로 편성하되, 핵심 교과목은 4학기 편성하고 다른 교과목은 4학기 또는 2학기로 편성하고 있다. 과목은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으며,

각 과목은 기초와 심화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자연과학의 모든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전일제 과정의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제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나 1993년부터 전일제 과정에도 단위제고등학교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하여 단위제 고등학교에서는 무학년제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과목의 위계나 수준은 수학, 예술, 외국어, 정보 교과는 I, II, III 또는 A, B, C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과, 가정, 이수 교과는 기초와 일반으로 나누고 있다. IBDP는 학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 군별로 표준 수준(SL) 과목과 고급 수준(HL) 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과목 편성에 대한 국제 비교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2-1. 과목 편성' 관련 국제 비교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 (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2-1-1. 학년제/무학년제 편성	학년제	영어(학년제) 제외한 과목 무학년제①	무학년제②③	※ 학기단위 편성①	학년제/무학년제(단위제고등학교)⑩	※ 시간단위 편성②
2-1. 과목 편성	참고 편성 과목 수	필수 과목 7 선택 과목 93	(학교 사례) 필수 과목 60-62 심화 과목 65 응용 과목 약 70(학교개설) ⑬	필수 영역 21 선택 영역 19 ⑯ ※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⑭	필수 과목 15-16 선택 과목 40-41 ※ 학교 설정 교과 20 단위 초과 안 됨⑰	6개 교과군 32 과목 TOK, EE⑱
	2-1-2. 위계 또는 수준별 과목 편성	수학, 영어, 과학 탐구 과목, 제2 외국어와 한문 I, II 구분	모든 과목 3단계 수준(기초/정규/우등), 영어는 학년 위계 수학은 내용 수준 위계 ①	필수, 심화, 응용 과목으로 구성⑲ 과목별 14단계 구분⑤	각 과목은 기초와 심화 수준 구분⑨⑩	수학, 이과, 예술 등 기초와 일반 또는 I, II, III 구분⑤

출처: ②김병찬(2017), ⑤김희규(2010), ⑨소경희 외(2000), ⑩이명실(2010), ⑪임광국(2017), ⑬정광희 외(2017), ⑭정수정(2018), ⑯이근호(2013), ⑰文部科學省(2017), ⑱Fi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16), ⑳IBO

(나) 과목 이수

현행 국가 교육과정은 학기 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되, 단,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교양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 과목은 이수 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고,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역사회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목 이수율과 관련된 외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2-2. 과목 이수' 관련 국제 비교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 (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2-2. 과목 이수	2-2-1.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8 과목 이내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 제외)	6-7과목(1년)①	5-6과목②③	10 과목①④	12-15과목 ⑥⑩	6 과목②
	참고 과목 이수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총 이수 단위의 50% 초과 안 됨	필수 학과군 16 학점, 선택 학과군 8학점 이수, 필수 교과군의 과목도 선택과목으로 이수 가능① 반드시 1 학점은 온라인 강좌 이수, 선수 과목 이수 및 이중학점 신청 시 제한 조건 있음 ①②⑩	필수 47-51 과목, 심화 10 과목 이수,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과목이수 가능③⑨ ※5-6학기제로 과목별 6-7주 집중 이수②	아비투어 시험 과목 2년 연속 수강, 4학기 동안 38개 강좌 이수하고 내신에 포함될 35개 강좌 선택④ 필수 이수 과목은 과목군으로 주어지며 그 중 선택하여 필수 또는 선택 과목으로 이수①	공동 필수 11과목, 선택 필수 4-5 과목 이수 ※ 교육과정 유형 중 택1 ⑦	1-5 교과군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예술 대신 다른 5개 교과군에서 대체 이수 가능, HL 과목은 3 과목 (4 과목 이하), 나머지 SL 과목 이수, TOK, EE 이수②
	2-2-2.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조건	위 계성을 갖는 과목은 계열적 학습 가능하도록 편성·운영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시 교사 추천서, 주 단위 시험 성적, 교과목 시험 성적, 선행 과목 이수 등 필요, 수학은 9학년 성적과 주 표준 시험 성적에 따라 10학년 수학 과목 선택 (내용 위계)①	선수 과목 규정 있음②		기초 또는 I 과목을 필수 이수 ⑦	HL 또는 SL 선택 이수②

2-2-3. 이수 면제(이수 인정 평가)	없음	속진과정프로그램(CAP ¹²)으로 이수 면제 ¹¹	※ 수업 참여 없이 개인적 학습 인정 ¹³ ¹⁹	없음	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시험의 합격 과목 단위 인정 ¹⁰	없음
2-2-4 학점 인정 기준 및 범위						
2-2-4-1. 학점 인정 대상 기관	다른 학교, 지역 사회 학습장	중학교과정(선수 과목), 대학 (이 중등록제), 온라인 강좌 ²⁰	일정 여건을 갖춘 다른 기관, 원격교육 ¹⁹	※ 독일은 학교 교육 의무 있어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과정 이수 ¹⁴	대학, 고등 전문 학교 또는 전수 학교, 다른 학교, 통신제 과정 ¹⁰	온라인 이수 ²¹
2-2-4-2. 학점 인정 대상 과목	※ 한국교육 개발원 온라인 수업 2015 개정 교육과정 15 과목 2009 개정 교육과정 45 과목 ※ 폴리텍대학 등 직업 과정 위탁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과목, AP과목, 기타 다양한 선택 과목 ¹¹	선수학습 또는 다른 곳에서 이수한 과목은 필수, 심화, 응용과목으로 인정 ¹⁹	※ 학교가 개설한 과목 내에서 선택 ⁹	제한 없음	(온라인 개설 과목) 4개 교과군 18 과목 ²¹
2-2-4-3. 학점 인정 범위	※ 폴리텍대학 등 직업 과정 1년 위탁	11학점 ¹¹ ※ 총 이수 학점의 약 46%	없음	없음	해외 유학 30단위 까지 학교간 연계 36단위까지 ¹⁰ ※ 총 이수 단위의 약 41~49%	이수 과목 수 제한 없으나 보통 1-2과목 선택, 전과정 온라인 이수 불가능 ²¹ ※ 총 이수 과목의 30% 내외

출처: ②김병찬(2017), ⑥박부권(2008), ⑨소경희 외(2000), ⑩이명실(2010), ⑪임광국(2017), ⑬정광희 외(2017), ⑭정수정(2018), ⑰文部科學省(2017), ⑲Fi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16), ⑳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2017a), ㉑IBO

미국(플로리다주)과 핀란드, IBDP는 학기 당 이수 과목 수가 5-7과목으로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수 과목 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의 과목이다. 미국(플로리다주)은 대체로 과목 당 1학점을 배당하고 있어 1년 동안 해당 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기당 6-7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핀란드의 경우는 다학기제로 집중이수 하고 있으며,

12) 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력시험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이수가 면제되는 속진과정(Credit Acceleration Program, CAP)

독일의 교육과정과 IBDP는 한 과목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학기 당 10과목 정도 이수하나 5개의 핵심 과목은 4학기 동안 이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과목 수와 달리 실제적인 이수 과목 수는 적은 편이다. IBDP는 6개의 교과 군에서 1과목 이상 선택하되, 표준 수준(SL)의 과목과 고급 수준(HL)의 과목에 각각 3과목을 선택하거나 표준 수준(SL)에서 2과목, 고급 수준(HL)에서 4과목을 선택하여 2년 동안 이수하게 된다. 다만, 예술 대신 다른 5개 교과 군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대체 이수할 수도 있다. 일본의 교육과정은 11개의 교과 군에 56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공통 필수 10과목, 선택 필수로 5과목을 이수하며 학기 당 이수 과목 수는 대체로 12-15과목이나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국가 교육과정은 위계성을 갖는 과목은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수준의 과목 이수에 대한 조건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플로리다주)이나 핀란드는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사 추천서나 선수과목의 성취도 등 이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수 인정 평가에 의해 과목 이수를 면제해 주는 기준과 관련하여 미국(플로리다주)은 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력시험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이수가 면제되는 속진과정(CAP)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시험의 합격 과목을 단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학교 교육의 의무가 있어 반드시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밖 학습에 대한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학점 인정 대상 기관의 조건, 학점 이전 대상 과목의 허용 범위, 학점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도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 학습장에서의 학습을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교육개발원에 개설된 온라인 수업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15과목, 2009 개정 교육과정은 45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반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1년 동안 폴리텍대학 등 학교 밖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교육부(2018: 17)는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에 한해 공동 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온라인 수업(강의)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미국(플로리다주)은 중학교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대학의 이중등록제, 온라인 강좌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플로리다주)은 졸업 요건인 24학점 중 1학점은 반드시

시 온라인 강좌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강좌에는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과목은 물론 AP 과목도 개설되어 있으며, 최대 11학점까지 대학 이중등록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이중학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1학점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 평균이 3.0이상, 주 또는 전미 수준의 성취도 검사에서 대학 수준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핀란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른 기관이나 원격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선수학습 또는 다른 곳에서 이수한 과목은 필수, 심화, 응용과목으로 인정된다. 일본은 대학, 고등전문학교 또는 전수학교, 다른 학교, 통신제 과정 등에서 이수한 과목을 단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학교 교육의 의무가 있어서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교가 개설한 과목 내에서 선택해야 한다. IBO는 2010년부터 Pamoja Education과 협약을 체결하여 IBDP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개설 과목은 4개 교과군 18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수 과목 수는 제한이 없으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 평가는 5단계의 성취도 평가와 9등급제의 기준 참조 평가(이하 상대평가)가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의 경우 현행 내신 평가 제도로는 대입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2018년 8월 17일, 2019년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되 석차등급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상대 평가는 일정 비율의 상위 등급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의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9등급에 이르는 학력 미달자를 양산하게 되어 고교학점제를 실행하는데 난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 국가들의 교과 평가 방식은 모두 준거 참조 평가(이하 절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플로리다주)은 A-4, B-3, C-2, D-1, F-0의 5단계와 점수를 병행하고 있으며 F는 낙제 등급이다. 핀란드의 과목 성취도는 10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로 표기하며 4점 이하는 과락이다. 독일은 자격획득단계에서는 6단계의 평어를 세분화하여 15-1점까지 점수로 표기하고 있으며 5점 이하는 낙제다. 일본은 5-1까지 5단계로 평정하며 단위제고등학교의 경우 평정 1을 받으면 단위 미취득으로 유급하게 된다. IBDP는 교과별 균형 있는 이수과 내부평가(Internal Assessment)·외부평가(External Assessment)를 통해 평가 관리를 엄

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과목 이수를 위해서는 7점 만점에 4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3점 이하는 과락이다.

과목 이수 요건으로 출석 의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영하고 있으나 독일과 일본의 단위제고등학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지침에 맞게 출석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업에 불참한 경우 0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 단위제고등학교의 경우 출석 시수의 1/5미만은 미 이수 처리를 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 요건은 출석 일수의 2/3 이상 출석하고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플로리다주)은 기준 학점인 24학점을 이수하고 GPA 2.0(4점 만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핀란드는 75과목 이수와 졸업시험, 독일은 35과목과 아비투어 100점 이상, 일본은 74단위 이상 이수하고 특별활동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나타내면 졸업이 인정된다. IBDP는 6개의 교과 군에서 선택한 과목과 필수 이수 과정을 이수하고 45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상위 수준의 이수 과목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미국(플로리다주)의 대학선이수제, 이중등록제, 고급반 과목 수강하고 C학점 이상 취득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심화 교과로 '집중탐구리포트'를 제출하거나 아비투어 시험 과목 중 능력과목 2개는 내신에서 2배로 반영하고 있다.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과 관련된 국제 비교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관련 국제 비교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 (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2-3-1. 교과 평가 방식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행	절대평가 ^⑩	절대평가 ^⑭	절대평가 ^{③⑨}	절대평가 ^⑫	
	2-3-2.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	5 단계와 9단계	5단계와 점수 (A-4,B-3,C-2, D-1,F-0) ^⑫	점수 (10-4) ^⑩	평어(6단계)와 점수(15-1) ^⑭	1,2학기말 10 단계, 학년말 5 단계(5-1) ^{③⑨}	점수(7-1) ^⑫
	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	없음	F 과락 ^⑫ 출석 반영 ^⑫ ※ 앨버타주 교과별 출석률	4점 이하 과락 ^⑩	5점 이하 과락 ^⑭ 지침에 맞게 출석의무, 수업 불	평정 1 미취득(단위제고) 출석 시수의 1/5 미만 미이수 ^③	3점 이하 과락 이수 시간 준수 ^⑫

		50% 반영⑧		참시 0점부여⑯	한과목이라도 미취득시 유급(보강, 추가 시험 등 탄력적 운용)⑩	
2-3-4. 졸업 요건	출석 일수의 2/3	24학점, GPA 2.0(4점 만점) 이상⑳	75과목이수, 졸업시험⑲	35과목, 아비투어 100점 이상 ¹³⁾ ※ 기본 과목 30개 능력 과목 8개, 총 38개 과목에서 점수 획득, 이 중 5점미만(D학점 해당) 기본 과목 8개 이하, 능력 과목 ¹⁴⁾ 3개 이하 ⑬⑭	3년 이상 재적, 74단위 이상 이수, 특별활동 성과 만족③⑮⑰	HL3 과목 (4 이하), SL 3 과목, TOK, EE, CAS 이수, 45점 만점에 24점 이상 취득⑳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없음	대학선이수제, 이중등록제, 고급반 과목 수강하고 C 학점 이상 받으면 GPA 가산점 ¹⁵⁾ ⑪		심화 교과로 '집중탐구리포트' 제출하면 내신 총점 계산 시 30점까지 가산점① 아비투어 시험 과목 중 능력 과목 2개는 내신에 2배 반영④		

출처: ③김영은 외(2018), ⑧백경선 외(2013), ⑨소경희 외(2000), ⑩이명실(2010), ⑪임광국(2017), ⑫정광희외(2006), ⑬정수정(2018), ⑭최정희·이길상(2015), ⑮이근호(2013), ⑯文部科學省(2017), ⑰Fi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16), ⑱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2017a), ⑳IBO

(라) 학점 회복

학점 회복은 이미 학점을 취득한 학생들에게는 해당 사항은 없다. 다만 학점 미취득자(낙제 혹은 과락)를 포함하여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한 학점 취득이나 졸업 요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요건으로 학점 회복과 관련된 국제 비교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13) 아비투어시험 과목은 4-5과목(4학기 이수), 이 중 2과목은 능력과목, 내신 200점 이상(600점 만점) 되어야 아비투어 응시 가능

※ 전체 아비투어 성적(900점): 내신(600점)+아비투어시험(300점)

14) 능력 과목이 2개 이므로 2년(4학기) 동안 8강좌 수강

15) 예) 일반과목 A 4점/고급수준 A 5점(+1)/AP A 6점(+2)

<표 IV-16> '2-4. 학점 회복' 관련 국제 비교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 (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 (IBDP)
2-4-1. 학점 회복 허용 기준	없음	D, F 과목의 경우 C 이상 취득 시 이전 학점 포기 가능, 단, 중학교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C, D, F 과목의 C 이상 취득 시 가능 ¹⁶⁾ 20)	전 과목(낙제 포함) ※ 성적 향상위한 재시험 가능, 신청 과목 수에 따라 낙제 허용 범위 제시(학점과 점수(4점) 인정) ¹⁹⁾	※ 과락(5점 이하) ¹⁴⁾	※ 유급 원칙이나 단 위 제 병용 고려하여 탄력적 운용 ¹⁰⁾	※과락(3점 이하) ²¹⁾
2-4-2. 학점 회복에 의한 성취도 취득 기준	없음		상한선 없음 ¹⁹⁾			없음
2-4-3.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C 이상 취득 시 이전 기록에 'X' 표시 ¹⁷⁾ , 이후 'I' 표시, 누적 GPA 계산 시 'I' 표시 등급 포함, C 이상 취득하지 못하면 이전 성적 유지, 관련 기록 삭제 불가능 ²⁰⁾	필수, 특별 과목에서 낙제한 경우 데이터 삭제 안 됨(성적 없을 수도 있음) ¹⁹⁾			
2-4-4. 학점 회복 방법	없음	필수 과목은 동일, 유사 과목, 선택 과목은 다른 과목 이수 ※ 4년 동안 학점은 충족되었으나 누적 GPA 미달 시 특별 수업,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전입 후 과목 평가 통과 못하면 포트폴리오 평가, 교사추천서 등 포함 ²⁰⁾	재시험 ¹⁹⁾	재시험 ¹⁴⁾	보강 또는 추가시험 ¹⁰⁾	재 시험 ²¹⁾

출처: 10)이명실(2010), 14)정수정(2018), 19)Fi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16), 20)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2017a), 21)IBO

미국(플로리다주)은 D, F 등급의 과목에 한해 필수 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나 유사 과목으로, 선택 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이수하여 C 이상의 등급을 취득하면 이전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중학교 과정에서 취득한 과목은 C, D, F 등급을 받은 과목도 재수강하여 C 이상의 등급을 취득하면 학점 포기가 가능하다. 핀란드는 미국(플로리다주)과 달리

16) 학점 회복은 이미 135시간을 이수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며,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과 누적 GPA 또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하도록 돕는 것임.

17) "X" - Exclude, "I" - Include.

취득한 과목의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점 미 취득자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과목 등급의 평균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체 등급은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Fi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 독일은 자격획득기간 2년은 내신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분화하여 점수로 평가하고 있으며, 아비투어 시험에 탈락한 학생들에게는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학점 회복 방법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별 프로그램이나 보강을 허용하고 있다.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과목의 성취도 기록과 관련하여 미국(플로리다주)은 재수강하여 C이상 취득 시 이전 기록에는 'X'(Exclude) 표시를 하고 이후 취득한 성적에는 'I'(Include)를 표시하며 누적 GPA 계산 시에는 'I' 표시된 성적을 포함한다. C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전 성적이 유지되며 관련 기록은 삭제할 수 없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필수 과목과 특별과목에서 낙제한 경우 데이터 삭제가 불가능하며, 이수 과목 수에 따라 일부 낙제 과목 수가 허용되기 때문에 성적이 없는 과목도 있을 수 있다.

(3) 시사점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을 준거로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및 IBDP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단위 당 수업 시수의 양이 매우 적게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점 당 기준 수업량이 적게 규정될 경우, 과목이 분절되고 이수 과목 수가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점의 기준과 수업량을 결정한 후 과목 당 기준 학점을 배당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시수는 핀란드와 독일을 제외하고는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과 총 이수 시수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나 어느 정도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현행 유지 또는 증감할 수도 있다. 고교학점제에서의 교과 총 이수 학점의 수를 결정할 때에는 과목 당 이수 학점의 규모나 과목 미 이수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점의 취득과 평점을 높이기 위한 학점 회복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를 현행과 같이 단위와 시수를 병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를 학점으로 규정할 경우, 이수 결과에 대

한 성취도가 부여되는 학점 이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유무를 결정하는 이수 방법과 활동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과목 당 학점 배당에 있어서 학점의 기준을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할 것인가에 따라 학점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목 당 학점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학기 당 이수 과목 수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학점을 달리 규정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 있어서는 이를 달리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목 당 기본 시수의 증감 규정을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11개 교과 56과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 수학 I, 영어회화 I, 종합적 탐구시간의 3과목에 한정하여 단위 수를 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홍후조(2018: 712)는 과목별로 이수량이 통일되지 않거나 가감할 수 있게 하면 대체이수, 타교에서의 학점인정 등에서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과목 당 학점의 분량과 가감의 규정을 둘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필수 이수율과 선택 이수율 학점을 비교한 결과, 특히 독일의 경우 필수 이수율 학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IBDP는 6개의 교과 군에서 모두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의 경우 교과 군에서 선택하여 필수와 선택 과목으로 이수하고 있어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 과목을 지정하는 방식과는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필수 이수율 학점과 선택 이수율 학점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을 검토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과목 편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목별 수준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학년제에 의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무학년제 편성·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기준 개발을 위해서는 무학년제 편성과 수준별 과목 편성에 대한 논의와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섯째, 학기 당 이수 과목과 관련된 국제 비교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과목 당 학습량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질 관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비교 대상 국가들의 경우, 필수 이수 과목은 대부분 1년 또는 2년 동안 연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

도록 학점을 배당하거나 편성하고 있다. 또한 학기 당 이수 과목 수와 관련하여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 예외 규정을 둔 8과목 이내의 이수 규정이 아니라 학기 중 이수하는 모든 과목을 포함하여 이수 과목 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곱째, 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수준별 과목 편성과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조건을 제시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수 인정 평가에 의한 과목 이수 면제는 일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독일의 사례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가 과목 선택권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 개설의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학습을 해당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경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의 선정, 인정 대상 과목 및 학점 인정 범위 등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교과 평가 및 과목 이수 기준, 졸업 요건 등에 관한 국제 비교 결과, 교과 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평가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출석 일수만을 졸업과 진급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질 관리가 가능한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학점 회복은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기준 개발을 위해서는 과락의 허용 여부 및 학점 취득 방법, 성적 향상을 위한 학점 회복 허용 기준과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 요소에 따른 내용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입 전형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내용 탐구

본 연구에서 교육과정 구성 내용은 구성 형식의 구성 요소에 따라 진술되는 내용을 의미한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내용의 개발은 <표 III-7>의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을 토대로 교육과정 국제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가. 학점 배당 기준

현행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제의 기준을 단위로 설정하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단위제가 도입된 이후 제7차 교육과정 기까지 1단위의 기준은 학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수업 주수 16주-18주의 변화는 있었으나 학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위제의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1단위의 규정은 학기와 수업 주수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규정하여 학기에 대한 규정도 삭제되었다. 학기의 기준이 삭제되어도 학교는 학기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학기 기준이 아닌 횟수로 규정함으로써 운영 기간의 융통성이 부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점의 기준을 학기 또는 학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기준이 필요하다. 단위 규정을 학점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학기 또는 학년 규정 없이 1학점의 수업량으로만 규정할 수도 있으나 학기 또는 학년 기준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업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1학점의 수업량은 학기 또는 학년 기준을 토대로 수업 주수를 16-17주 또는 32-34주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과목 당 기본 학점은 예체능 과목은 예외로 하여 3-6점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은 수업 연한을 3년 기준으로 할 경우 현행 기준에서 가감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설문으로, 가감한다면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결정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 자료를 제시하였다.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을 현행은 단위와 시수를 병행하고 있는데 학점 또는 시수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비교과 이수 규정을 학점으로 규정할 경우 학점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병행 규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진숙 외(2018: 9)는 학점제 도입 시 총 이수 단위 수(204단위)와 교과 이수 단위(180단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각각 56.5%,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현행 유지 38.4%, 축소 35.7%로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과목 당 기본 학점 배당은 과목 당 기본 학점에 대해 증감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체능 과목은 예외로 하여 구성하였다. 향후

조(2018: 712)는 과목별로 이수량이 통일되지 않거나 가감할 수 있게 하면 대체이수, 타교에서의 학점인정 등에서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진숙 외(2018: 10)는 현행 기준 단위인 선택 과목 5단위의 증감 허용 규정에 대한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단순화 또는 폐지가 50.1%로 절반이었으며, 현행의 증감 규정 유지는 48.7%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선택 과목의 학점은 짝수화하고 기준 단위를 4단위로 하고 증감 기준은 ± 1 로 하되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의 배당 비율에 관한 구성 내용은 현행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각 50% 정도)과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현행 기준을 가감한 예시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학점 배당 기준에 관한 교육과정 구성 내용은 <표 IV-17>과 같다.

<표 IV-17> 학점 배당 기준에 관한 구성 내용

구성 형식		구성 내용
1-1. 학점의 기준	1-1-1. 학점의 기준	학기 또는 학년 기준에 대한 규정
	1-1-2. 1학점 기준 수업량	학기 또는 학년 기준 시 현행 기준(17회) 대비 수업량 결정에 대한 규정
	1-1-3. 과목 당 기본 학점	과목 당 기본 학점을 3-6점 예시 안 제시하고 기타 의견 제시 가능하도록 함
1-2. 최소 이수 학점	1-2-1. 교과 최소 이수 학점	수업 연한 3년 기준, 교과 이수 학점의 양을 현행 기준 20% 범위 내외에서 증감 예시 안 제시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평가 유무)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를 고려한 이수 규정으로 학점 또는 시간 제시, 학점으로 규정 시 학점 이수 요건 충족 필요
	1-2-3.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량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량을 현행 및 현행 시수 대비 증감 예시 안 제시
1-3. 과목 당 학점 배당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과목 당 기본 학점에 대한 증감 규정의 적절성
1-4. 필수 이수 학점 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의 배당 비율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비율을 현행 기준(필수 52.2%, 선택 47.8%) 대비 증감 예시 안 제시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은 과목 편성, 과목 이수,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학점 회복의 구성 요소에 따른 하위 항목의 내용 및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구성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과목 편성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학년제 편성과 무학년제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과목은 난이도에 따라 위계 또는 수준(기초/보통/심화)을 설정하여 편성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과목 이수에 있어서는 학기 당 이수 과목 수와 수준별 과목 편성 시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는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를 제외하여 8과목 이내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체능을 모두 포함하여 학기 당 이수 과목 수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목 이수 인정 평가를 통해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구성 내용을 제시하였다.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대상 기관의 의견 제시, 과목의 제한, 학점 인정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응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교과 평가 방식은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 방식을 전 과목에 적용할 것인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구분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과목의 성취도는 현행 성취평가제에 의한 5단계 평가 방식과 9등급제 상대 평가제에 의한 예시 안을 비롯하여 3단계(A, B, C), 13단계((A+, A, A-, B+, B, B-, C+, C, C-, D+, D, D-, F)의 예시 안을 제시하였다.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9단계 가정)은 과락을 두지 않고 F 학점도 과목 이수로 인정하는 방안과 D 학점 이상을 이수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이외에 출석 시수를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졸업 요건으로는 기준 학점 충족, 기준 학점 충족과 졸업 평점, 기준 학점 충족과 졸업 시험, 기준 학점 충족과 졸업 평점 및 졸업 시험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점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위 수준의 이수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를 제시하였다.

학점 회복을 허용하는 기준(9단계 가정)으로 D+ 등급에서 B 등급까지를 허용하는 예시 안과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상한선은 C+ 등급에서 A+ 등급까지 예시 안을 제시하였다.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성취도의 상한선에는 낙제한 과목

의 학점 취득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학점 회복에 의한 성취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이전 기록을 병기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제시하였다. 학점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보충학습, 재시험, 재수강 등의 방안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구성 요소에 따른 구성 내용은 <표 IV-18>과 같다.

<표 IV-18>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관한 구성 내용

구성 형식		구성 내용
2-1. 과목 편성	2-1-1. 학년제/무학년제 편성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학년제 편성과 무학년제 편성 방안
	2-1-2. 위계 또는 수준별 과목 편성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위계 또는 수준(기초/보통/심화)을 설정하여 편성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2-2. 과목 이수	2-2-1.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학기 당 적절한 이수 과목 수의 결정
	2-2-2.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조건	수준별 과목 편성 시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2-2-3. 이수 면제(이수 인정 평가)	과목 이수 인정 평가를 통해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2-2-4. 학점 인정기준 및 범위 2-2-4-1. 학점 인정 대상 기관 2-2-4-2. 학점 인정 대상 과목 2-2-4-3. 학점 인정 범위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대상 기관의 요건 제시, 과목의 제한, 학점 인정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2-3-1. 교과 평가 방식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 방식을 전 과목, 또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
	2-3-2.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	3단계(A, B, C), 5단계(A, B, C, D, F), 9단계(A+, A, B+, B, C+, C, D+, D, F), 13단계(A+, A, A-, B+, B, B-, C+, C, C-, D+, D, D-, F) 예시 안 제시

	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	과락을 두지 않고 F 학점도 인정, D 학점 이상, F학점도 인정하되 출석 시수 반영, D 학점 이상 이면서 출석 시수 반영, 등급에 관계없이 출석만으로 과목 이수 후 학점을 취득하는 방안 제시
	2-3-4. 졸업 요건	기준 학점 충족, 기준 학점 충족과 졸업 평점, 기준 학점 충족과 졸업 시험 및 기준 학점 충족을 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안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상위 수준의 이수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
2-4. 학점 회복	2-4-1. 학점 회복 허용 기준	9단계 가정하고, D+ 등급에서 B 등급까지를 허용하는 예시 안과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방안
	2-4-2. 학점 회복에 의한 성취도 취득 기준	낙제 과목의 학점 취득을 포함하여 C+ 등급에서 A+까지 상한선 예시 안 제시
	2-4-3.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이전 성취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
	2-4-4. 학점 회복 방법	보충학습, 재시험, 재수강 등의 방안 제시

V.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기준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현행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밝혀내고 교육과정 구성 형식과 구성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성 형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위한 구성 형식(안)을 개발하고 이를 준거로 교육과정 국제 비교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구성 내용 문항을 개발하였다.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의 타당성 검증과 구성 내용 개발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과 구성 내용을 개발하고 최종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였다.

1. 델파이 조사

델파이 방법은 예측하려는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다(이중성, 2001: 7). 델파이 절차는 여론 조사와 협의회의 장점을 결합시킨 방법으로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패널의 익명성과 통계적 집단 반응의 특징을 갖는다(이중성, 2001: 30). 델파이 방법은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대면 집단 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도적 인물에 의해 다수의 의견이 경도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고, 특정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보완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점차로 다수인의 의견이 수렴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유현실, 2009: 2194). 델파이 절차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법과 협의회 방법의 장점을 결합시킨 방법이다. 델파이 조사 참여자는 델파이 절차가 반복되는 동안 피드백된 전회의 통계적 집단 반응과 소수의견 보고서를 참고하여 다음 회에 자기 판단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이 일반 조사절차와 다르다(이중성, 2001: 8). 또한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심도 있고 질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

다(이춘식, 2014: 567).

델파이 설문지 작성 과정은 1차 개방형 설문과 2차 이후 구조화된 설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개방형 설문은 패널들이 변화 항목을 예측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2차 이후 설문은 1차 개방형 설문의 반응을 편집하여 구조화된 폐쇄형 문항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1차, 2차 과정을 거쳐 델파이 설문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1차 질문을 구조화된 설문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이종성, 2001: 35).

본 연구에서의 1차 개방형 설문은 현행 국가 교육과정 체제에서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데 따른 난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야하기 때문에 연구학교 운영 사례와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 분석에 의해 추출된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난점과 주요 요소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부터 구조화된 설문을 사용하였다. 연구학교의 운영 사례와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에 의해 추출된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난점과 주요 요소를 토대로 개발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에 근거하여 구조화된 폐쇄형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폐쇄형 문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한 수정, 재진술 및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제시하지 않은 항목도 추가할 수 있도록 조사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문항별 응답자의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가. 조사 대상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사 결정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의 적절성을 가정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쟁점이 되는 분야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을 이용한다는데 델파이 방법의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이종성, 2001: 34). 따라서 델파이 패널(Delphi panel) 선정이 델파이 조사 시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사에서 시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델파이 조사 패널은 교육과정 전문가이면서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에 직·간접적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델파이 조사 패널은 석·박사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교육과정 개발이나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강사) 및 교원,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이나 정책연구기관

연구원, 고교학점제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장학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교장(감)을 대상으로 26명을 선정하였다. 특히 델파이 조사 패널의 직위별 구성은 교수(강사) 및 연구원과 장학사 및 교원의 비율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교수 및 연구직과 고등학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비율을 고려하였다. 선정된 델파이 조사 패널 구성 및 설문 회수율은 <표 V-1>과 같다.

<표 V-1> 델파이 조사 패널 구성 및 설문 회수율

구분	패널		1차 응답 구성 비율(%)	2차 응답 구성 비율(%)
	인원	비율		
직위별	교수	5	19.2	19.2
	연구원	8	30.8	30.8
	교장(감), 교사	8	30.8	30.8
	장학사	5	19.2	19.2
	소계	26	100	100
전공별	교육과정 전공자	19	73.1	73.1
	교과교육 전공자	7	26.9	26.9
	소계	26	100	100
학위별	박사	14	53.9	53.9
	박사과정 수료	9	34.6	34.6
	석사	3	11.5	11.5
	소계	26	100	100

나.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될 설문지는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첫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반응 척도는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했으며, 둘째는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에 따른 내용 개발 또는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응

답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과정 내용 개발에 관한 문항은 2개 영역의 8개 구성 요소에 따른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관한 내용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규정이기 때문에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구성 형식(안)에 따라 비교 분석하여 참고 자료로 제시하였다.

텔파이 2차 조사지는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일부 문항은 질문을 추가하였다. 2차 조사지의 구성은 1차 조사지와 동일하나 텔파이 패널 별로 작성하였으며, 1차 조사의 응답률과 본인 응답 사항을 기재하고 텔파이 패널 전체의 의견을 수합하여 제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다르게 응답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 제시한 의견 외에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텔파이 1차, 2차 조사지는 <부록 1>, <부록 2>와 같다.

다. 조사 과정

텔파이 조사는 전문가의 직위별 비율을 고려하여 최종 텔파이 패널을 구성한 후 2018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1차 조사 응답률과 수합된 의견, 개인별 1차 응답 결과를 포함한 2차 조사지를 텔파이 패널 별로 작성하였다. 2차 조사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텔파이 패널 개인 이메일을 통해 실시하였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 개발

교육과정 구성 형식을 개발하기 위해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텔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및 텔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및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산출하였다. CVR은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양화한 것으로(황준성 외, 2017: 36) 유의도 .05수준에서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 이상의 CVR 값을 가진 항목들만이 내용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Lawshe, 1975: 567). 본 연구에서의 패널 수는 26명으로 CVR 최소값이 .37 이상이면 내용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부록 3〉 참조). CVR은 Lawshe(1975: 567)가 제시한 산출 식을 사용하였다.

$$CVR = \frac{n_e - \frac{N}{2}}{\frac{N}{2}}$$

여기서 n_e 는 ‘타당하다’고 응답한 패널들의 수로, 본 연구에서는 5단계 Likert 척도에서 ‘대체로 타당하다(4점)’와 ‘매우 타당하다(5점)’에 응답한 응답자 빈도수를 의미하며, N 은 전체 델파이 패널 수를 의미한다.

나. 델파이 조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성 형식에 대한 내용 타당도 비율(CVR)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패널 26명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전원 참여하여 응답하였다. 그러나 구성 형식의 타당도로 검증에서 일부 항목은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서 응답 인원 에 따라 항목별 내용 타당도 비율(CVR) 최소값 적용을 달리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26명이 전원 응답하여 CVR 최소값 .37이상이면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평가 유무)’, ‘2-2-3. 이수 면제(이수 인정 평가)’, ‘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 ‘2-4-3.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은 24명이 응답(〈표 V-2〉의 음영 부분 참조)하여 내용 타당도 비율(CVR) 최소값은 .42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22개 항

목은 25명이 응답하여 CVR 최소값 .37이상이면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부록 3〉 참조).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에 대한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 평균, 표준 편차 및 내용 타당도 비율(CVR)은 〈표 V-2〉와 같다.

〈표 V-2〉 구성 형식(안)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내용 타당도 비율(CVR)

구성 형식			1차			2차		
			M	SD	CVR	M	SD	CVR
1. 학점 배당 기준	1-1. 학점의 기준	1-1-1. 학점의 기준	4.31	.88	.85	4.48	.59	.92
		1-1-2. 1학점 기준 수업량	4.31	1.01	.77	4.44	.96	.76
		1-1-3. 과목 당 기본 학점	4.42	.70	.77	4.52	.65	.84
	1-2. 최소 이수 학점	1-2-1.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	4.58	.76	.85	4.60	.76	.84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의 이수 규정(평가 유무)	4.12	1.11	.62	4.32	.95	.76
		1-2-3.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의 활동량	3.81	1.10	.46	3.83	1.05	.50
	1-3. 과목 당 학점 배당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3.54	1.24	.15*	3.64	1.05	.28*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의 배당 비율	4.12	.95	.62	4.24	.66	.76	
2. 교육 과정 편성 · 운영 기준	2-1. 과목 편성	2-1-1. 학년제/무학년제 편성	4.31	.79	.62	4.36	.76	.68
		2-1-2. 위계 또는 수준별 과목 편성	4.19	.90	.54	4.32	.80	.60
	2-2. 과목 이수	2-2-1.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4.31	.93	.69	4.40	.96	.68
		2-2-2.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조건	4.46	.58	.92	4.48	.59	.92

	2-2-3. 이수 면제(이수 인정 평가)	4.04	.96	.46	4.21	.83	.67
2-2-4. 학점 인정 기준 및 범위	2-2-4-1. 학점 인정 대상 기관	4.23	.82	.54	4.32	.75	.68
	2-2-4-2. 학점 인정 대상 과목	4.19	.75	.62	4.24	.66	.76
	2-2-4-3. 학점 인정 범위	4.23	.71	.69	4.24	.66	.76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2-3-1. 교과 평가 방식	3.81	1.06	.23*	3.80	1.08	.20*
	2-3-2.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	4.15	.88	.69	4.08	.86	.68
	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	4.42	.76	.85	4.58	.72	.92
	2-3-4. 졸업 요건	4.58	.64	.85	4.64	.64	.84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3.50	1.07	.08*	3.52	1.09	.12*
2-4. 학점 회복	2-4-1. 학점 회복 허용 기준	4.27	.83	.69	4.28	.84	.68
	2-4-2. 학점 회복에 의한 성취도 취득 기준	4.19	.80	.69	4.16	.80	.68
	2-4-3.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3.96	1.00	.46	3.96	1.00	.50
	2-4-4. 학점 회복 방법	4.00	1.02	.54	4.04	.84	.52

주1) *()은 CVR<.37 이다.

주2) () (1-2-2., 2-2-3., 2-3-3., 2-4-3의 2차 조사 결과)은 CVR 최소값 .42(응답자 24명)이다.

표준 편차는 1.0 이상의 항목이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8개였으나 2차 조사 결과는 5개 항목으로 감소하였다. 항목별 표준 편차의 차이는 25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제외한 21개

항목에서 델파이 1차 조사 결과보다 2차 조사 결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델파이 1, 2차 조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델파이 패널 들의 의견이 종합되어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성 요소별 내용 타당도 비율(CVR)은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08~.9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25개 항목 중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2-3-1. 교과 평가 방식' 및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3개 항목을 제외한 22개 항목은 CVR .37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25개 항목 중 22개 항목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구성 요소별 내용 타당도 비율(CVR)의 범위는 .12~.92로 나타나고 있으며, 델파이 1차 조사와 동일하게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2-3-1. 교과 평가 방식' 및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항목의 내용 타당도 비율(CVR)은 .37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최종적으로 타당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델파이 2차 조사에서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평가 유무)', '2-2-3. 이수 면제(이수 인정 평가)', '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 '2-4-3.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의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24명으로 감소하여 내용 타당도 비율(CVR) 최소값 .42를 적용한 결과, 4개 항목 모두 .42 이상 나타나고 있어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델파이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동일하게 내용 타당도 비율(CVR) .80이상 높게 나타나는 항목은 '1-1-1. 학점의 기준', '1-2-1.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 '2-2-2.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조건', '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 '2-3-4. 졸업 요건'으로 이 항목들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에 매우 필요한 구성 요소로 확인되었다.

학점 배당 기준에 있어서 CVR은 '1-1-1. 학점의 기준'(1차 CVR .85, 2차 CVR .92), '1-2-1.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1차 CVR .85, 2차 CVR .84), '1-1-3. 과목 당 기본 학점'(1차 CVR .77, 2차 CVR .84)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은 델파이 1차 조사에서 내용 타당도 비율(CVR) .15, 2차 조사 결과 .28로 나타나 고교학점제 구성 형식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의 CVR은 '2-2-2.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조건'(1, 2차 CVR .92), '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1차 CVR .85, 2차 CVR .92), '2-3-4. 졸업 요건'(1차 CVR .85, 2차 CVR .84)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2-3-1. 교과 평가 방식'과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

에 대한 가산점 부여' 항목은 <표 V-3>과 같이 1, 2차 조사 결과 모두 내용 타당도 비율 (CVR) 최소값 .37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고교학점제를 위한 구성 형식에 포함되는 기준 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V-3> 내용 타당도 비율 최소값(CVR .37) 이하 항목의 조사 결과

구분	1차 조사 결과(CVR)	2차 조사 결과(CVR)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15	.28
2-3-1. 교과 평가 방식	.23	.20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08	.12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으로 타당한 항목은 전체 25개 항목 중 내용 타당도(CVR) 최소값 이하로 나타난 3개 항목을 제외한 22개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2) 구성 형식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의견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에 대한 델파이 1, 2차 조사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1. 학점 배당 기준'과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표 V-4>, <표 V-5>와 같다.

<표 V-4> 학점 배당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의견

구분	전문가 의견
1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학점 증감 규정 두면 무너짐. 급간을 두고 제시할 수도 있음 • 현행 고교 단위제 이수 체제가 학점제로 그대로 유지되어 전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봄. 이유는 교과와 학습량, 수준, 범위 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유지되지 않는다면 교과교육에 많은 갈등이 발생해 교육과정 체계를 혼드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그러나 유지될 경우 고교에서 학습자 요구에 맞게 다양한 교과목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당 수업시수를 30시간 내외로 조정이 필요. 학점제에 따른 이동수업의 원활한 운

	<p>영을 위한 공강 시간 확보와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과목의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이수를 위하여 학기당 이수과목수와 주당 수업시수 축소가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학점 증감 규정은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생각함 • 교과 평가 방식은 광범위 하므로 교과(과목) 평가가 타당할 것임.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의 의미가 모호함.
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량은 1-2-2와 합치는 것이 바람직함. •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의 배당 비율보다 진로별이어야 함. • 학점을 현재처럼 소규모(50분 17회)로 할 것인지, 대규모(본래 단위제나 IBDP와 같이)로 할 것인지가 중요함. • 학점제로 질 관리할 영역(교과)을 지정하는 것과 그것을 전체의 어느 정도로 할 것 이냐의 문제를 따져야 할 것임. 가령 204단위 중 어떤 과목은 P/F, 우수/보통/미흡 정도로 가볍게 규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진로별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을 갖추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할 것임. 이들 교과목은 하위 과목의 성공적 이수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할 것임. 통칭으로서 학점제로 고교 성적 관리를 바꾼다고 하는 것과 엄정한 의미로 학점제로 질 관리하는 것은 부분 집합임. 204단위 중 50-100단위로, 물론 우수학생은 그 보다 많은 분량(204단 위 중 120단위 정도)을 학점제 질 관리 과목에서 이수할 수도 있을 것임. •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량”의 용어 수정이 필요함. • 과도기적으로 학교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증감 규정을 둘 수 있지만(지금보다는 단 순화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증감 규정을 없애서 교과 학습량에 증가성을 주는 방안 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학점 배당 기준과 관련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생각함. 다만 필수이수와 선택이수에 있어서 학점 배당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필수와 선택 이수 여부에 따라서 교 과별 입장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은 확대 운영하려는 것이 교육부 기본 방침인 것 같으며, 자율성을 주어서 학교마다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제안하려는 의도가 있음. 평가는 해야 하겠 지만 교과 외 다양한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학점제란 개설된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한 동일한 과목의 학습량이나 평가 척도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하여 교육 결과의 질이 보장되어야 함. • 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수반하므로 1학점 수업 기준량과 이수 학점 양의 축소가 필요함. •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평가 유무)에서 이수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이수 후 평가 방식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등은 교과에 비하여 정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 학점제에서는 교과의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보다는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의

	<p>취득 여부(추가 취득은 가능)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 규정 등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함.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교육과정 자율화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일정 부분 과목 당 학점 증감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선택 이수 학점에 대한 충분한 배당을 위해, 비율 제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범위로 제시해야 할 것임. • 비교과의 이수 기준(시수 등)을 두는 것은 타당하나 비교과 영역에 대하여 교과와 유사한 평가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 국가교육과정 문서 자체 또는 전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구성요소(항목)로 ‘기준’이란 용어를 쓸 필요가 없음. 또 용어는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으며, 1-2-2는 기준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필요함. •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은 1-1-4.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함
--	---

학점 배당에 관한 델파이 전문가 의견은 현행 단위제 이수 체제가 그대로 학점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학점제의 취지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점제로 전환해야 교과의 학습량, 수준, 범위 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유지되지 않는다면 교과교육에 많은 갈등이 발생해 교육과정 체제를 혼드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과목 당 증감 규정을 없애고, 질 관리할 대상 교과를 지정하여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반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서는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에 대해 학점제 관련 구성 형식의 타당성 검증 결과,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모두 내용 타당도 비율(CVR) .37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으로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과도기적으로 학교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증감 규정을 두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증감 규정을 없애서 교과 학습량에 증가성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학점제에서는 지역이나 학교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이수한 동일한 과목은 동일한 학습량과 동일한 평가 척도로 교육 결과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점의 기준량을 현재의 50분 기준 17회의 소규모로 할 것인지, IBDP와 같이 대규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이수 규정은 두되 운영상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필수와 선택 학점의 이수 비율에 있어서는 진로별 학점 배당과 질 관리할 영역(교과)을 지정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구성 형식 중 학점 배당 기준과 관련된 의견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구성 요소는 진로별 학점 배당, 학점제를 적용할 대상 영역(교과)의 설정이 있었으며, 학점 배당 기준에 관한 대부분의 의견은 구성 형식에 따른 내용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전문가 제시 의견 중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V-5>와 같다.

<표 V-5>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의견

구분	전문가 의견
1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4.의 학점 회복 방법은 <학점 회복 허용 기준>에 통합해서 <학점 회복 허용 기준과 방법>으로 수정(중복 느낌) • 2-3-1. 교과 평가 방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위 항목이 더 필요함. 상대 평가/절대 평가, 교내 평가/교외 평가, 지필 평가/수행 평가 등 • 교과 평가 방식은 광범위 하므로 교과(과목) 평가가 타당할 것임.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의 의미가 모호함. 2-3-3.은 1-2-1, 1-1-3.과 중복됨 • 학생들의 필요한 선택과목의 집중적 이수와 학습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축소가 필요하다고 봄
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2. 위계 또는 수준별 과목 편성에 앞서 진로별 과목의 분화가 필요함. 그 후에 수준별로 분화할 교과목들이 있을 것임. •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고등학교에서 보다 대학 등 사용자의 일이 될 것임. 졸업을 앞두고 우수자를 가려내거나 환산을 할 경우에 한할 것임. •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2-2-2.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조건과 합치는 것이 바람직함 • 2-4-4. 학점 회복 방법은 2-4-2. 정도로 이 항목이 먼저 나와야 할 것임. • 2-1-2.와 관련하여 현행 교과 중에서 위계 또는 수준별로 편성된 교과가 거의 없음. 수학의 경우에도 일부분만 위계성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상위수준 이수과목에 대한 가산점은 고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입시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어야 함. • 교과 평가 방식이 P/F, 성취평가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필, 수행 등을 말하는 것인지 의미가 모호함. • 학점 회복 방법 제시 보다 중요한 것이 이수 기준 미 충족 시 해당 과목 재수강의 원칙이 우선 지켜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수준 과목의 이수가 학생의 진로 또는 대학의 계열 등과 연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근본적이 취지에 부합하는지 고려가 필요함. • 2-2-4와 관련하여 기관명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례를 드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자 입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1,2,3 모두 해당). • 2-3-4. 최소 기준 등의 졸업 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지나치게 세부 항목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음. •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 기준 요소의 구성이 매우 타당하고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요소의 구성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축소로 창의적 탐구학습 등을 통해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수 기준에 준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과목 이수 인정. • 과목별 위계를 지정하는 것은 학습자의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상위 수준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 및 사교육 조장 등의 우려가 있음. 별도의 가산점이 없어도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이 필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것으로 간주됨. • 학점 인정 대상 과목을 모두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그러나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개설되지 않는 과목만 허용할 필요가 있음. •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은 '3. 평가 및 이수'로 항목을 별도 구성하는 타당함. • '2-3-4. 졸업 요건'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 구성형식에서 맨 위나 맨 아래로 보낼 필요가 있음. • '2-4. 학점 회복' 항목도 2-4.가 아닌 '4. 학점 회복'으로 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 '2-4-4. 학점 회복 방법' 항목은 맨 위(2-4-1)로 올라가야 함. 방법을 가르쳐 준 뒤 구체적인 내용(기준)을 알려주는 순서로 가야함.
--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는 내용 타당도 비율(CVR) 최소값 .37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2-3-1. 교과 평가 방식'과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3-1. 학생의 교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위 항목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교과 평가 방식이 P/F, 성취평가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필, 수행 등을 말하는 것인지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2-2-2.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조건'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위 수준 과목의 이수가 학생의

진로 또는 대학의 계열 등과 연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근본적이 취지에 부합하는지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위화감 조성 및 사교육 조장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의견과 가산점 부여는 고등학교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대학이 입학전형 시 판단할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함에 있어서 이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대체로 타당하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1. 과목 편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위계 또는 수준별 과목 편성과 관련하여 진로별 과목 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별 위계를 설정하는 것은 학습자의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현행 교과 중 수학 교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2. 과목 이수'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필요한 선택과목의 집중적 이수와 학습 부담을 경감을 위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축소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수 기준에 준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과목 이수를 인정하고,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축소함으로써 창의적 탐구학습 등을 통해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2-2-4. 학점인정 기준 및 범위'와 관련하여 운영 기관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운영상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에서 '2-3-1. 교과 평가 방식'은 내용 타당도 비율(CVR) 최소값 이하로 나타나 기각되었으며, '2-3-4. 졸업 요건'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성 형식의 순서를 고려하여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4-4의 학점 회복'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이수 기준 미 충족 시 해당 과목 재수강의 원칙이 우선 지켜져야 하며, 학점 허용 대상 과목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개설되지 않는 과목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성 형식(안)에 대해 항목 간의 통합 또는 수준을 달리한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과 '2-4. 학점 회복'은 상위 수준의 항목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체제에 준하여 학교 급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단위 배당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항목을 준용하고 있다. 다만 '단위 배당 기준'을 '학점 배당 기준'으로 수정 사용하였으며, 고교학점제 관련 목적은 '학점 배당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 학점 배당 기준'은 4개 구성 요소에 따른 하위 8개 항목 중 내용 타당도 비율(CVR) 최소값 .37이하로 나타난 '1-3. 과목 당 학점의 증감 규정'을 제외한 3개의 구성 요소와 5개의 항목으로 재구조화하였다. '1-1-1. 학점의 기준'과 '1-1-2. 1학점 기준 수업량'을 통합하여 '1-1-1. 1학점의 기준과 수업량'으로 수정하였으며,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평가 유무)'과 '1-2-3.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량'은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총 이수 시수'로 수정하였다.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은 4개의 구성 요소에 따른 17개 항목 중 내용 타당도 비율(CVR) 최소값 .37이하로 나타난 '2-3-1. 교과 평가 방식'과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2개 항목을 제외하여 5개의 구성 요소와 15개의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구성 요소의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1-2. 최소 이수 학점'은 '1-2.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 및 시수'로 수정하였으며,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은 '2-3. 평가 및 학점 취득 요건'으로 변경하였다. '2-3-4. 졸업 요건' 항목은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 구성 요소인 '5. 졸업 요건'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부 항목들의 순서도 재구성 하였다. 최종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은 다음 <표 V-6>과 같다.

<표 V-6>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

1. 학점 배당 기준

1-1. 학점의 기준

1-1-1. 1학점의 기준과 수업량

1-1-2. 과목 당 기본 학점

1-2.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 및 시수

1-2-1. 교과 총 이수 학점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총 이수 시수

1-3. 필수와 선택 학점의 이수 비율

1-3. 필수와 선택 학점의 이수 비율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2-1. 과목 편성

2-1-1. 학년제와 무학년제

2-1-2. 위계 또는 수준별 과목 편성

2-2. 과목 이수

2-2-1.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2-2-2. 상위 수준의 과목 이수 요건

2-2-3. 이수 인정 평가를 통한 과목 이수 면제

2-2-4. 학교 밖 학습 경험의 학점 인정 대상 과목

2-2-5. 학교 밖 학습 경험의 학점 인정 대상 기관

2-2-6. 학교 밖 학습 경험의 학점 인정 범위

2-3. 평가 및 학점 취득 요건

2-3-1.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

2-3-2. 과목별 학점 취득 요건

2-4. 학점 회복

2-4-1. 학점 회복 방법

2-4-2. 학점 회복 허용 기준

2-4-3. 학점 회복(F학점 과목 포함)에 의한 성취도 취득 기준

2-4-4.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2-5. 졸업 요건

2-5. 졸업 요건

3.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내용 개발

교육과정 구성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 형식(안)에 따라 '1. 학점 배당 기준' 영역의 4개의 구성 요소에 따른 8개 항목의 문항과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영역의 4개의 구성 요소에 따른 17개 항목의 문항을 1차 델파이 조사지로 개발하였다. 전문가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별 전문가 반응 비율과 의견을 추가하여 2차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문항별 전문가 합의점을 도출하여 교육과정 구성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델파이 1차, 2차 조사 결과, '1-3. 과목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2-3-1. 교과 평가 방식'과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3개 항목은 내용 타당도 비율이 최소값(CVR .37) 이하로 나타나 전문가 의견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구성 내용 개발을 위한 문항으로는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구성 내용 개발을 위한 구성 형식(안)의 구성 요소별 델파이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점 배당 기준

(1) 학점의 기준

'1-1. 학점의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 <표 V-7>과 같다.

<표 V-7> '1-1. 학점의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구성 요소	구성 내용	응답률(%)		전문가 의견
		1차	2차	
1-1-1. 학점의 기준 (1시간 수업 50분 기준)	학기 기준 (현행은 회수)	75.0	80.8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뀌야함. 너무 적음(작음). • 현재의 단위제도 학기단위 이수를 원칙을 함. 예외적으로 학년제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 • 현행보다 늘려야 함. 교과/과목으로 기

				<p>능하기 위한 최소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학기/학년별 최소 이수단위가 지금보다 높게 형성되어야 함.</p> <p><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학기를 기준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그 학기는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학기단위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학년단위 이수를 허용. • 고교 2-3학년에서 학점으로 질 관리하는 과목은 가급적 연속, 계열적으로 이수하게 해서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접근하게 하고,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많게 해야 할 것임. 매 학기에 끊어지는 과목 운영은 아주 나쁜 제도이며, 학점제를 계기로 이를 없애야할 것임. 교양, 보충, 취미 관련 과목은 한 학기로 마쳐도 될 것임. IBDP에서 수업이 2년 연속으로 진행됨에 따라 할 수 있는 공부, 활동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 현재 이름만 바꾸는 식의 학점제는 무용함. • 최소 1년, 2년, 3년 지속할만한 과목이 학점제 질 관리 대상이고 대학입시의 대상이 될 것임.
	학년 기준	25.0	19.2	
1-1-2. 1학점의 기준 수업량	16회(혹은 주)	48.0	57.7	<p><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적음. 주당 몇 회가 있어야 의미 있는 기준이 됨. • 17주(회)를 15 또는 16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음. • 68회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 • 1학기를 기준으로 15회 정도
※ 참고(수업량) ① 16회(주)는 주당 1회 1학기 기준 ② 34회(주)는 주당 1회 2학기(혹은 1년) 기준 의미	17회(혹은 주) (현행)	40	26.9	
	32회(혹은 주)	0.0	0.0	<p><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같이 하고 공휴일 등 이수를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1주 줄이는 것이

	33회(혹은 주)	0.0	0.0	바람직해 보임. • 1, 2학기 수업시수의 균형을 위해 현행 17차시 기준에서 1차시 축소가 필요함. • 현재보다 지속기간이 길수록 더 나옴. • 과목 미 이수자의 재수강 또는 보충 등을 위해서도 기준 수업량 감축 필요함.
	34회(혹은 주)	12.0	15.4	
1-1-3. 과목 당 기본 학점	3학점	38.5	50.0	<1차> • 과목의 비중에 따라 학점 비중은 다를 수 있음. • 2-3학점 정도 • 과목에 따라 다르게 설정(기초교과, 탐구교과)
	4학점	34.6	30.8	
	5학점	23.1	11.5	<2차> • 기본 학점은 3학점에 찬성하나 교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과목의 특성에 따라 기본 학점을 달리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취미, 교양, 보충은 2-3 학점도 가능하지만, 엄정한 학점제 적용 과목은 학점수가 커야 함.
	6학점	0.0	0.0	
	기타	3.8	7.7	

'1-1. 학점의 기준'과 관련하여 학기 혹은 학년으로 규정할 것인지와 1학점의 기준 수업량과 과목 당 기본 학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학점의 기준(1시간 수업 50분 기준)은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현행 회수의 개념인 '학기 기준' 응답 비율이 1차 조사 75.0%, 2차 조사 80.8%로 '학년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행 학기 단위 이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학기 단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학년 단위 이수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현행 학점의 기준(크기)이 너무 작아 바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2-3학년에

서 이수하는 과목은 IBDP와 같이 1년 또는 2년 동안 계열적으로 연속해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1학점의 기준 수업량은 어느 정도 규정하는 것이 절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16회(혹은 주)’가 48.0%, ‘17회(혹은 주)’가 40.0%로 근소한 차이로 ‘16회(혹은 주)’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2차 조사에서는 ‘16회(혹은 주)’ 응답 비율이 57.7%로 1차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행사나 공휴일 등으로 인해 과목 시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보충이나 1, 2학기 학사 일정 불균형으로 인한 시수 확보를 위해서도 기준 수업량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학기의 기준을 15-16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68회 정도로 늘리는 방안과 주당 수업 횟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예체능은 예외적으로 하고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차 조사에서는 ‘3학점’ 응답 비율이 38.5%, ‘4학점’ 응답 비율이 34.6%로 근소한 차이로 3학점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2차 조사에서는 3학점 응답 비율이 50.0%, 다음으로 ‘4학점’ 응답 비율이 30.8%로 나타나 응답 비율 간격이 확대되었다. 기본 학점은 3학점에 동의하나 예체능 과목이 아니라도 과목에 따라 또는 기초 교과와 탐구 교과에 따라 학점 수를 달리 설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진숙 외(2018)는 선택 과목 기준 단위 수 개정 방향과 적정화 방안으로 기본 학점의 증감 기준 활용의 필요성을 2학기 연속 과목 개설에 두고 선택 과목 학점 수를 짝수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4학점을 제시하고 있다. 필수 과목도 1학기 기준 선택 과목과 동일하게 짝수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과목의 성격, 이수 방법 등을 고려한 학점의 크기(양)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학점은 1시간 수업 50분을 기준으로, 학기 기준에 해당하는 16회(혹은 주)의 수업량에 함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으로 1학점의 수업량을 68시간 또는 그 이상 늘려서 독일이나 IBDP와 같이 2년 연속(또는 4학기) 이수하는 과목을 설정할 필요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점제 적용 대상 과목에 대해 홍후조(2018: 713)는 1,2학년 과목을 정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3학년 이상에서 수강하는 진로별 선택과목의 가장 높은 수준의 교과목에 대해서만 엄정한 의미의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선별 적용은 최소한 적용 교과목에 대해 질 관

리를 보다 엄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년제에서 학점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현행 1단위 규정에 준하여 1학점이 정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점의 정의를 현행과 같은 소규모 정의할 경우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특화된 차이를 구현해 내지 못할 것(홍후조, 2018: 711)이라는 지적도 있다. 단위(혹은 학점)의 양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 중 우리나라의 경우 그 크기(양)가 가장 작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졸업요구 단위(혹은 학점)는 3년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수업에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수업의 범위는 넓은 반면 그 깊이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점의 기준’에 대해 문항별 의견 이외에 추가적인 의견은 <표 V-8>과 같다.

<표 V-8> ‘1-1. 학점의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차>

- 1학점 기준 수업량은 회수보다는 ‘50분 기준 17차시’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있음. 1시간 수업분량은 현행대로 50분을 기준으로 하되, 실험, 실습, 실기를 주로 하는 과목은 100분 수업 기준으로 함.
 - 선진국의 수준을 고려하고, 그리고 지역이나 학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탄력적인 최소기준을 제시함.
 - 필수, 선택, 교양 등 교과 구분에 따라(학습량을 고려한) 학점을 다르게 적용.
-

<2차>

- 전체 졸업 이수 학점 수에서, 학점으로 질 관리할 것과 그렇지 않아도 될 것(창의적 체험 활동, 보충, 교양, 취미 등) 구분해 줘야 함. 고교 전체는 학점제이지만 학점제로 질 관리할 것은 별도로 구분해주어야 할 것임. 진로별로 중요한, 계속적, 성공적으로 학습하는데 중요한 것만 학점제를 적용해서 질 관리해야 함.
 - 질 관리되는 학점제 적용 과목은 10학점, 20학점, 30학점으로 하되, 최소 2년 이상(20학점) 공부한 과목만 대학 입시 과목으로 해야 함. 즉 대학 입시로 치를만한 것만 학점제로 질 관리할 일이며 이렇게 질 관리 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해결됨.
 - 실기수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수업의 경우, 수업의 학점을 실기 수업이나 또는 이론 수업이나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음악이론 3학점(주3회 수업, 1학기 기준), 음악실기 2학점(주3회 수업, 1학기 기준), 실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과목의 경우,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이론과 실기의 학점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음.
-

- 교과목에 따라 2, 3학점 정도가 적정하며 1, 4학점은 교육과정 편성 상 바람직하지 않음.
- 현재 교육과정 총론에서 정한 5단위가 가장 교육적이라 생각함(매일 담당 교사와 만나서 깊이 있는 학습 가능). 그러나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1학점 줄인 4학점 의견도 좋을 듯함.
- 학기별 수업시수의 균형과 입시 이후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도 고입, 대입시기의 12월 조정, 1학점 기준 수업량을 17차시에서 16차시로 축소할 필요 있다고 봄.
- 학점제를 시행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감이 커지므로 수업일수를 줄이고, 방학을 늘릴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학점 회복을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방학은 대학처럼 1~2주 정도 늘려야 함.

텔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으로 1시간 수업분량은 현행대로 50분을 기준으로 하되, 실험, 실습, 실기를 주로 하는 과목은 학점의 기준을 달리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음악이론 3학점(주3회 수업, 1학기 기준), 음악실기 2학점(주3회 수업, 1학기 기준)으로 실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과목의 경우,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이론과 실기의 학점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학점제 적용 과목은 10학점, 20학점, 30학점으로 하고 최소 2년 이상(20학점) 공부한 과목만 대학 입시 과목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소수의 의견으로 제시된 주당 수업 횟수를 포함하는 학점의 기준, 학점으로 관리되어야 할 과목의 구분, 이론과 실기 과목의 학점 기준을 달리 부여하는 방안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1, 2차 텔파이 조사 결과, '1-1. 학점의 기준'에 대한 구성 내용의 전문가 합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학점은 시간 당 50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둘째, 과목 당 기본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그러나 과목 당 기본 학점은 주당 이수 과목 수 및 교과 총 이수 학점에 대한 규정과 연계되어 있어 이들 문항에 대한 최종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최소 이수 학점

'1-2. 최소 이수 학점'에 대한 하위 구성 요소로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 및 활동량에 대해 질문하였다. '1-2. 최소 이수 학점'에 대한 텔파이 조사 결과는 <표 V-9>와 같다.

<표 V-9> '1-2. 최소 이수 학점'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구성 요소	구성 내용	응답률(%)		전문가 의견
		1차	2차	
1-2-1.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기본 3년 기준) ※ 1학점은 17회(50분 수업)로 산정	2,100시간 이하 (약 150 학점)	19.2	19.2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제에 비해 학점제의 경우 이수에 대한 학생 부담이 커지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습 총량을 줄여 주어야 함. 학습 분량은 현행 단위제와 차이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임.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은 현행으로 하되 학점제의 경우는 진학계 교교를 기준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기 졸업, 대학 연계 교육을 위해 180 학점 이상의 수강 신청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행보다 10%정도 감축 필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줄이고 질적인 관리가 필요함.
	2,100~2,400시간 (약 150~170학점)	46.2	57.7	
	2,400~2,550시간 (약 170~180학점) (현행)	30.8	23.1	
	2,550~2,800시간 (약 180~198학점)	3.8	0.0	
	2,800시간 이상 (약 198 학점이상)	0.0	0.0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평가 유무) ※ 현행은 단위와 시간을 병용하고 있으나 학점으로 규정 시 학점 이수 조건(평가) 충족해야 함	이수 학점	29.6	19.2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 분명히 하고 형식을 달리 해야 함. 비교과의 성격상 이수 여부만 판단(P/F)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창체 24학점 중 50%는 국가 수준에 맞게 필수 운영하고 나머지는 학교별 특성화하여 운영하는 방안(12학점 204 시간) 비교과는 영역별로 1-6학점까지 다양화할 필요 있음. 자율적으로 비교과 학점으로 규정하면 교과처럼 재이수 규정 둘 것인지 검토 필요 활동의 성격에 따라 필수 이수 시간 기준을 설정(예) 봉사활동 20 시간 등
	이수 시간	70.4	80.8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과를 학점으로 규정할 경우, 이수조건 충족을 위한 사교육 진행 가능성이 존재함. 또한 재이수 필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수 시간 중심으로 규정하여 혼란 방지
1-2-3.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량	현행 보다 감소	32.0	30.8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래 들어 비교과가 강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행보다 감축은 곤란함. • 6학점 정도 증가시켜 수능 이후의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
	현행 유지	40.0	42.3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리는 것을 찬성함 • 교과 외 다양한 고교 경험을 하는 교육과정 활동이 필요함. •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학교실정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영역별 융통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음.
	현행 보다 증가	28.0	26.9	

‘1-2-1.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은 ‘2,100~2,400시간(약 150~170학점)’ 응답 비율이 1차 46.2%, 2차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100~2,400시간(약 150~170학점)’은 현행 이수 시간보다 약 10% 감축한 수업량이다. 전문가들은 학점제로 전환하면 이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습 총량을 줄이고 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현행 유지에 대한 의견도 1차 30.8%, 2차 23.1%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기 졸업이나 대학 연계 교육을 위해 기준 학점 이상의 수강 신청도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 교육과정 기준은 단위와 시간을 병행하고 있다. 학점제를 적용할 경우 현행과 달리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학점과 시수를 병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를 학점으로 이수 기준을 설정할 경우 학점 이수 요건(평가, 출석 시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델파이 조사 결과, 이수 시간으로 이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응답 비율이 1차 조사에서 70.4%, 2차 조사에서 80.8%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는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미응답자(3명)가 있었으나 2차 조사에서 문항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이 문항에 대해 전원이 응답하였다. 전문가 의견 중에는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50%는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1-2-3.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량'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1차 조사에서 40.0%, 2차 조사에서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현행보다 감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1차 조사 32.0%, 2차 조사 30.8%,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1차 조사 28.0%, 2차 조사 26.9%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비교과가 강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행보다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학교의 실정과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역별로 융통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2. 최소 이수 학점'에 대해서 졸업을 위한 교과 총 이수 학점은 10% 정도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 현행 유지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보다 감소 또는 증가 비율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2. 최소 이수 학점'에 대한 전문가의 추가적인 의견은 <표 V-10>과 같다.

<표 V-10> '1-2. 최소 이수 학점'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차>

- 비교과는 최소 1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학생 개인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영역별로 1~6학점까지 자유롭게 이수가능 하도록 허용
- 최소 이수 기준 학점을 정해 주고 질적인 담보를 위해 IBDP처럼 단계를 고려하여 구성하면 좋겠으며, 추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새로운 지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를 비교과 활동에 반영하였으면 좋겠음.
- 비교과의 이수 인정은 이수 시간과 활동 내용을 종합 평가한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
- 시대 변화에 따라 체험하고 숙고하는 활동과 여유로움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차>

- 비교과 활동으로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여도 좋을 듯함.
- 기본적으로 교과 학점을 줄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10% 정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교과 최소 이수 학점’ 표현에서 ‘졸업에 필요한 교과 이수 총 학점 : ()학점 이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함.
- 주당 수업 축소, 1단위수업량 축소를 전체로 3년간 최소 이수학점을 현행보다 10%정도 감축해야 학점제에 따른 이동 수업 등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됨.
-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이 졸업 학점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재이수 등을 고려한다면 이수 학점 기준과 졸업 학점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듯함.

‘1-2. 최소 이수 학점’에 대한 전문가 추가 의견에서도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축소,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 총 이수 학점은 줄이는 반면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졸업을 위한 교과 총 이수 학점과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총 이수 시수는 최소 이수 학점과 시수로 기준 이상 이수가 가능하다. 다만, 조기 졸업이나 대학진학과 연계하여 추가 적인 학점 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진숙 외(2018)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수업 시수 적정화 방안’ 연구에서 비교과 활동의 시수를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졸업 요건으로서의 교과 최소 이수 학점과 비교과 활동 시수를 감축하는 방안에서 감축 대상 1안은 창의적 체험활동 위주의 감축, 2안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고른 감축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과 총 이수 학점의 감축과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현행 유지 의견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현행 또는 증가를 요구하는 의견이 응답자의 약 70%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교과는 축소보다 증가시키거나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델파이 조사 결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 총 이수 학점은 현행 보다 약 10% 정도 감축된 ‘2,100~2,400시간(약 150~170학점)’으로 하고,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는 현행 408시간(1시간 수업 50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이 도출되었다. 전문가 합의점을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과정 구성 형식에 따른 내용을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총 이수 학점은 150-170학점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이다.

둘째,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총 이수 시수는 408시간(단위 시간 50분)으로 고등학

교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시간'이다.

다만 총 이수 학점에 대한 구체적인 학점 수는 1학점의 수업량, 과목 당 학점,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과목 당 학점 배당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은 델파이 조사에서 내용 타당도 비율(CVR)이 1차 .15, 2차 .28로 최소값(CVR .37) 이하로 나타나 구성 형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성 내용에 관한 델파이 조사에서는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1차 38.5%, 2차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 '전혀 적절하지 않다'에서 '매우 적절하다'까지 델파이 1차 조사에서 11.5~19.2%, 2차 조사에서 11.5~15.4%의 고른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에 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V-11>과 같다.

<표 V-11> '1-3. 과목 당 학점 배당'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구성 요소	구성 내용	응답률(%)		전문가 의견
		1차	2차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 예제능 예외	전혀 적절하지 않다	19.2	15.4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부적절함. • 학교의 자율편성에 의하되 기본 상하한선을 제시 • 기본 학점 4학점으로 하되 ±2단위 까지 증감 허용 • 증감 규정 두면 재이수나 대체이수, 진출입에 의한 학점 취득에 문제 발생 우려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과목 이수한 학생의 학습량과 질이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함. • 교과별 중요도와 학습량이 각각 다르므로 학교실정에 따라 증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15.4	11.5	
	보통이다	11.5	15.4	
	대체로 적절하다	38.5	42.3	

	매우 적절하다	15.4	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학, 과학 등 연습(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학점에 관계없이 +1학점(시간)을 증가함.
--	---------	------	------	--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교과별 중요도와 학습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학교 실정에 따라 증감 규정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 측면에서 필요한 장치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상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은 동일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학습량과 질이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며, 재이수나 대체이수, 전출입에 의한 학점 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기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증감 규정을 단순화시키거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하여 증감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증감 규정을 없애고 학습량에 등가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구성 형식으로는 타당하지 않으나 학년제에서 학점제로 전환하는 완충 장치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3. 과목 당 학점 배당'에 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은 다음 <표 V-12>와 같다.

<표 V-12> '1-3. 과목 당 학점 배당'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차>

- 교과 180학점을 유지하되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을 150 또는 160학점 등으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일부 선택과목의 경우 F를 맞아도 졸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 또한 이수학점 감축으로 인한 학력저하 우려 등의 문제제기가 없을 것임.
-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고 생각함.
- 6학점 정도 증가시켜 수능 이후의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
-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전 교과는 학기단위 이수를 필수로 하여 현재처럼 수능과목위주로 증배해서 1년간 이수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 있음.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과목위주로 8단위 이상 증배하여 학기단위가 아닌 1년 단위 운영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 있음(전문교과 제외).
- 과목별 학습량을 고려한 고정된 학점 배당이 필요함.

<2차>

-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함.
 - 과도한 국, 영, 수 중심으로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과도기적으로 학교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증감 규정을 둘 수 있지만(지금보다는 단순화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증감 규정을 없애서 교과 학습량에 증가성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과목당 증감 규정을 둘 필요 있으나 교사별 수업시수 안배 등 교사 편의 위주의 증감이 없도록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이 개발될 때 어느 정도의 이수 시간이 필요한가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증감의 폭이 클 경우 교육과정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증감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필요가 있어 보임.
 - 고교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측면에서 증감을 허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기준)이 있어야 함.
-

텔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도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필요한 장치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편의 위주의 증감 허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로 전환할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은 과목별 이수 단위 가감 규정이다. 카네기 단위는 처음 도입될 당시 고등학교의 다양한 수업량 계산 방식을 통일하여 미국 내 상호 통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즉 미국 내 모든 고등학교는 과목들의 기본 단위가 통일되어 있으며, 이 기본 단위 변경에 대한 학교 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경우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 기본 단위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 간 학점의 통용성과 학교 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재량권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되어야 할 기준이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와 관련한 김진숙 외(2018)의 연구에서는 아직도 증감규정을 두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고교 학점제의 도입 취지와 모순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과 총 이수 학점과 졸업 이수 학점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김진숙 외(2018)의 연구에서도 졸업 자격으로서의 최소 이수 학점은 현 최소 이수 단위보다 줄이도록 하여 교육과정 이수와 졸업 이수 규정을 이원화하여 졸업 이수 기준을 줄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으로는 포함하지 않되 학년제에서 학점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완충적 장치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 비율에 대해 질문하였다. 필수 이수 학점 40%, 선택 이수 학점 60%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 조사 46.2%, 2차 조사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수 이수 60%와 선택 이수 40%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1차 조사 19.2%에서 2차 조사 23.1%로 응답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은 필수 비중을 최소화하여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되 진로별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선택 교육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택 이수 비율이 높은 것은 이상적이나 교육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수 이수 비율을 60% 정도에서 시작하여 점차 40% 수준까지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에 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V-13>과 같다.

<표 V-13>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구성 요소	구성 내용	응답률(%)		전문가 의견
		1차	2차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의 배당 비율	필수30% 선택70%	15.4	15.4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별 학습기회(학습권) 보장이 중요하지, 필수 선택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 • 필수 비중을 최소화하여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 • 진로 맞는 선택 교육과정이 강화되어야 함.
	필수40% 선택60%	46.2	53.8	

필수50% 선택50% (현행)	15.4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시험 과목과 교원 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6:4 적정하다고 봄. • 선택이 많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 • 이상적으로는 선택이수 학점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학교 현장에서 대입과 관련하여 편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함. <p><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시행은 필수 60%, 선택 40%로 하되 연차적으로 필수는 40%수준까지 축소하면서 학생 선택권 확대 필요 •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생 선택 학점 배당 비율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필수60% 선택40%	19.2	23.1	
필수70% 선택30%	3.8	0.0	

전문가 추가 의견으로 필수와 선택의 이수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택 이수의 비율을 늘리는 경우 대도시와 읍면지역간의 교육 여건의 차이로 교육 격차를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선택의 비율만 늘리는 것보다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여 충실한 교과 이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에 관한 전문가 추가 의견은 <표 V-14>와 같다.

<표 V-14>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차>

- 필수와 선택의 이수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필수는 미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이수 등을 통해 반드시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지, 이 경우 필수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최소화할 필요 있음.
- 필수보다 선택을 확대하여 개인의 진로별 특성에 맞는 소양과 전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목의 비율을 높인다하더라도 단위학교의 과목별 교사 T.O가 있고 교원 수급상의 한

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과목선택권 확대는 어려운 상황임. 학기단위로 교원수급이 원활하도록 학기단위 교사 발령 확대, 기간제계약제 교원의 학교장 임용권 확대, 겸임교사 확대 등 단위학교 교원수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 선택을 늘리는 것과 학교에서 가능한 과목을 개설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 후자에 방점을 두어야 함.

<2차>

- 학생 선택 중심의 학점제 운영을 고려한다면 필수 과목의 비중은 1학년 정도의 분량(1/3 정도)이 적절할 것임. 또한 IB 도입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서 살펴볼 때도 필수 비중은 가급적 적게 할 필요가 있음.
- 학년에 따라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필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
- 학점제 정착할 때까지 이행 조치와 경과 기간을 두어 입시제도개선과 병행하면서 연차적으로 선택과목을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직업계고의 경우 선택의 비중을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임(필수:선택=30:70)
- 고교 졸업, 취학을 비중으로 볼 때 실질적인 보통 교육의 의미가 있고 또 현재의 교사 수급 등 학교 여건으로 볼 때 필수 과목 비중을 60%정도로 하고, 필수과목 비중을 연차적으로 40% 수준까지 축소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나갈 필요 있음.
- 선택 과목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대도시와 읍면지역간의 환경적 차이를 그대로 두고 선택 과목의 비율을 늘린다면 교육적 차별을 불러올 수 있음.
- 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록 고교 교육과정이라도 선택과목이 늘어나야 함.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이수 비율과 관련된 김진숙 외(2018)의 연구에서도 필수 이수 40%, 선택 이수 60%를 적정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 이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필수 이수 94단위, 자율 편성 86단위로 필수 이수 비율 약 52%, 자율 편성 48%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는 학생 선택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사례 중 B 고등학교의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적인 학생 선택은 제2외국어 과목에 한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수와 선택 이수 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비율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실제적인 편성·운영 비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행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근거하여 비율을 확대한다면,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간의 교육 여건의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필수 이수 학점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은 축소되는 반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시간표 구성, 교사 수급 등)은 용이해 질 수 있다.

이상의 델파이 조사 결과 '1-4. 필수와 선택 학점의 이수 비율'에 관한 교육과정 구성 내용은 '필수 이수 학점은 교과 총 이수 학점의 40%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대한 교육과정 구성 내용 개발을 위해 '2-1. 과목 편성', '2-2. 과목 이수',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과 '2-4. 학점 회복'의 4개 구성 요소에 따른 17개 항목에 대해 1차 조사지를 작성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17개의 문항 중 '2-3-1. 교과 평가 방식'과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2개 항목은 내용 타당도 비율(CVR)이 최소값 .37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성 형식으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두 항목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구성 형식으로는 기각되어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목 편성

'2-1. 과목 편성'에 관한 문항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학년제 혹은 무학년제 편성, 과목의 위계나 수준의 설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2-1. 과목 편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V-15>와 같다.

<표 V-15> '2-1. 과목 편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구성 요소	구성 내용	응답률(%)		전문가 의견
		1차	2차	
2-1-1. 학년제/무학년제 편성(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모두 학년제	3.8	3.8	<1차> • 미 이수 시 재수강 등을 고려한다면 무학년제 운영이 적절

	필수과목 학년제, 선택과목 무학년제	65.4	6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과목은 사실상 1학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3학년에 학점제 적용으로 무학년 운영제가 가능할 수 있음. <p><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선택과목부터 무학년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필수과목 무학년제, 선택과목 학년제	0.0	0.0	
	필수과목 선택과목 모두 무학년제	30.8	26.9	
2-1-2. 위계 또는 수준별 과목 편성 (예: 기초/보통/심화)	전혀 적절하지 않다	0.0	0.0	<p><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도보다 기술, 체육, 예술, 사회 처럼 수평적으로 다른 영역일 뿐임. 그 안에서는 다시 나뉘질 수도 있지만, 고교는 난도보다 학습량의 문제이고, 더구나 진로별 학습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문제임. 모든 과목을 할 필요가 없으며, 위계가 필요한 과목 위주로 설정해야 함. 과목, 학교 상황, 학생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 과목에 따라 달라짐. 모든 과목을 설정하지 않고 필수 과목은 선정하고 선택과목은 자유롭게 함. 기초 교과는 반드시 수준이 설정되어야 함. <p><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계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과목에 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내용상 위계가 있는 교과목은 자연스럽게 수준에 따라 학습할 수 밖에 없는데 인위적 수준 구분이 선수학습 등 구차한 문제 발생시킴.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12.0	11.5	
	보통이다	24.0	19.2	
	대체로 적절하다	48.0	61.5	
	매우 적절하다	16.0	7.7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학년제 또는 무학년제 편성에 관한 질문에서 ‘필수 과목은 학년제, 선택 과목은 무학년제’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1차 조사 65.4%, 2차 조사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 무학년제 편성’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1차 조사 30.8%, 2차 조사 26.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이수 과목의 재수강 등을 고려하면 모든 과목을 무학년제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선택 과목부터 무학년제로 편성하여 점차적으로 전 과목 무학년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과목을 난이도에 따라 위계 또는 수준을 설정(예: 기초/보통/심화)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체로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 조사 48.0%, 2차 조사 61.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목의 위계 또는 수준 설정과 관련된 질문에서 전문가 의견은 기술, 체육, 예술, 사회 등은 수평적으로 다른 영역일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른 설정보다는 진로에 따른 학습 기회와 학습량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계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과목에 한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차 전문가 의견에서 모든 과목보다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위계나 수준 설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차 토크이 조사 문항에 위계나 수준 설정이 필요한 과목을 기술하도록 문항을 추가하였다. 추가 문항에 대해 위계나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과목은 다음 <표 V-16>과 같다.

<표 V-16> 위계 또는 수준 설정이 필요한 과목<추가 문항>

과목	국어	수학	과학	영어(외국어)	기타
추천 건수 (복수 응답)	3	10	6	7	예체능은 세부 영역별 편성 ¹⁸⁾ *

‘2-1. 과목 편성’에 대한 토크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은 <표 V-17>과 같다.

18) 흥미나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적성 분야별 편성(예: 체육의 경우 육상, 구기, 무용 등)

<표 V-17> '2-1. 과목 편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차>

- 난이도에 따라 위계 또는 수준을 설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과목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어 이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모든 과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임.
 - 모두 단계별로 제시하면 과 부화 됨. 기초 수준만 학습해도 되는 몇몇 교과와 같은 것들은 위계를 정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무학년제인가 학년제인가의 중요성 보다는 위계가 있는 교과목의 이수 경로를 확실하게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됨.
-

<2차>

- 과목별로 위계를 두는 교과를 정하는 것이 보다 나을 듯함.
 - 어느 시기에 어느 학교에서 선택하였다 하여도 이수한 결과 학습과 관련된 학습량과 평가 척도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과목선택의 폭을 넓히고 계열성 있고 집중적인 이수가 가능하도록 모든 과목에서 학교 자율로 심화 과목, 전문 과목을 자유롭게 편성,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있음.
 - 2-1-1. 의견 수정 이유는 필수 과목은 1학년 주로 이수하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2-1-2의 수정 이유는 기초/보통/심화의 3단계는 현실성이 부족하여(현재 고교 교과목에서 3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2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또 3단계 설정 시 교원 수급도 불가함(예: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

전문가들은 과목 편성과 관련하여 학년제 혹은 무학년제의 편성보다 중요한 것은 교과목의 이수 경로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이수 시기나 이수 학교에 관계없이 동일한 과목은 학습량과 평가 척도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추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과목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보다 위계나 수준을 설정할 과목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허경철(2017)은 무학년제의 기본 정신은 학생 선택 영역의 확대로 무학년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과목이 다양화되어야 하며, 교과 내용은 난이도에 따라 여러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각 단계는 하나의 과목 형태로 위계화된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 과목 편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한 교육과정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 과목은 학년제, 선택 과목은 무학년제로 편성·운영한다.

둘째, 위계성을 갖는 과목은 수준을 설정하여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교의 요

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과목 이수

'2-2. 과목 이수'에 관한 질문은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조건 설정, 과목 이수 인정 평가를 통한 이수 면제의 적절성에 관한 문항과 학교 밖 학습 경험의 학점 인정 기준 및 범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 과목 이수'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V-18>과 같다.

<표 V-18> '2-2. 과목 이수'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구성 요소	구성 내용	응답률		전문가 의견
		1차	2차	
2-2-1. 학기 당 이수 과목 수(예체능 포함)	5-6 과목	23.1	23.1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160학점, 과목당 3학점을 고려한다면 학기당 8과목 내외 적절 • 학습부담 경감과 진로연계과목에 대한 집중적 학습을 위해 과목 수 축소 필요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이수 학점과 과목당 학점을 고려할 때, 학기당 7~8과목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7-8과목	65.4	69.2	
	9-10 과목	11.5	7.7	
	11-12 과목	0.0	0.0	
	13-14 과목	0.0	0.0	
2-2-2.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조건 설정 (교사 추천서, 선 이수 과목의 성취도 등)	전혀 적절하지 않다	3.8	0.0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꼭 필요한 과목에 한정하여 제시해야 할 것임. • 추천서는 삭제하고 성취도는 확인이 필요함. •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 필요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계를 고려하여 하위 수준 과목의 이수 성취도 기준 조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7.7	7.7	
	보통이다	11.5	7.7	
	대체로 적절하다	46.2	57.7	
	매우 적절하다	30.8	26.9	

2-2-3. 이수 면제 (과목 이수 인정 평가 실시하여 이수 면제하고 해당 과목 학점 부여)	전혀 적절하지 않다	12.0	11.5	<p><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과목은 사교육을 통해 과목 이수 인정 평가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 과목에 따라 고려할 수 있으나 사전에 평가하여 이수 면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 학원이 성업할 가능성이 있음. 지나친 경쟁학습 유발 우려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봄.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24.0	26.9	
	보통이다	28.0	26.9	
	대체로 적절하다	28.0	30.8	
	매우 적절하다	8.0	3.8	<2차> 없음
2-2-4-1. 학점 인정 대상 기관의 요건 설정	전혀 적절하지 않다	0.0	0.0	<p><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연계, 전문 공공기관 등에 국한 <p><2차> 없음</p>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0.0	0.0	
	보통이다	3.8	3.8	
	대체로 적절하다	46.2	38.5	
	매우 적절하다	50.0	57.7	
2-2-4-2. 학점 인정 대상 과목의 제한	전혀 적절하지 않다	0.0	0.0	<p><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 개설이 곤란한 과목에 대해서만 허용 학교가 유지(교육 질서) 되려면 당연히 제한해야 함. 교육과정에 없거나 현행 교사자격증이 없어 학교 개설이 어려운 과목으로 한정 필요 <p><2차> 없음</p>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3.8	0.0	
	보통이다	0.0	0.0	
	대체로 적절하다	46.2	50.0	

	매우 적절하다	50.0	50.0	
2-2-4-3. 학점 인정 범위	범위 제한을 두지 않는다	7.7	3.8	<1차> • 사이버 강좌 등으로 시범 실시해 보고 차츰 확대 •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 범위는 지역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함. • 가장 최소화로 도입하고 점진적 확대를 검토 <2차> • 점진적으로 확대 검토 의견에 동의 • 최소한의 범위 필요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10%	42.3	53.8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20%	26.9	30.8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30%	15.4	7.7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40%	7.7	3.8	

예체능 과목을 포함하여 학기 당 적절한 이수 과목 수를 묻는 질문에 '7-8 과목'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 조사 결과 65.4%, 2차 조사 결과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5-6 과목'이 1, 2차 각각 23.1%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보다 이수 과목 수를 축소하는 안으로 합의점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에 기인한 전문가 의견 중에는 학습 부담 경감과 진로 연계 과목에 대한 집중적 학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학기 당 이수 과목 수는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 학점을 설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기 당 8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할 경우, '3학점×8과목×6학기'의 총 이수 학점은 144학점으로 현행 기준보다 약 10%를 감축한 150-170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학점이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 학점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1-1. 학점의 기준'에서 소수 의견으로 제시되었던 이론과 실습 과목의 학점 기준(동일 학점이나 수업 시수는 달리함)을 달리하는 방안이나 과목의 성격에 따라 기본 학점을 3학점 외에 5학점 과목, 7학점 과목, 10학점 과목 등의 추가 설정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조건(교사 추천서, 선 이수 과목의 성취도 등)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체로 적절하다'라는 응답한 비율이 1차 46.2%, 2차 57.7%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우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차 30.8%, 2차 26.9%로 1차 조사 응답자의 77%, 2차 조사 응답자의 84.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

다. 상위 수준의 과목 이수 조건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으며 사교육 조장의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과목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동일하게 28.0%로 나타나고 있으나 2차 조사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의 응답 비율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도 동일하게 26.9%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문가 의견의 합의점에는 도달했으나 관점을 달리하는 의견도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은 지나친 경쟁 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평가 결과의 활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2-2-4. 학교 밖 학습 경험의 학점 인정 기준 및 범위’에 관해 학점 인정 대상 기관, 과목 및 학점 인정 범위에 대해 질문하였다. 학점 인정 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1차 조사 결과 ‘매우 적절하다’ 50.0%, ‘대체로 적절하다’ 46.2%로 96.2%가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2차 조사에서는 ‘매우 적절하다’ 57.7%, ‘대체로 적절하다’ 38.5%로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1차 조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 연계, 전문 공공기관 등에 국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점 인정 대상 과목의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1차 조사 96.2%, 2차 조사에서는 100%로 나타나고 있어 델파이 패널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해당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 개설이 곤란한 과목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질문에서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10%’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1차 조사에서는 42.3%, 2차 조사에서는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20%’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1차 26.9%, 2차 30.8%로 나타났다. 학교 밖 학습 경험의 학점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강좌 등으로 시범 실시해 보고 최소 수준에서 도입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과 지역 수준에서 결정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2-2. 과목 이수'에 대한 전문가 추가 의견은 <표 V-19>와 같다.

<표 V-19> '2-2. 과목 이수'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차>

- 학교 밖 학습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그 인정 범위는 국가수준보다는 지역이나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 관리가 예민한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질 관리 방안이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학습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학생들의 필요가 있다면 좀 더 자유롭게 해 줘야 되며,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기준을 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봄
-

<2차>

- 대학입시(수능 등)와 관련이 적은 과목에 대해 과목 이수 인정 평가가 활용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인정해야 할 것임.
 - '학교 밖 학습의 인정 범위'는 앞의 1, 2 항에 이미 상당부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제한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예컨대 이수과목에 제한을 두거나, 학점인정 범위를 두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적절한 제한이 가능함. 이종의 제한을 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함.
 - 실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학점이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학습의 질을 높이리라 생각됨.
 -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교과를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
 - 학교 밖 학습의 인정 범위는 최대한 학교(학교 내, 학교 간 협력을 통해)가 수용하되, 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 학교 밖 학습 인정.
 - 학교 밖 학습의 인정 범위는 시행 초기 10%에서 20%까지 확대해 나가되,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허용할 필요 있음, 특정개인에 대한 특혜나 입시를 위한 편법과 악용 또 다른 사교육 조장 우려됨.
 - 과목당 이수 학점이 정해지고 주당 수업 시수를 고려하면 한 학기당 이수 과목수가 대체로 정해지게 될 것임. 그러나 한 학기에 많은 과목을 이수하기 보다는 적절한 과목을 심도 있게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고교생들이 외부에서 학습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응답을 변경하여 비율을 줄임.
-

'2-2. 과목 이수'에 대한 전문가 추가 의견은 학교 밖 학습 경험의 학점 인정 범위는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수준보다 지역이나 학교 수준에서 결정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점 이수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질 관리를 위해 세심하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가급적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협력을 통해 학교에서 이수하는 것으로 하고, 대학 연계 또는 전문 공공기관 등에 국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이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지나친 제한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근호 외(2018)의 연구에서는 학교 밖 학습 경험에 대해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이룩한 학습에 대하여 소정의 범위와 시기 내에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과 단위를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학기 당 3학점, 총 10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설정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2. 과목 이수'에 대해 이상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한 교육과정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기 당 이수 과목 수는 예체능 과목을 포함하여 7-8 과목으로 한다.

둘째,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과목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하고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넷째,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해당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섯째,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밖 학습 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학교 밖 학습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교과 총 이수 학점의 10% 이내로 한다.

그러나 학기 당 이수 과목 수와 관련하여 과목 당 학점 배당 및 교과 최소 이수 학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1-3. 과목 당 기본 학점'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과목 당 기본 학점은 3학점'으로 합의되었으나 '1-2-1.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이 약

150-170학점, '2-2-1. 학기 당 이수 과목 수'가 7-8 과목으로 결정되어 이를 종합하면, '과목 당 기본 학점'은 3학점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증감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점의 수를 달리하여 편성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과 관련하여 교과 평가 방식,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 학점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 기준, 졸업 요건과 상위 수준의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적절성에 관해 질문하였다. 5개의 구성 요소 중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에 대한 타당도 검증에서 '2-3-1. 교과 평가 방식'과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내용 타당도 비율(CVR) 최소값 .37이하로 나타나서 기각되었다. 두 항목에 대해 전문가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으나 관점을 달리하여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추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V-20>과 같다.

<표 V-20>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구성 요소	구성 내용	응답률		전문가 의견
		1차	2차	
2-3-1. 교과 평가 방식	전 과목 상대평가	0.0	0.0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점수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절대평가가 좋으며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연계 절충평가 고려 (예)학교 50%+평가원50% • pass/fail로만 평가하는 과목도 필요할 수 있음. • 우선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 •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봄. • 필수과목도 낮은 수준은 절대평가 하고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대평가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인 절대 평가로의 이동은
	필수과목 상대평가, 선택과목 절대평가	19.2	19.2	
	필수과목 절대평가, 선택과목 상대평가	0.0	0.0	

	전 과목 절대평가	80.8	80.8	동의하나, 상대 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봄.
2-3-2.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 ※ 예체능 예외 ※ 단계별 평점의 예(9단계 가정) A+(4.5), A(4.0), B+(3.5), B(3.0), C+(2.5), C(2.0), D+(1.5), D(1.0), F(0.0)	3단계 (A, B, C)	3.8	3.8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에 따라 진로에 더 중요한 것은 더 엄정하게 고교 학점제에서 F(과락)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대입과 연계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 세분화할수록 경쟁이 커질 것이므로 5단계 평가가 적절 3단계가 적절하다고 봄. 평가를 세분화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봄.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단계 과목 성취도가 대입과 절대 평가 간의 상호 절충안이 될 수 있음.
	5단계 (A, B, C, D, F)	46.2	34.6	
	9단계 (A+, A, B+, B, C+, C, D+, D, F)	46.2	57.7	
	13단계 (A+, A, A-, B+, B, B-, C+, C, C-, D+, D, D-, F)	3.8	3.8	
	기타	0.0	0.0	
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9단계 가정, 문항 2-3-2. 참조) ※ 참고 ① 최소 이수 기준 F: 시험 응시하면 학점 인정(출석 반영 없음) ② 최소 이수 기준 D: D 미만 과락 ③ F+출석시수: 과락 없이 출석 요건만 충족되면 학점 부여 ④ D+출석: D등급 이상.	F	0.0	0.0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 F는 학점 미 이수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F도 이수로 보는지 불분명함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이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음. 사교육 유발 등 출석 시수는 과목당이 아니라 학교 출석 일수로 최소 기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석은 학생의 권리임.
	D	8.0	7.7	
	F + 출석 시수	36.0	30.8	
	D + 출석 시수	56.0	61.5	

출석 요건 충족 ⑤ 출석 시수: 시험 응시 하지 않아도 출석 요건 만 충족하면 학점 부여	출석 시수	0.0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출석만 하면 이수하는 상황임. 학점제에서는 출석과 최소 학점 기준(D)을 충족하는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2-3-4. 졸업 요건	기준학점 충족	34.6	42.3	<p><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 관리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졸업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제시가 필요함 <p><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교마다 다른 졸업 시험을 치른다면 시험의 공정성 시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졸업 평점만 고려하면 좋을 듯함. • 사회적 분위기 고려
	기준학점 충족 + 졸업평점	38.5	46.2	
	기준학점 충족 + 졸업시험	15.4	3.8	
	기준학점 충족 + 졸업평점 + 졸업시험	11.5	7.7	
	기타	0.0	0.0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예시 (미국/플로리다주) 일반과목 A 4점 고급수준 A 5점(+1) AP A 6점(+2)	전혀 적절하지 않다	19.2	19.2	<p><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 유발 촉진 <p><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려운 공부를 한다고 하여 가산점을 주게 되면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점수를 위해 타인에 의해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상위 수준의 과목은 대학의 여러 전공과목의 기본(기초) 지식을 종합한 내용으로 범위는 매우 넓고 깊이는 매우 낮아 심화된 학습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공교육 정상화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15.4	19.2	
	보통이다	19.2	15.4	
	대체로 적절하다	42.3	42.3	
	매우 적절하다	3.8	3.8	

'2-3-1. 교과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교과 평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

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 2차 조사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 과목 절대 평가’의 응답률이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필수 과목 상대 평가, 선택 과목 절대 평가’ 응답률이 19.2%로 나타났다. 이광우 외(2017)의 연구 결과에서도 모든 과목 절대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선택 과목만 절대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25.3%로 나타났으며, 이명애 외(2018)의 연구에서도 고교학점제에서는 절대 평가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3.0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 의견은 절대 평가가 필요하나 우선 선택 과목부터 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과 점수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과목에 따라서는 pass/fail로 평가하는 과목도 필요하며, 필수 과목도 낮은 수준은 절대 평가로 하고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대 평가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현 상황에서 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전 과목 절대 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2-3-1. 교과 평가 방식’ 항목은 앞서 구성 형식(안) 타당도 검증에서 기각되었다. 평가 방식에 대한 구성 요소는 광범위하게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명애 외(2018)의 연구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평가 방안은 Two track 접근 방안으로 제1안은 필수 과목 상대 평가, 선택 과목 절대 평가하는 방안, 제2안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 절대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과 관련하여 예체능은 예외로 할 때, 1차 조사에서는 ‘5단계(A, B, C, D, F)’와 9단계(A+, A, B+, B, C+, C, D+, D, F)가 46.2%로 동일한 응답률을 나타냈으나 2차 조사에서는 9단계 응답 비율이 57.7%, 5단계 응답 비율이 34.6%로 나타났다.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대입과 연계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9단계가 대입과 상대 평가 간의 상호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계를 세분화할수록 경쟁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세분화하기 보다는 3단계, 5단계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구자역·남궁지영(2011)의 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에서도 학점의 분류는 4.5점 만점으로 다음 <표 V-21>과 같이 9단계 분류 방식을 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표 V-21> 등급의 9단계 분류 방식

등급	A+	A	B+	B	C+	C	D+	D	F
평점 (원점수급간)	4.5 (95-100)	4.0 (90-94)	3.5 (85-89)	3.0 (80-84)	2.5 (75-79)	2.0 (70-74)	1.5 (65-69)	1.0 (60-64)	0.0 (0-59)

출처: 구자역·남궁지영(2011). 학점제 도입 방안, p.15.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9단계 가정)은 '성취도 D와 출석 시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 56.0%, 2차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출석 시수만으로 과목 이수를 결정하는 것이 절적하다고 응답한 'F+출석 시수'의 응답 비율은 1차 36.0%, 2차 30.8%로 나타났다. 특히 예시 문항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1차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지에는 보충 설명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목 이수를 위한 구체적인 출석 시수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현행 졸업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출석 일수의 2/3 이상의 출석 기준을 과목 이수 기준으로 준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제주대학교의 경우는 과목 당 출석 시수의 3/4이상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학점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제주대학교 규칙 제14603호)하고 있다.

과목 이수 기준과 관련하여 이명애 외(2018)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성취도의 단계 설정이나 최소 이수 기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미 이수 처리 여부와 미 이수자의 재수강 허용 및 의무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미 이수는 해당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였으나 낙제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 미 이수 학점(F)은 부여하되, 필수 과목은 재이수를 필수로 하여 재이수 횟수를 제한하고 선택 과목은 미 이수자 재이수를 선택으로 하여 재이수 횟수와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으로 성취도뿐만 아니라 출석 요건을 추가하여 설정하였으며 과락(F)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치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3-4. 졸업 요건' 설정에 관한 질문에서 '기준 학점 충족+졸업 평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조사 결과 38.5%, 2차 조사 결과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준 학점 충족'만으로 졸업 요건을 설정하는 안에 동의하는 의견도 1차 34.6%, 2차 42.3%로 '기준 학점 충족+졸업 평점'에 동의하는 비율과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졸업 요

건으로 졸업 시험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는 질 관리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험의 공정성 문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대책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1차 조사 결과 11.5%에서 2차 조사 결과 7.7%로 감소하였다. 졸업 요건으로서 미국(플로리다주)의 경우 기준 학점 이외에 누적 학점 평균(GPA)이 4.0 만점에 2.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17a, 2017b).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목 이수 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점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졸업을 위한 평점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학점 회복을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후 취득한 평점으로 산정한다는 규정도 추가되어야 한다. '2-3-4. 졸업 요건'은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 수준의 구성 요소인 '2-5. 졸업 요건'으로 구성하였다.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항목은 구성 형식(안) 타당성 검증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관련 문항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수 과목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대체로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 2차 동일하게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적절하다' 이외의 예시 안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1, 2차 조사 결과 3.8%)를 제외하고 15.4~19.2%의 거의 유사한 응답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사교육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지나친 경쟁으로 학교교육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에 대한 전문가 추가 의견은 <표 V-22>와 같다.

<표 V-22>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차>

- 고교 내신 성적이 대입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현실에서 상위 수준 과목에 대한 이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학교교육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 우리교육에서 AP과목 도입 논의 시 여러 문제점 제기로 UP제도로 변경하여 도입했으나, 대입에의 영향을 고려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게 한 경험을 고려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전 과목 절대평가로 하되 우선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입시에서도 전공 관련 과목(또는 인접 과목)을 이수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유의미한 과목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평가 및 이수 기준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것이 좋다고 보며, 고교 학생들에게 평가와 이수를 통해 새로운 진로와 진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함.

<2차>

- 상위 수준 이수 과목 가산점은 대학 입시에서 대학이 판단할 것임. 학교마다 이수과목이 다양화되게 되면 가산점 부여 여부, 점수, 해당 과목 등 혼란이 예상됨.
- 현행 여건을 고려할 때 필수 과목은 상대 평가,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로 시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과목을 절대 평가로 전환해야 함.
- 현 상황에서 학점제를 시행하면서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그 대책과 대안 마련이 우선임.
- 과목의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의 문제는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학점을 이수하였다는 자체가 일정한 출석과 성취를 보였다고 전제하면 또 다시 졸업 평점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불명확함.
- 상위 수준 이수 과목을 어떻게 이수하였는지가 아니라 이수 자체만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가 필요함.
- 한국의 정서 및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졸업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 2차 응답에서 2-3-2. 항목의 응답을 변경한 이유는 어느 정도 세분화 되어야 대학에서 입학 전형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임.
- 2차 응답에서 2-3-4. 항목의 응답 내용을 변경한 이유는 나중에는 몰라도 처음 실시할 때 기준학적 충족만으로도 학생들이 엄청난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에 대한 전문가 추가 의견은 현행 여건을 고려할 때 필수 과목은 상대 평가,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로 시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과목을 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목의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의 문제는 대학 입시 제도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별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AP 과목 도입 시 여러 가지 문제로 UP 제도로 변경하여 도입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한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평가 및 이수 기준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은 구성 형식(안)의 타당도 검증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3. 평가 및 학점 취득 요건'과 '5. 졸업

요건'으로 항목을 분리하여 구성 요소를 수정하였으며, '2-3-1. 교과 평가 방식'과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항목은 기각되어 구성 형식에서 제외하였다. '2-3. 평가 및 학점 취득 요건'과 '2-5. 졸업 요건'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 내용을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목 성취도는 9단계((A+, A, B+, B, C+, C, D+, D, F)로 한다.

둘째,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은 성취도 D이상으로 하며, 기준 수업 시수의 일정 기준 이상 출석해야 한다.

'2-5. 졸업 요건'은 졸업을 위해서는 교과 150~170학점과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 408시간(단위 시간 50분)을 이수하고, 교과의 평점 평균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과 총 이수 단위와 졸업 요건으로서의 교과 평점 평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4) 학점 회복

'2-4. 학점 회복'에 관해서는 학점 회복 허용 기준,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성취도의 상한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와 이전 성취도의 병기 및 학점 회복 방법 규정에 관하여 질문했다. 학점 회복은 이미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요건을 만족시키거나 등급의 향상을 위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학점 회복'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과목을 선택하여 기준 시수를 충족하였으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학점 회복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V-23>과 같다.

<표 V-23> '2-4. 학점 회복'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구성 요소	구성 내용	응답률		전문가 의견
		1차	2차	
2-4-1. 학점 회복 허용 기준(9단계 가정)	D+ 이하	38.5	34.6	<1차> • 교과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인 경우 적절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나, 절대평가인 경우 제한을 두는 것은 부적절함. • 재이수는 본인의 결정이며 최저
	C 이하	42.3	46.2	
※ 학점 회복은 이미 취득한 학점을				

높이기 위한 방안임 (F는 학점 미취득)	C+ 이하	3.8	7.7	<p>성적만 갱신 기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지나친 경쟁 유발
	B 이하	7.7	3.8	<p><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이수의 요건은 제한적으로 실시해야함. 특히, 재이수를 위해 일부러 평가를 등한시 할 수 있으므로 담당 교과 교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함.
	제한 없이 허용	7.7	7.7	
2-4-2.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성취도의 상한선(9단계 가정, F학점 과목 포함)	C+	11.5	7.7	<p><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인 경우 적절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나, 절대평가인 경우 제한을 두는 것은 부적절함. 대학 체제와 유사하게 운영 최소 성취기준을 C 정도로 설정함이 타당함.
	B	3.8	3.8	<p><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노력에 대한 성취도이므로 A학점도 허용 중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을 때 학점 회복으로 A학점을 받기 위하여 중간에 과목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 수업 진행과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학점 회복의 성취도 상한선이 높을 경우 성취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될 때 학점 회복을 통해 점수를 올리려는 악용사례 발생 우려(대학입시 때문) 4~5년 고등학교를 다니게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발생. 대학과는 다르게 운영할 필요
	B+	42.3	50.0	
	A	19.2	15.4	
	A+(제한 없음)	23.1	23.1	
2-4-3. 학교생활 기록부 성취도 기재 시 학점 회복에	전혀 적절하지 않다	23.1	19.2	<p><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신을 중시하는 대학입시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

의해 취득한 성취도와 이전 취득한 성취도(F학점 포함) 병기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23.1	2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의 모든 이력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거 실패한 학습경험이나 이력을 기록에 남기는 것은 학생자신도 불명예로 생각해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음.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실태를 고려하면 이전의 취득 성취도를 기록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고려 필요 학점 회복의 성취도 상한선이 높게 설정 된다면 병기가 필요함. 학점 회복에 속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성취도를 받은 학생들에게 불이익
	보통이다	7.7	7.7	
	대체로 적절하다	26.9	30.8	
	매우 적절하다	19.2	15.4	
2-4-4. 학점 회복 방법	보충학습	3.8	3.7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충학습, 재수강을 모두 허용하여 학생 선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수강만 바람직하다고 봄.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과목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만 보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함. 수행 점수는 좋은데, 기말 고사만 부족하면 기말고사만 보완 할 수 있도록 평가 요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음 재시험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방식이므로 학점 회복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보충학습 + 재시험	57.7	55.6	
	재시험	7.7	3.7	
	재수강	26.9	33.3	
	기타	3.8	3.7	

‘2-4-1. 학점 회복 허용 기준(9단계 가정)’에 관한 질문에서 ‘C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42.3%, 2차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D+ 이하’도 1차 38.5%, 2차 34.6%로 나타났다. 학점 회복 허용 기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한을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거나 재이수를 위

해 평가를 등한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4-2.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성취도의 상한선(9단계 가정, F 학점 과목 포함)' 규정에 대해서는 'B+'까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 42.3%, 2차 50.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A+(제한 없음)'도 1, 2차 조사 결과 23.1%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한 노력에 대한 성취이므로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거나 고등학교 수학 기간을 연장하게 되는 우려도 제시하고 있다.

'2-4-2. 학교생활기록부 성취도 기재 시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와 이전 취득한 성취도(F학점 포함)를 병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1차 26.9%, 2차 30.8%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도 1차 23.1%, 2차 26.9%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은 '매우 적절하다'와 '대체로 적절하다'의 응답 비율이 46.2%이며, '전혀 적절하지 않다'와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의 응답 비율도 46.1%로 찬반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 입시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거 실패한 학습 경험이나 이력을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학사 이력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4-4. 학점 회복 방법'은 '보충학습+재시험'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차 57.7%에서 2차 55.6%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반면 '재수강'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차 26.9%에서 2차 33.3%로 높아졌다. 전문가 의견은 보충학습, 재수강을 모두 허용하여 학생 선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재수강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시험은 일회성에 그칠 수 있으므로 학점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학생에 따라 부족한 부분만 보충할 수 있는 방안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학점 회복 방법으로 '보충학습+재시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차 조사에서 재수강 비율이 높아진 것은 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질 관리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점 회복은 이미 학점을 취득했기 때문에 의무 사항은 아니나 학점 미 취득자를 포함하여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한 학점 취득이나 졸업 요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미국(플로리다주)은 D, F 등급의 과목에 한해 필수 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나 유사 과목으로, 선택 과목은 다른 과목을 이수하여 C 이상의 등

급을 취득하면 이전 학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적 취득 과정은 모두 기록하게 된다(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17a). 그러나 핀란드는 미국(플로리다주)과 달리 이미 취득한 과목의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성취도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Fi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 '2-4. 학점 회복'과 관련된 전문가 추가 의견은 <표 V-24>와 같다.

<표 V-24> '2-4. 학점 회복'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추가 의견

<1차>

- 재이수 요건이나 재이수의 최고 성적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재이수(재수강) 빈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매학기 이수해야 하는 기본 학습량이 있어 실제 재이수가 빈번할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
- 보충학습이나 재수강 등의 전제 없이 단순히 재시험만을 허용하는 것은 성적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 모두 응시할 가능성이 있어 운영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 재시험을 허용한다면 시기나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학기별로 학점 회복과목도 D나 F과목으로 한정하고 학기별 학점 회복 또는 재이수 과목도 1~2과목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학점 회복 방식은 현행 대학의 방식을 따르면 좋지만 고교학생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봄.
- 학점 회복 방법을 적용할 경우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도 탈락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됨

<2차>

- 재수강은 인원 중복이나 시간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보충학습은 일정기간은 학습지나 인터넷 강의 등으로 범위, 시간 수만 적당하고 재시험을 통해 학점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학점 이수로 인해 사교육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심화된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짐.
- 학점 회복 보다는 과목을 개설한 모든 학교에서의 평가 척도에 대한 기준과 이 기준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함(IBDP의 경우처럼)
- 학점의 성취도는 대입 또는 각종 추천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회복의 기회를 주고, 중도 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학점 회복에 상한선(B+)이 필요함.
- 2차 응답에서 2-4-3. 항목의 응답을 변경한 이유는 학생의 교육 경험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표시해야 학생지도나 대입 전형(취업) 등에 있어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함.

전문가 추가 의견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점 회복은 대학과 달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사교육 유발의 우려도 있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도 탈락 비율도 증가될 수 있어서 시기나 방법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예상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재이수 요건이나 재이수의 최고 성적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경우 문제점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2-4. 학점 회복'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의 타당성 검증 결과 및 전문가 추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 구성 형식인 <표 V-6>에 따라 '2-4-1. 학점 회복 방법', '2-4-2. 학점 회복 허용 기준', '2-4-3. 학점 회복(F학점 과목 포함)에 의한 성취도 취득 기준' 및 '2-4-4.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순서로 재구조화하였다.

이상의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2-4. 학점 회복'에 관한 교육과정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이미 취득한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점 회복을 요청하거나 과락으로 인해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보충 학습 후 재시험을 거쳐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교는 과락으로 인해 학점 취득을 희망하거나 성취도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학생이 학점 회복 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셋째, 학점 회복이나 학점을 취득을 위해 재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과목 성취도는 B+까지 취득할 수 있다.

넷째, 재시험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는 이전 취득한 성취도와 'F'를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체제는 구성 형식과 구성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교육과정 기준은 구성 형식에 따른 구성 요소가 결정되고 결정된 구성 요소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내용이 진술 및 제시됨으로써 국가 교육과정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이병호, 2009: 25).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 절차와 주요 내용 및 최종 교육과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 절차 및 주요 내용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 절차는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난점 추출, 현행 국가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 개발, 교육과정 국제 비교, 교육과정 내용 개발을 위한 델파이 문항 작성, 델파이 패널 선정 및 조사,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교육과정 기준 개발 절차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국가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데 따른 난점을 추출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운영 사례와 학자들의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교육과정의 난점과 주요 요소는 다음 <표 V-25>와 같이 추출되었다.

<표 V-25> 교육과정의 난점과 주요 요소

구분	교육과정의 난점과 주요 요소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 ¹⁹⁾	선택 과목 수 증가에 따른 교원 확보, 시간표 편성 및 운영, 학생의 진로 설계를 위한 지도 및 진로상담 교사의 배치, 교과 평가 및 대입과의 관계, 소규모학교의 내신 불이익, 과목 미 이수자 처리,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등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자료 ²⁰⁾	학점 규정, 졸업 최소 이수 학점, 과목 최소 이수 기준, 무학년제, 교과목 개설 확대, 이수 단위 고정, 속진, 유급, 낙제, 재이수, 대체 이수, 이수 면제, 과목별 위계 설정, 진로과목의 모듈화, 절대평가 도입, 학점 인정, 학점 회복과 학점 교류, 필수와 선택 과목 이수 비율, 수강 신청,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강의), 수준별 교과목 개발, 이수 경로 안내를 위한 진단 평가, 졸업 연한,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 맞춤형 학습관리, 기초학력 보장 등

둘째,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난점과 주요 요소를 토대로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기준과 추가되어야 할 기준을 재구조화하여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을 개발하였다. 국가 교육과정 분석 결과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은 [그림

19) 본 연구에 활용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2교(특별시 소재 1교, 읍 소재 1교)

20)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연구 자료 15편(논문 11편, 국가 문서 및 기타 자료 4편)

V-1]과 같다.

국가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	
▷ 수정·보완되어야 할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위 기준 ◦ 필수 이수와 자율 편성 단위 ◦ 기초 교과 이수 단위 총합의 50% 초과 제한 ◦ 과목의 기본 단위 ◦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단위(시수) ◦ 기본 단위 증감 ◦ 총 이수 단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 편성 ◦ 학기당 이수 과목 수 ◦ 과목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 자율 편성·운영 ◦ 학교 미 개설 과목 다른 학교 이수 ◦ 지역사회 학습장의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 ◦ 교과 총 이수단위 증배 ◦ 진로 선택 과목 3개 이상 이수 ◦ 중점학교의 자율 편성 단위 50% 이상 해당 교과목 편성 ◦ 직업에 관한 과정 운영 	⇒	<p>1. 학점 배당 기준</p> <p>1-1. 학점의 기준</p> <p>1-1-1. 학점의 기준</p> <p>1-1-2. 1학점 기준 수업량</p> <p>1-1-3. 과목 당 기본 학점</p> <p>1-2. 최소 이수 학점</p> <p>1-2-1.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p> <p>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p> <p>1-2-3.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량</p> <p>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p> <p>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의 배당 비율</p> <p>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p> <p>2-1. 과목 편성</p> <p>2-1-1. 학년제/무학년제 편성</p> <p>2-1-2. 위계 또는 수준별 과목 편성</p> <p>2-2. 과목 이수</p> <p>2-2-1. 학기 당 이수 과목 수</p> <p>2-2-2.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조건</p> <p>2-2-3. 이수 면제(이수 인정 평가)</p> <p>2-2-4. 학점 인정기준 및 범위</p> <p>2-2-4-1. 학점 인정 대상 기관</p> <p>2-2-4-2. 학점 인정 대상 과목</p> <p>2-2-4-3. 학점 인정 범위</p> <p>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p> <p>2-3-1. 교과 평가 방식</p> <p>2-3-2.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p> <p>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p> <p>2-3-4. 졸업 요건</p> <p>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p> <p>2-4. 학점 회복</p> <p>2-4-1. 학점 회복 허용 기준</p> <p>2-4-2. 학점 회복에 의한 성취도 취득 기준</p> <p>2-4-3.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p> <p>2-4-4. 학점 회복 방법</p>
▷ 추가되어야 할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 당 이수 시수, 수업 주수 ◦ 과목 당 이수 학점 배당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이수 비율 ◦ 무학년제 선택과목 편성 ◦ 이수 면제 ◦ 절대평가 도입 및 성적 산출 방법 ◦ 과목 이수 요건 ◦ 교과목 개설 확대 ◦ 학점 회복과 학점 교류 ◦ 졸업, 진급 요건 및 졸업 연한 ◦ 진로 미결정 학생 지원 및 수강 신청 등 		

[그림 V-1] 국가 교육과정 분석 및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

셋째,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을 비교 준거로 하여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DP를 선정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시사점을 추출하여 교육과정 구성 내용 개발을 위한 델파이 문항 작성에 반영하였다.

넷째, 델파이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델파이 조사지는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에 대한 타당도 검증 문항과 구성 형식(안)에 따른 내용 기준 및 적절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차 조사지는 1차 조사지와 동일하게 구성하되 1차 델파이 패널의 의견을 종합한 문항별 비율과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개인별 응답 결과를 기재하여 패널별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델파이 1, 2차 조사지는 <부록 1>, <부록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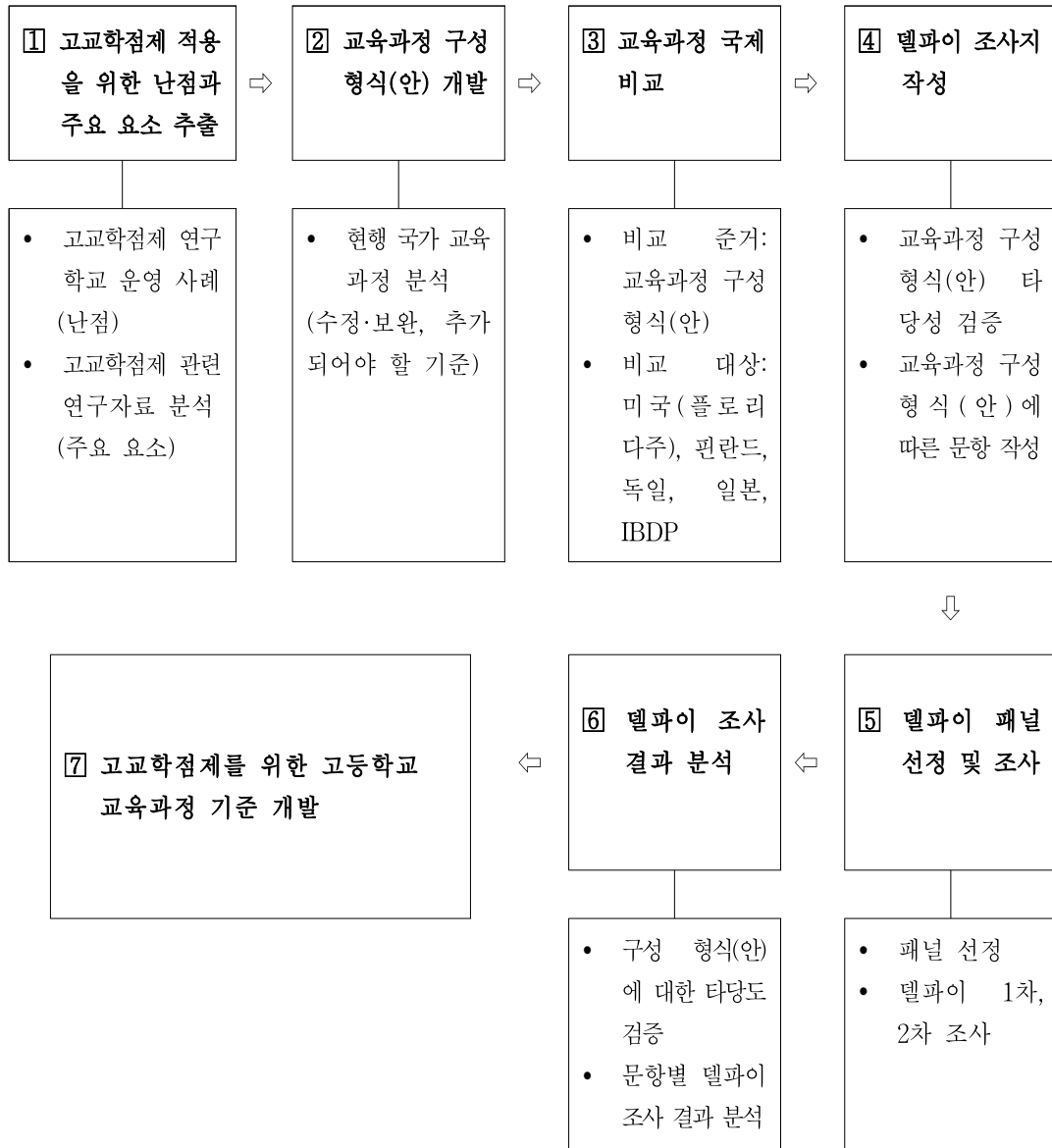
다섯째,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고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델파이 패널은 석·박사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교육과정 개발이나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강사) 또는 연구원, 고교학점제 담당 시·도교육청 장학사,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 교원으로 26명을 선정하였다. 이때에 교수(강사)·연구직과 장학사·교원의 비율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3회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본 연구에서는 1차 개방형 문항의 델파이 조사를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난점 추출 과정으로 대체하여 1차부터 구조화된 문항으로 델파이 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여섯째,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교육과정 구성 체제는 구성 형식과 구성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우선 구성 형식 개발을 위해 <표 III-10>의 구성 형식(안)에 대한 타당도 검증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성 형식(안)에 대한 타당도 검증 결과 8개의 구성 요소에 따른 25개 항목 중 3개의 항목이 타당도 비율(CVR) 최소값 이하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된 구성 형식에 있어서의 구성 요소 간의 통합과 수준을 달리한 재구조화 요구를 반영하여 최종 교육과정 구성 형식은 <표 V-6>과 같이 8개의 구성 요소에 따른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구성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문항은 <표 III-10>의 구성 형식(안)에 근거하여 8개의 구성 요소에 따른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성 내용은 델파이 패널의 반응 비율과 추가 기술된 의견을 분석하여 구성 요소에 따른 기준으로 진술하였다.

일곱째,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인 교육과정 기준은 타당도 검증 결과에 의해 확정된 <표 V-6>의 교육과정 구성 형식을 토대로 8개의

구성 요소에 따른 20개의 항목에 대해 델파이 전문가의 합의된 의견으로 진술하였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V-2]와 같다.



[그림 V-2]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 절차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은 <표 V-26>과 같다.

<표 V-26>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1. 학점 배당 기준

1-1. 학점의 기준

1-1-1.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1-1-2. 과목 당 기본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1-2.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 및 시수

1-2-1. 교과 총 이수 학점은 150-170학점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이다.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총 이수 시간은 408시간(단위 시간 50분)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시간'이다.

1-3. 필수와 선택 학점의 이수 비율

1-3. 필수 학점은 교과 총 이수 학점의 40%를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선택 학점으로 이수한다.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2-1. 과목 편성

2-1-1. 필수 과목은 학년제로하고 선택 과목은 무학년제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1-2. 위계성을 갖는 과목은 수준을 설정하여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교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2. 과목 이수

2-2-1. 학교는 학기 당 이수 과목 수를 7-8 과목으로 편성한다.

2-2-2.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2-3. 과목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하고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2-2-4.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해당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2-2-5.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밖 학습 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2-6. 학교 밖 학습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교과 총 이수 학점의 10% 이내로 한다.

2-3. 평가 및 학점 취득 요건

2-3-1. 과목 성취도는 9단계(A+, A, B+, B, C+, C, D+, D, F)로 한다.

2-3-2.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은 성취도 D이상으로 하며, 기준 시수의 일정 기준 이상 출석해야 한다.

2-4. 학점 회복

2-4-1. 학교는 이미 취득한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점 회복을 요청하거나 과락으로 인해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보충 학습 후 재시험을 거쳐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2-4-2. 학교는 과락으로 인해 학점 취득을 희망하거나 성취도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학생이 학점 회복 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4-3. 학점 회복이나 학점 취득을 위해 재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과목 성취도는 B+까지 취득할 수 있다.

2-4-4. 재시험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는 이전 취득한 성취도 및 'F'를 포함하여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2-5. 졸업 요건

2-5. 졸업을 위해서는 교과 150~170학점과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 408시간을 이수하고, 교과의 평점 평균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VI. 논의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연구 및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사례 분석,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등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전국 31개의 일반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어 엄밀한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난점을 추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17년 이후 고교학점제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개념 규정 및 일반적인 실행 방안, 외국의 운영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제언에 관한 연구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고교학점제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난점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 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학점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현행 국가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데 따른 난점을 추출하였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서는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난점을 추출하였으며, 학자들의 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서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관련된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난점은 선택 과목 수 증가에 따른 교원 확보, 시간표 편성 및 운영, 소규모 학교의 내신 불이익, 학생의 진로 설계를 위한 지도 및 진로상담 교사의 배치, 과목 미 이수자 처리,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등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난점보다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난점이 주로 제기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의 반영물(김대영, 2016)로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

어 엄밀한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질 관리에 관련된 난점보다는 운영상의 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점에 대한 개념 정의, 1학점 기준 수업량, 과목당 학점의 양,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이수 비율, 무학년제, 과목별 위계 설정, 이수 면제, 절대 평가의 도입과 성적 산출 방법, 과목 이수 요건, 재이수, 교과목 개설 확대, 학점 회복, 학점 교류, 진급과 졸업 요건 등 질적 요건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주요 요소들이 추출되었다.

둘째, 학점 배당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두 영역의 8개의 구성 요소에 따른 25개 항목의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을 개발하고, 타당도 검증 및 델파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8개의 구성 요소에 따른 20개 항목의 교육과정 구성 형식을 개발하였다. 현행 국가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따른 난점을 토대로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고교학점제를 위해 현행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추출하였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1단위의 기준은 학점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나머지 기준들은 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거나 기준을 통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외에 추가되어야 할 기준은 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항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교육과정 구성 체제는 교육과정 구성 형식과 구성 내용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과정 구성 형식은 교육과정 총론의 목차를 구성 요소로, 구성 내용은 구성 요소에 따라 진술되는 내용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교육과정 구성 형식에 있어서 구성 요소는 현행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영역의 '1. 단위 배당 기준'과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은 준용하고 하위 영역을 고교학점제 관련 구성 요소로 개발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구성 내용은 2개 영역 8개 구성 요소의 2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구성 형식에 따라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합의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우선 교육과정 구성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의 교육과정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국제 비교 준거는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을 활용했으며, 이를 준거로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

일, 일본, IBDP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델파이 1차 조사지는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문항과 교육과정 구성 내용 개발을 위한 2개의 영역과 8개의 구성 요소에 따른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해외 국가들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여 참고 자료로 제시하였다. 델파이 2차 조사지는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문항별 델파이 패널 전체의 응답률과 개인별 응답 내용을 표기하여 개인별로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구성 형식(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 2개 영역 8개 구성 요소의 25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내용 타당도 비율(CVR) 최소값 .37 이하로 나타나 타당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2개 항목은 CVR .37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당도 검증 결과와 델파이 조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타당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3개 항목을 제외하고, 2개 영역 8개 구성 요소의 20개 항목으로 최종 교육과정 구성 형식을 개발하였다.

넷째,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였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16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며,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여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은 150-170학점,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는 현행 기준 408시간을 이수한다. 필수 학점은 교과 총 이수 학점의 40%로 하며, 필수 과목은 학년제로, 선택 과목은 무학년제로 편성한다. 위계성을 갖는 과목은 수준을 설정하여 편성하며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7-8 과목으로 한다.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 밖 학습을 해당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밖 학습 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학점 인정 범위는 교과 총 이수 학점의 10% 이내로 한다. 과목 성취도는 9단계(A+, A, B+, B, C+, C, D+, D, F)로 하며, 학점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 기준은 성취도 D 이상으로 하고 출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는 이미 취득한 성적이 C 이하인 경우 성적을 향상시키거나 과락으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학점 회복 또는 학점 취득을 위한 신청을 할 경우 보충학습 후 재시험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성취도의 상한선은 B+이며, 재시험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는 이전 취득한 성취도 및 과락(F)도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졸업 요건은 교과

150-170학점과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 408시간을 이수하고 교과외의 평점 평균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의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은 양적·질적 조건을 충족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2. 논의

본 연구는 현행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난점이 무엇인지를 추출하여,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고교학점제는 해방 이후 개발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시행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기준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집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학자들 간에도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난점을 토대로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구성 형식을 개발하고,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항목이 있는가 하면 본 연구 결과와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누가 교육과정 개발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 성격이 달라졌으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김재춘, 2002: 82; 권영민, 2004:142; 백경선, 2007: 42; 소경희, 2005: 13; 홍후조, 2010: 144)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주관적 선택이나 결단이 소홀히 취급될 수 있다(곽병선, 2010: 264). 또한 제2차 교육과정에서 학점제의 성격을 지니는 단위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으로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유명무실한 단위제로 남아 있다가 논의 과정도 없이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정부는 2016년 현행 학년제에 기반한 교육과정으로는 제4차 산업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실행할 수 없어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단위제 도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양적, 질적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고교학점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교육과정 체제이

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의 소수 의견도 심도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점의 기준과 과목 당 기본 학점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50분 기준으로 16회 이수하는 수업량을 1학점으로 규정하였으나 소수 전문가의 의견으로 학기 기준이 아닌 학년 기준 혹은 그 이상의 기준으로 IBDP나 독일의 사례와 같이 1년(2학기) 혹은 2년(4학기) 이수하는 과목을 설정하는 방안과 과목 당 학점의 양(크기)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1단위의 기준을 1학점으로 대체할 경우, 학년제에서 학점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용이해 질 수 있다. 그러나 IBDP와 같이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계열성 있게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목 당 기본 학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3학점으로 합의되었으나 교과 총 이수 학점을 150-170학점으로 규정하고 학기 당 이수 과목 수를 7-8 과목을 제한할 경우 과목 당 학점의 크기를 달리하는 과목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학기 당 8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할 경우, '3학점 × 8과목 × 6학기'의 총 이수 학점은 144학점으로 150-170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학점이다. 과목 당 증감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본 학점을 3학점으로 하되 일부 과목은 학점 수를 늘려 배당하고 1년(2학기) 또는 2년(4학기) 이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실험, 실습, 실기를 주로 하는 과목에 한해서는 학점의 기준을 달리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과목의 경우,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이론과 실기의 학점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대학의 경우도 1학점은 학기 당 15시간으로 하되 실험, 실습, 실기, 체육 등은 30시간 이상으로 규정(제주대학교 규칙 1599호)하고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목 당 기본 학점을 3학점으로 배당하였으나 학기 당 이수 과목 수와 총 이수 학점을 고려한 나머지 학점 배당 기준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점(단위)의 양은 적은 반면 졸업을 위한 총 이수 학점(단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수업의 범위는 넓은 반면 그 깊이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질 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고교학점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은 과목별 이수 단위의 가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으로서의 타당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증감 규정을 둘 경우 재이수나 대체이수, 학교 간 전출입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학습량과 질이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진숙 외(2018)의 연구에서는 2학기 연속 과목의 경우, 선택 과목의 학점을 짝수화 하고 증감 규정을 적용하되 ± 1 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카네기 단위는 처음 도입될 당시 고등학교의 다양한 수업량 계산 방식을 통일하여 미국 내 상호통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경우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 기본 단위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은 학년제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고교학점제로 전환하는 과정의 완충 작용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김진숙 외(2018)의 연구에서 아직도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후속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 기준인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시수에 관한 규정이다. 김진숙 외(2018)의 연구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현행 유지 38.4%, 축소 35.7%, 확대 25.9%로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 현행 유지 1차 조사 40.0%, 2차 조사 42.3%, 현행 보다 감소 1차 조사 32.0%, 2차 조사 30.8%, 현행 보다 증가 1차 조사 28.0%, 2차 조사 26.9%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유지, 현행 보다 감소, 현행 보다 증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보다 감소 또는 증가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중에는 오히려 앞으로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증가시키고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숙 외(2018)의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수업 시수 적정화 방안으로 비교과 활동의 시수를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감축 대상 1안은 창의적 체험활동 위주의 감축, 2안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고른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 학점 축소 쟁점의 개선 방향

과 적정화 방안'으로 비교과 활동의 시수를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교과 중심의 감축에 따른 부담과 논란을 피해가려는 관행으로 볼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른 수업 시수 감축은 1학년 재량활동에서, 2, 3학년은 교과에서 주당 1시간 분량(2단위, 34시간)을 감축하였으며(교육부, 2017a: 317), 2008년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로 보건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정하면서도 경과 조치로 1학년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7시간 이상 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17b: 318).

우리나라 교육과정 편제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질 관리는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도 중요하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은 형식적으로 물리적 시간만을 충족함으로써 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한 IBDP의 비교과 활동인 창의활동(Creativity), 신체활동(Action), 봉사활동(Service)의 CAS는 교육과정의 주변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도 중핵적으로 운영되는 점(박하식 외, 2013)을 고려한다면,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핵심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 이수 비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이수 비율과 관련하여 필수 이수 비율은 40%가 적정하다고 제시하였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필수 이수 94단위, 자율 편성 86단위로 필수 이수 비율 약 52%, 자율 편성 48%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는 학생 선택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사례 중 B 고등학교의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적인 학생 선택은 제2외국어 과목에 한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적용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면 필수 이수율과 선택 이수율의 비율이 교육과정 편성뿐만 아니라 운영 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선택 이수율의 확대한다면 대도시와 읍면지역간의 교육 여건의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필수 이수율의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은 축소되는 반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시간표 구성, 교사 수급 등)은 용이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서는 후속 지원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과목 편성과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관한 문제다.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학년제 혹은 무학년제 편성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나 학생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의 이수 경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학교별로 이수 경로를 제시할 때에는 과목에 따라 위계나 수준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진로, 흥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진로가 고려되지 않은 무학년제의 편성은 학생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뿐이다(홍후조, 2018). 허경철(2017)은 무학년제의 기본 정신은 학생 선택 영역의 확대로 무학년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과목이 다양화되어야 하며, 교과 내용은 난이도에 따라 여러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각 단계는 하나의 과목 형태로 위계화된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교과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흥미를 고려하여 과목에 따라 단계나 위계를 고려한 교과목 이수 경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도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확대할 경우 학교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학교에서 개설하기 곤란한 과목에 한정하여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10%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 범위가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도 있다. 선택 이수 학점 비율이 높아지면 대도시와 읍면지역간의 교육 여건의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도 연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배당 시간 수가 적은 과목들이 다수 발생할 경우 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후속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과목 이수 기준과 졸업 요건으로서의 출석에 관한 문제다. 고교학점제는 양적·질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제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

여 이수하고, 과목별 이수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현행 국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3년 동안 1단위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408시간)를 이수하고, 출석 일수의 2/3이상 출석하면 졸업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졸업 인정 여부의 판단은 학교장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출석 요건만으로 결정되고 있어 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석 요건을 총 수업 일수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과목 이수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대학의 경우도 과목 당 출석 시수의 3/4이상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학점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제주대학교 규칙 제14603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애 외(2018)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성취도의 단계 설정이나 최소 이수 기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미 이수 처리 여부와 미 이수자의 재수강 허용 및 의무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으로 성취도뿐만 아니라 출석 요건을 추가하여 설정하였으며 과락(F)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치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여덟째, 학점 미 취득자의 학점 취득과 학점 회복에 관한 문제다. 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락을 두는 방안은 본 연구와 이명애 외(2018)의 연구에서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과락으로 인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학점 취득 방법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단위학교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요건이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사례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매뉴얼(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에 따르면,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학업 보충기회를 제공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수 요건을 강화할 경우 중도 탈락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추론된다. 그러나 학점 미 취득자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질 관리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점 미 취득자의 학점 취득 방법과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학점 회복은 학점 미 취득자를 포함하여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한 학점 취득이나 졸업 요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미국(플로리다주)은 학점 회복에 관한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핀란드는 미국(플로리다주)과 달리 이미 취득한 과목의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성취도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Fi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

본 연구에서는 학점 회복 신청 및 취득할 수 있는 성취도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대학입시와의 연계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평가 제도와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홉째, 형평성과 수월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점제 도입을 밝힌 이후 수행된 구자익·남궁지영(2011: 10)의 연구에서는 이수 인정 평가 시험(Placement Test)제를 도입하여 학습 결손 학생과 우수학생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전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점제 운영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7년 교육부가 제시한 학점제형 최종 완성 모형에서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필요에 따라 수준 높은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교육부가 제시한 완성 모형은 영역별, 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개인별 수준별 교육과정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 연구학교 운영 사례 및 학자들의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 자료 분석, 현행 국가 교육과정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 구성 형식을 개발하고, 이를 비교 준거로 하여 교육과정 국제 비교를 통해 교육과정 구성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문항을 작성하고,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국가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고교학점제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난점은 학점 당 수업량,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이수 비율, 무학년제, 과목별 위계 설정, 이수 면제, 절대 평가의 도입과 성적 산출 방법, 과목 이수 요건, 교과목 개설 확대, 학점 회복, 학점 교류, 진급과 졸업 요건, 진로 미결정 학생 지원 및 수강 신청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난점은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 요소로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해서는 현행 국가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대한 전면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난점들은 교원 확보, 시간표 편성 및 운영, 학생의 진로 설계를 위한 지도 및 진로상담 교사의 배치 등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점들을 분석하여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이 마련되고,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의 양적·질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내용 기준 뿐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규정할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 기준 문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형식이 기존의 국가 교육과정 형식과 달리 규정된다면 단위 학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면 총론의 규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행 국가 교육과정의 총론의 형식은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하위 영역으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성 요소를 설정하여 구성 형식을 개발하였다. 즉 학점의 기준,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 및 시수, 필수와 선택 학점의 이수 비율, 과목 편성, 과목 이수, 평가 및 학점 취득 요건, 학점 회복 및 졸업 요건으로 이러한 기준은 질 관리를 위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구성 형식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내용은 구성 요소에 따라 진술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구체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은 1학점의 기준 수업량, 총 이수 학점의 양, 이수 과목 수 및 필수 이수 학점 비율을 현행 국가 교육과정 기준 보다 축소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과목의 위계 설정, 무학년제 편성 및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며,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과목 이수 요건과 졸업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교육과정의 양적·질적 조건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의 주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2차 교육과정 이후 현재까지 학년제에 근거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않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의 기준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있어서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타당하지 않으나 학년제에서 학점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완충작용으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견해차가 있었으며, 학점의 기준이나 과목 당 학점의 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연구 내용에 있어서도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학점제의 도입에 따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교육부는 현행 학년제에 기반한 교육과정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실행할 수 없어 학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학점제 성격의 단위제를 도입하면서 예외 조항으로 학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단위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에 따른 세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교과 총 이수 학점 수(본 연구에서는 150~

170 학점),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요건, 학교 밖 학습을 학점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의 요건, 과목 이수를 위한 출석 시수, 졸업을 위한 평점 평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교과 총 이수 학점의 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1학점의 기준, 과목 당 기본 학점 수, 학기당 이수 과목 수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는 150~170 학점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이수 학점의 양을 결정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기각된 항목이나 소수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그동안 시행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전문가 의견은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판단되며 이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고교학점제 구성 형식의 타당성 검증에서 기각된 학생의 교과 평가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쟁점 사항으로 학생의 교과 평가와 대학입학제도와 연계성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학생의 교과 평가와 관련하여 과목 이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영역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특히 교과 평가와 대입과의 관계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간 연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하여 형평성과 수월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 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를 연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학교 운영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는 진로 미결정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후 진로를 결정하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로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를 연계하여 중학

교 단계에서 진로의 영역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에 대한 기초적인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운영은 물론 진로상담 교사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며, 이 외에도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이 제대로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현석(2003). 외국의 선택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 및 정책상의 함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327-356.
- 고등교육법(법률 제15552호).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2호).
- 곽병선(2010).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의 탐색. 한국교육과정학회(편). **교육과정: 이해와 개발**(pp. 263-286). 서울: 교육과학사.
- 교육과학기술부(2009a).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09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10). 기초·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 교육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07-79호.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교육부(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 교육부(2017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 교육부(2017b).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 교육부(2018).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매뉴얼.
- 교육인적자원부·경상남도교육청(2008).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 구자익·남궁지영(2011). 학점제 도입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11-03-5.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2017. 12.)
- 권영민(2004).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체제 분석: 1954년~1997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김대영(2013). 한국 교육과정 연구의 역사 I: 1945-1987. **교육과정연구**, 31(4), 1-26.

- 김대영(2014). 교육과정 연구 패러다임 비교·분석: Jürgen Habermas의 사회지식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2(1), 1-23.
- 김대영(2016). 대학 융합교육의 허와 실. **대학교육**, 193, 64-69.
- 김대영(2018). 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인가?: 평가의 공정성 vs 교육 거버넌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제주공교육 도입 의견 수렴을 위한 쟁점 토론회 자료집, 55-63. 10월 23일. 제주: 제주관광공사.
- 김대영·우옥희(201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과정재구성 담론의 재구성.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6), 9-16.
- 김란주·서경혜(2018). 고교학점제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과정연구**, 36(1), 113-138.
- 김병찬(2017). **왜 핀란드교육인가?**. 서울: (주)피와이메이트.
- 김영은·김성혜·박도영, 변태진(2018).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 국내·외 사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8-67, 3-64.
- 김재춘(2002). 국가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7차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0(3), 77-97.
- 김정빈(2017).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초 논의.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10-51. 9월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김정빈·김수영·함영기(2017).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김진숙(2006). 제7차 교육과정의 문서 체재(體裁) 개선 연구. **교육과정연구**, 24(1), 121-151.
- 김진숙·이광우·조보경·이민형·이수정·임유나(2018).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수업시수 적정화 방안. 연구자료 ORM 2018-61.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부.
- 김혜영·홍후조(2018). 미국 고교학점제의 특징과 한국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정책적 함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6(1), 245-277.
- 김희규(2010). 학점제 도입 방안.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평가교육학회 연구자료 ORM 2010-28, 13-45. 7월 30일.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
- 더불어 민주당(2017). 나라를 나라답게.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2017.4.)

- 문교부(195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문교부령 제35호.
- 문교부(1963).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121호.
- 문교부(1967).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181호.
- 문교부(1974).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50호.
- 문교부(1981).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442호.
- 문교부(1988).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88-7호.
- 박균열·김대영·김주아·류성창·이인수·주영호(2018).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운영체제 및 학교 문화 혁신 방향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부권(2008). 일본의 고교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노력: 단위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12(1). 47-76.
- 박하식·김대영·홍후조(2013). 한국 외국어고등학교에서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교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연구. **비교교육연구**, 23(6), 135-162.
- 백경선(2007). 국가교육과정기준 개발에서 사회적 요구 반영 체제 연구. **교육과정연구**, 25(2), 37-62.
- 백경선·이영아·이동엽·김사훈·김대석(2013).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수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연구보고 CRC 2013-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소경희(2005). **교육과정 개발: 주요 쟁점 및 새로운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소경희·채선희·정미경(2000).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비교 연구 (II): 주요국의 학교 교육과정·교육평가 운영 실태 분석. 연구보고 RRC 2000-6-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손찬희·정광희·박경호·최수진·양희준·전제상·류호섭(2017). 학생 맞춤형 선택학습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2017-20. 한국교육개발원.
- 신경희(2014).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우옥희·김대영(2018).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18 한국 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원위원회 자료집, 39-55. 6월 23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 유현실(2009). 진로상담의 성과준거에 관한 델파이 연구. **상담학연구**, 10(4), 2187-2206.
- 이광우(2006). 일본, 영국, 뉴질랜드, 한국의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체제에 관한 일

- 고.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1(2), 67-91.
- 이광우·김진숙·이근호·한혜정·이주면·김경자·형인이(2017). 학습자 중심의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점제 실행 방안 탐색. 연구자료 ORM 2017-9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호·이경언·김현미·김현수(2018).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연구자료 ORM 2018-6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실(2010). 일본 단위제고등학교 제도. 현안보고 OR 2010-05-1. 한국교육개발원.
- 이명애·박혜영·성경희·양길석·임해미(2018).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교육평가 쟁점 및 평가 방안. 연구자료 ORM 2018-6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미숙·변희현·최홍원·김평국·성열관(2008). 국가교육과정의 체제 혁신 방안 연구 (I). 연구보고 RRC 2008-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병호(2009).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 체제 개선 방안. **교육과정연구**, 27(4), 21-45.
- 이성호·강경석·임경택(1989).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승미·박순경·권유진·민재원·손지현·이병호·정수임·황은희(2013). 국가 수준 교육과정 형식 체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CRC 2013-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정복(1980). 단위제에 관한 일 연구. **교육개발**, 2(6), 40-46.
- 이종성(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춘식(2014). 검인정 교과서의 선정 제도 개선을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18(3), 561-578.
- 임광국(2017). 고교학점제 운영의 해외사례: 미국, 독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책토론회집. 77-128. 9월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임유나(2014).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형식과 내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임유나·홍후조(2014). 국제비교를 통한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 구성 체제의 개선. **한국교육학연구**, 20(1), 41-66.
- 임현정·정광순·정진영(2011). 교육과정 문서체제 비교: 미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1(5), 105-126.
- 정광희·김주아·박승재·손찬희·이재덕·김진숙·임유원(2016). 다양한 진로수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 운영체제 혁신 방안: 일반고 선택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체제 혁신 방안. 연구보고 RR 2016-27. 한국교육개발원.

- 정광희·김주아·손찬희·이재덕(2017).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진로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35(4), 201-229.
- 정광희·조석희·소경희·권순한(2006). 일반계 고교 운영체제 다양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영근(2018).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에서 보는 몇 가지 시사. 2018년 9월 한국교육과정학회 월례 학술 세미나 자료집, 31-35. 9월 29일. 서울: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 정영근·박순경·이광우·김진숙·민용성·이근호·백경선·한혜정·이승미·김영은·이수정(2018).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의 접근과 적용 실제 탐색. 연구자료 ORM 2018-42. 3-6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영근·서근원·주철안·황성원·조재식·남궁상운(2009). 국가 교육과정 관련 문서 체제 개선 연구. 연구보고 RRI 2009-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현영·손민호(2018). 호주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남호주 Norwood High School의 교과목 편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6(1), 197-220).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4603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03호).
- 최정희(2014). 단위제 교육과정 도입과 적용과정의 문제점. **교육종합연구**, 12(4), 43-69.
- 최정희·이길상(2015). 미국, 일본, 한국의 단위제 교육과정 비교 연구. **교육문화연구**, 21(5), 39-63.
- 이근호(2013). 2013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 동향 연구: 독일·러시아·영국·프랑스·핀란드. 연구자료 ORM 2013-97-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함종규(2003).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조선조 말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서울: 교육과학사.
- 한철순·현종익(1980). 단위제 실시에 관한 문제점 조사연구: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논문집 제12집**, 397-412.
- 허경철(2014). 무학년·학점제의 시행을 위한 조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칼럼** (2014.3.18.).
- 허경철(2017). '고교 학점제' 도입을 생각하며.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칼럼**(2017.4.19.).
- 현영섭·권대봉(2007).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대상의 델파이 조사에 기초한 평생교육기관경 영의 변화 동향. **HRD연구**, 9(1), 1-26.

- 홍후조(1999). 고등학교 “단위제” 운영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연구. 연구자료 ORM 99-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홍후조(2010).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연구 개발에서 학습자 집단의 요구분석을 위한 영역과 항목 설정 연구. *교육과정연구*, 28(2), 143-175.
- 홍후조(2011). *알기 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홍후조(2017). 학습자 중심의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점제 실행 방안 탐색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7-92, 33-38. 10월 27일. 서울: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
- 홍후조(2018). 고교 학점제 도입의 문제와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699-724.
- 황준성 · 박균열 · 김규식(20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IP 2017-01.
- 文部科學省(2017).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
- 文部科學省(2018). 新しい學習指導要領の考え方: 中央教育審議會における議論から改訂そして実施へ.
-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2014). 50-State scan of course credit policies.
- Ewell, P. T.(2016). The federal definition of the credit hour: A potential lever for change?. *Assessment update*, 28(4), 10-11.
- Fi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16).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general upper secondaryschool 2015.
-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2017a). Secondary student progression: 2017-2018 frequently asked questions.
- Gerhard, D.(1955). The emergence of the credit system in American education considered as a problem of social and intellectual history.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Bulletin*, 41, 647 - 668.
- Goodlad, J. I.(1969). Curriculum: State of the Field.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39.

- Hargreaves, A. & Shriley, D.(2015). **학교교육 제4의 길**[The Fourth Way: The inspiring future of educational change]. (이찬승 · 김은영 역). 서울: 교육을 바꾸는 책. (원전은 2009년에 출판)
- Harris, J.(2002). Brief history of American academic credit system: a recipe for incoherence in student learning. *ERIC ED 470 030*.
- IBO(2014a).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a guide to curriculum development.
- IBO(2014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a guide to assessment.
- IBO(2015a).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standard level and higher level courses.
- IBO(2015b). The diploma programme
- IBO(2015c). The IB: an historical perspective.
- IBO(2015d).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IB.
- Kliebard, H. M.(1970). The Tyler rationale. *The School Review*, 78(2), 259-272.
- Kliebard, H. M.(1995). *The struggle for the American curriculum: 1893-1958*. NY: Routledge.
- Lagemann, E. C.(1983). *Private power for the public good: a history of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Lawshe, C. H.(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 563-575.
- Levine, A.(1978). *Handbook on undergraduate curriculum*. CA: Jossey-Bass.
- Raubinger, F. M., Rowe, H. G., Piper, D. L., & West, C. K.(1969). *The development of secondary education*. NJ: Macmillan.
- Schubert, W. H.(1986). *Curriculum: Perspective, paradigm, and possibility*. New York: Macmillan.
- Schubert, W. H., Lopez Schubert, A. N., Thomas, T., & Carroll, W. M.(2002). *Curriculum books: The first hundred years*. New York: Peter Lang.

- Shedd, J. M.(2003). The history of the student credit hour.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122. 1-12.
- Silva, E. & White, T.(2015). The carnegie unit: past, present, and future. *The Magazine of Higher Learning*, 47(2), 68-72.
- Silva, E., White, T., & Toch, T.(2015). *The Carnegie unit: a century-old standard in a changing education landscape*. CA: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 Tyack, D. & Cuban, L.(1996). Tinkering toward utopia: a century of public school reform.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0(3), 486-488.
- Tyack, D. & Tobin, W.(1993). The grammar of schooling: why has it been so hard to chang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1(3), 453-479.
- Walker, D. F.(1971). A Naturalistic Model for Curriculum Development. *The School Review*, 80(1), 51-65.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33호, 1952. 4. 23. 제정).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KeywordSearch.do>에서 2018. 11. 28. 인출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41호, 1956. 3. 27. 일부 개정).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KeywordSearch.do>에서 2018. 11. 28. 인출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331호, 1972. 8. 26. 일부 개정).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KeywordSearch.do>에서 2018. 11. 28. 인출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213호, 1981. 2. 28. 일부 개정).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KeywordSearch.do>에서 2018. 11. 28. 인출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537호호, 1995. 2. 28. 일부 개정).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KeywordSearch.do>에서 2018. 11. 28. 인출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291호, 1983. 12. 30. 일부 개정).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KeywordSearch.do>에서 2018. 11. 28. 인출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665호, 1998. 2. 24. 제정).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KeywordSearch.do>에서 2018. 11. 28. 인출

매일경제(2018. 2. 9.). 충남의 공교육 혁명 “객관식시험 이제 그만”: 중등 교육과정에 IB

-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첫 도입.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95429>에서 2018. 9. 25. 검색.
- 법령안 입법예고(문교부 공고 제83-29호, 1983. 11. 22.).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KeywordSearch.do>에서 2018. 11. 28. 인출
- 오마이뉴스(2018. 9. 5). 대구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 선언: 제주-충남도교육청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추진... IB본부와 곧 협상 착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917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에서 2018. 9. 25. 검색.
- 정수정(2018). 독일의 고교학점제: 김나지움 오버슈투페 운영방식.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68&nTbCategorySeq=&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8017&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에서 2018. 4. 30. 검색.
- 제주대학교 학칙(규칙 제1599호, 2018. 3. 29. 개정). <http://www.jejunu.ac.kr/schoolinfo/rules/rule>에서 2018. 11. 1. 검색
- 조선일보(2018. 9. 10.) 토론식 수업, 논술형 시험... IB실험 통할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0/201809100016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에서 2018. 9. 10. 검색.
- 2017 Florida Statutes(1003.436 Definition of credit).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Search_String=&URL=1000-1099/1003/Sections/1003.4282.html에서 2018. 5. 10. 검색.
-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2017b). Graduation requirements for Florida's statewide assessments. <http://www.fldoe.org/core/fileparse.php/7764/urlt/GradRequireFSA.pdf>.에서 2018. 3. 26. 검색.
- Florida Statutes and State Board of Education Rules(2014). <http://www.fldoe.org/ese/pdf/1b-stats.pdf>.에서 2018. 4. 25. 검색.
- IBO(n.d.). DP Online. <https://www.ibo.org/programmes/diploma-programme/dp-online/>에서 2018. 5. 29. 검색.

- IBO(n.d.). Curriculum. <https://www.ibo.org/programmes/diploma-programme/curriculum/>에서 2018. 5. 1. 검색.
- IBO(n.d.). Diploma Programme courses online. <https://www.ibo.org/programmes/diploma-programme/dp-online/diploma-programme-courses-online/>에서 2018. 9. 26. 검색.
- IBO(n.d.). IB opens new IB Assessment Centre in Wales, UK. <https://www.ibo.org/news/news-about-the-ib/ib-opens-new-ib-assessment-centre-in-wales-uk/>에서 2018. 9. 25. 검색
- IBO(n.d.). Office locations. <https://www.ibo.org/contact-the-ib/office-locations/>에서 2018. 9. 25. 검색.
- IBO(n.d.). Office locations. <https://www.ibo.org/contact-the-ib/office-locations/>에서 2018. 9. 25. 검색.
- Silva, E.(2013). The carnegie unit-revisited. <http://www.carnegiefoundation.org/blog/the-carnegie-unit-revisited/>에서 2018. 3. 7. 검색.
- The Glossary of Education Reform(2013a). Carnegie unit. <http://edglossary.org/carnegie-unit/>에서 2018. 1. 8. 검색.
- The Glossary of Education Reform(2013b). Credit. <http://edglossary.org/credit/>에서 2018. 1. 8. 검색.
- White, T.(2013). Giving Credit Where Credit's Due: A 50-State Scan of Course Credit Policies. <https://www.carnegiefoundation.org/blog/giving-credit-where-credits-due-a-50-state-scan-of-course-credit-policies/>에서 2018. 4. 5. 검색.

<부록 1>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 관한 1차 델파이 조사지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 관한 델파이 조사(1차)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과정 박사과정생 우옥희입니다. 본 설문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로 연구자의 박사 학위 논문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 공약으로 2022년 전면 도입을 예정하였으나 교육부는 2018년 8월 17일 2022년 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여 2018년 현재 연구학교 54교(일반계 31교, 직업계 23교)와 선도학교 51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수 단위를 학점으로 하여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학년 단위 진급·졸업이 아닌 학점을 기준으로 양적·질적 졸업 요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전반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학교들은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어 엄밀한 고교학점제의 적용에 따른 난점을 추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된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난점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을 개발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사에서 실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고찰한 후 연구자가 개발한 구성 형식(안)을 준거로 비교 분석하여 고교학점제 관련 구성 요소별 문항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내용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2차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사지는 문항별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차 조사지는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하되, 문항별 구성 내용은 1차 조사지와 동일합니다.

본 조사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응답방법: 보내드린 조사지에 응답하신 후 저장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 수신자: 우옥희(wooky@korea.kr) / 010-5097-2429
- 1차 조사 기한: **2018. 10. 4.(목)까지**

2018년 9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과정 전공
박사과정 우옥희
지도교수 김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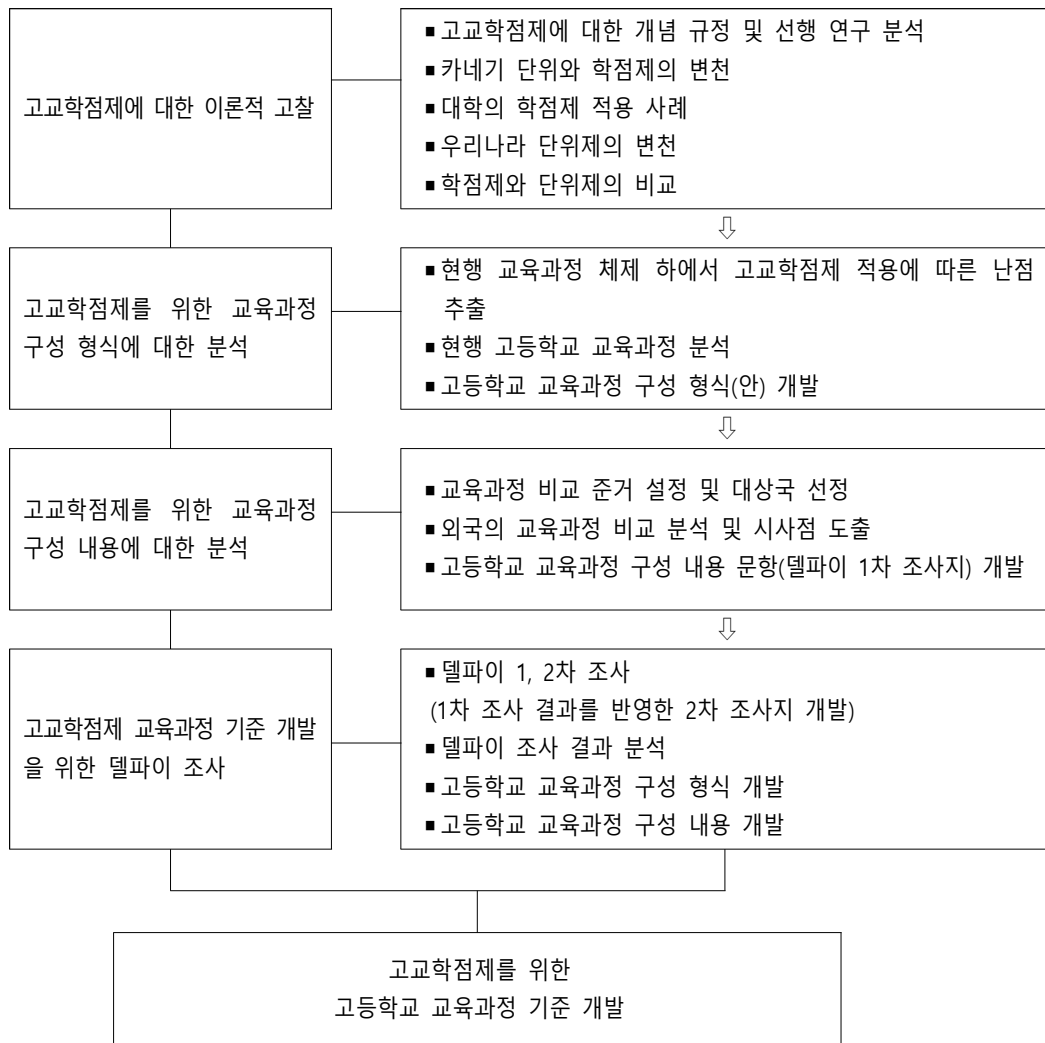
델파이 조사 참여 승낙서

※ 본 연구의 취지에 따라 델파이 조사 참여를 승낙합니다.

성명		
전공		
최종 학력	석사(), 박사과정(수료)(), 박사()	
소속 기관		
경력	약 년	
연락처	우편물 수령 주소	
	휴대폰	

[참고]

본 연구는 [그림]과 같이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로 일반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지는 교육과정 구성 형식 개발을 위한 **고교학점제 관련 구성 형식의 타당성에 관한 문항**과 교육과정 구성 내용 개발을 위한 **2개의 영역과 8개의 구성 요소에 따른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해외 국가들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여 참고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설문 응답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연구 체계도

※ 'I. 고교학점제 관련 구성 형식의 타당성'에 대한 아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시고, 영역별로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I. 고교학점제 관련 구성 형식의 타당성

구성 형식		타당성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대체로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1. 학점 배당 기준	1-1. 학점의 기준	1-1-1. 학점의 기준						
		1-1-2. 1학점 기준 수업량						
		1-1-3. 과목 당 기본 학점						
	1-2. 최소 이수 학점	1-2-1.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평가유무)						
		1-2-3.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량						
1-3. 과목 당 학점 배당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의 배당 비율							
		※ '학점 배당 기준' 영역 구성 요소로서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의견]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2-1. 과목 편성	2-1-1. 학년제/무학년제 편성						
		2-1-2. 위계 또는 수준별 과목 편성						
	2-2. 과목 이수	2-2-1.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2-2-2.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조건						
		2-2-3. 이수 면제(이수 인정 평가)						
		2-2-4. 학점 인정 기준 및 범위	2-2-4-1. 학점 인정 대상 기관					
			2-2-4-2. 학점 인정 대상 과목					
	2-2-4-3. 학점 인정 범위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2-3-1. 교과 평가 방식						
		2-3-2.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						
		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						
		2-3-4. 졸업 요건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2-4. 학점 회복	2-4-1. 학점 회복 허용 기준						
		2-4-2. 학점 회복에 의한 성취도 취득 기준						
2-4-3.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2-4-4. 학점 회복 방법								
		※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영역 구성 요소로서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의견]						

※ 'Ⅱ. 고교학점제 관련 구성 내용'에 대한 아래 문항에 대해 국제비교 자료를 참고하여 귀하의 의견을 아래 빈칸에 표시(v)해 주시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또한 구성 형식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 진술하여 주시고, 수정하거나 삭제 및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칸에 적어 주십시오.

Ⅱ. 고교학점제 관련 구성 내용

1. 학점 배당 기준

1-1. 학점의 기준

<참고> '학점의 기준' 관련 국제 비교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1-1. 학점의 기준	1-1-1. 학점의 기준	회(학기)	1년	학기	※ 학기	1년	※ 2년
	1-1-2. 1학점 기준 수업량	17회	135시간	과목 당 38차시	※ 4학기	35차시	※ 과목별 시간
	단위 수업 시간	50분	1시간	최소 45분 이상	정해져 있지 않음 (초등 45분)	50분	SL 150시간, HL 240시간
	편제 단위	단위	Credit/Carnegie Unit	과목(Course)	시간/학기	단위	시간
	연간 수업 주수	34주	27주(주5일 환산)	38주(주5일 환산)	약38주(주5일 환산)	35주	35주
	주당 수업 시간	35시간	30시간 (주5일 27주 환산)	30시간 내외	주당 30시간 내외 (자격 단계)	30시간	30시간
	연간 수업 일수	190일	180일	190일	평균188일	최소175일, 평균 190-210일	176일
	수업 연한	3년	4년 기본, 조기 졸업 및 1년 연장 가능	3년 기본, 2-4년 가능	3년 기본(자격단계 2년), 2-4년 가능	3년 기본, 예외 (다음년도 1학기말 까지 이수, 학년말 졸업)	2년
1-1-3. 과목 당 기본 학점	공통 과목 8단위 선택 과목 5단위	필수 1학점 (2과목은 각 0.5학점) 선택 0.5, 1, 2학점	과목별 38차시	핵심 5과목×4학기(20강좌), 다른 교과목 20강좌 ※ 1학기 10과목 (능력과목 2) 이수	필수 2-4단위(체육 제외) 선택 2-4단위(리수, 교과 제외)	SL 150시간 HL 240시간 TOK 100시간 EE 40시간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1-1-1. 학점의 기준(1시간 수업 50분 기준은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기 기준 (현행은 회수)	학년 기준				
1-1-2. 1학점의 기준 수업량은 어느 정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6회 (혹은 주)	17회 (혹은 주) (현행)	32회 (혹은 주)	33회 (혹은 주)	34회 (혹은 주)	

1-1-3. 과목당 기본 학점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체능 예외	3학점	4학점	5학점	6학점	기타	
※ 학점의 기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주십시오.						
[의견]						

1-2. 최소 이수 학점

1-2. 최소 이수 학점						
<참고> '최소 이수 학점' 관련 국제 비교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1-2-1. 교과 최소 이수 학점	180단위	24학점	75과목	38강좌(2년) ※ 1과목 4학기 편성(4강좌)	74단위	SL 3, HL 3 (SL 2, HL 4) TOK, EE 140
시간 환산	180×17×50/60 =2,550	24×135 =3,240	75×38×60/60 =2,850	38×(30×50/60)×2 =1,900 ※ 1시간 50분 산정	74×35×50/60 =2,158.3	(150×3+240×3)+140 =1,310 (150×2+240×4)+140 =1,400
3년 환산	2,550시간	2,430시간	2,850시간	2,850시간	2,158.3시간	1,965/2100시간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	단위(시간)				단위 ※ 총 이수 단위 미포함	시간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량	24단위(408시간)				특별활동은 HR 포함 졸업 시 까지 30단위 이상	CAS ²¹⁾ 150시간
시간 환산	24×17×60 =408 24×17×50/60 =340				30×35×50/60=875	150×3/2=225
3년 환산	408(340)				875	225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1-2-1. 교과 최소 이수 학점(기본 수업 연한 3년 기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학점은 17회(50분 수업)로 산정함	2100시간 이하 (약 150 학점)	2100~2400시간 (약 150~170학점)	2400~2550시간 (약 170~180학점)	2550~2800시간 (약 180~198학점)	2800시간 이상 (약 198 학점) 이상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는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점으로 규정 시 학점 이수 조건(평가) 충족	이수 학점	이수 시간				
1-2-3.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량은 어느 정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보다 감소	현행 유지	현행 보다 증가			

21) 창의활동(Creativity), 신체활동(Action), 봉사활동(Service)

<p>※ 학점의 기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주시시오.</p> <p>[의견]</p>					

1-3. 과목 당 학점 배당

<p><참고> '과목 당 학점 배당' 관련 국제 비교</p>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1-3. 과목 당 학점 배당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공통 -2 선택 ±2~3				필수(수학I, 영어회화I) 2단위까지 감가능	
	필수 과목 수	7과목 (공통과목)	영어(1-4, 4년 4학점) 외 9과목	47-51과목, 진로 과목 필수 이수 ※ 5-6학기제로 과목별 6-7주 집중 이수	28강좌(6과목 4학기 편성, 2과목 2학기 편성)	14-15과목	TOK, EE, (6과목)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1-3. 과목당 기본 학점에 대해 증감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체능 예외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p>※ 과목 당 학점 배당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주시시오.</p> <p>[의견]</p>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p><참고>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관련 국제 비교</p>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필수 94단위 선택 86단위	필수 이수 16학점 선택 이수 8학점	필수 이수 47-51 과목 나머지 선택(응용 10 과목, 나머지 심화)	필수 이수 28강좌 선택 이수 12강좌	필수 38-46단위 ²²⁾ 선택 26-34단위	필수 2(TOK, EE), 선택 6과목
비율 환산	필수 52.2% 선택 47.8%	필수 66.7% 선택 33.3%	필수 62.7-68.0% 선택 32.0-37.3%	필수 70% 선택 30%	필수 55.9-64.8% 선택 33.2-44.1%	※ 시간수 환산 필수 10-11% 선택 89-90%

22) 종합적 탐구시간 제외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필수 30% 선택 70%	필수 40% 선택 60%	필수 50% 선택 50% (현행)	필수 60% 선택 40%	필수 70% 선택 30%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의 배당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의견]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2-1. 과목 편성

<참고> '과목 편성' 관련 국제 비교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2-1 과목 편성	2-1-1. 학년제/ 무학년제 편성	학년제	영어(학년제) 제 외한 과목 무학 년제	무학년제	※ 학기단위 편성	학년제/무학년제 (단위제고등학교)	시간단위 편성
	편성 과목 수	필수 과목 7 선택 과목 93	핵심 학과군(필 수) 731, 기타 학 과군(선택 과목) 368 과목 필수 과 목은 Honors, 재수 강 과목 제시	(학교 사례) 필수 과목 60-62 심화 과목 65 응용 과목 약 70 (학교 개설)	필수 영역 21 선택 영역 19 ※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필수 과목 15-16 선택 과목 40-41 ※ 학교 설정 교과 20단위 초과 안 됨	6개 교과군 32 과목 TOK, EE
	2-1-2. 위계 또 는 수준별 과목 편성	수학, 영어, 과학 탐구 과목, 제2외 국어와 한문 I,II 구분	모든 과목 3단계 수준(기초/정규/ 우등), 영어는 학 년 위계, 수학은 내 용 수준 위계	필수, 심화, 응용 과목으로 구성 과목별 14단계 구 분	각 과목은 기초 와 심화 수준 구 분	수학, 이과, 예술 등 기초와 일반 또 는 I,II,III 구분	교과 군별 HL 과목 과 SL 과목 편성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필수과목 선택과목 모두 학년제	필수과목 학년제 선택과목 무학년제	필수과목 무학년제 선택과목 학년제	필수과목 선택과목 모두 무학년제		
2-1-1.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은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1-2. 모든 과목은 난이도에 따라 위계 또는 수준을 설정(예: 기초/보통/심화)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 과목 편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의견]						

2-2. 과목 이수

<참고> '과목 이수' 관련 국제 비교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2-2. 과목 이수	2-2-1.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8과목 이내(체육, 예술, 생활, 교양 교과 제외)	6-7과목(1년)	5-6과목	10 과목	12-15과목	6 과목
	과목 이수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총 이수 단위의 50% 초과 안 됨	필수 학과군 16학점 선택 학과군 8학점 이수, 필수 교과군의 과목도 선택과목으로 이수 가능, 반드시 1학점은 온라인 강좌 이수, 선수 과목 이수 및 이중학점 신청 시 제한 조건 있음	필수 47-51과목, 심화 10과목 이수,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과목 이수 가능 ※ 5-6학기제로 과목별 6-7주 집중 이수, 선수 과목 이수 규정 있음	아비투어 시험 과목 2년 연속 수강 4학기 동안 38개 강좌 이수하고 내신에 포함될 35개 강좌 선택 필수 이수 과목은 과목군으로 주어지며 그 중 선택하여 필수 또는 선택 과목으로 이수	공통 필수 11과목, 선택 필수 4-5과목 이수 ※ 교육과정 유형중 하나 선택	1-5 교과군에서 과목 이상 이수, 예술 대신 다른 5개 교과군에서 대체 이수 가능, HL 과목은 3과목 (4과목 이하), 나머지는 SL 과목 이수, TOK, EE 이수
2-2. 과목 이수	2-2-2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조건	위계성을 갖는 과목은 계열적 학습 가능하도록 편성 운영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시 교사 추천서, 주 단위 시험 성적, 교과목 시험 성적, 선행 과목 이수 등 필요, 수학은 9학년 성적과 주 표준 시험 성적에 따라 10학년 수학 과목 선택(내용 위계)			기초 또는 I과목을 필수로 이수	HL 또는 SL 선택 이수
	2-2-3 이수 면제 (이수 인정 평가)	없음	속진과정프로그램(CAPE3)으로 이수 면제	※ 수업 참여 없이 개인적 학습 인정	없음	고등학교졸업정도 인정시험의 합격 과목 단위 인정	없음
	2-2-4 학점 인정 기준 및 범위						
	2-2-4.1 학점 인정 대상 기관	다른 학교, 지역사회 학습장	중학교과정(선수 과목), 대학 (이중등록제), 온라인 강좌	일정 여건을 갖춘 다른 기관 원격교육	※ 독일은 학교 교육 의무 있어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과정 이수	대학, 고등전문학교 또는 전수학교, 다른 학교, 통신제 과정	온라인 이수
	2-2-4.2 학점 인정 대상 과목	※ 한국교육개별원 온라인 수업 2015, 15과목 2009, 45과목 ※ 폴리텍대학 등 직업과정 위탁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과목, AP 과목, 기타 다양한 선택 과목	선수학습 또는 다른 곳에서 이수한 과목은 필수, 심화 응용과목으로 인정	※ 학교가 개설한 과목 내에서 선택	제한 없음	(온라인 개설 과목) 4개 교과군 18과목
2-2-4.3 학점 인정 범위	※ 폴리텍 대학 등 직업과정 1년 위탁	11학점 ※ 총 이수 학점의 약 46%	없음	없음	해외유학 30단위 까지 학교 간 연계 36 단위까지 ※ 총 이수 단위의 약 41~49%	이수 과목 수 제한 없으나 보통 1-2과목 선택 ※ 총 이수 과목의 30% 내외	

23) 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력시험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이수가 면제되는 속진과정(Credit Acceleration Program, CAP)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2-2-1. 학기 당 이수 과목 수(예능 포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6 과목	7-8 과목	9-10 과목	11-12 과목	13-14 과목	
2-2-2.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조건(교사 추천서, 선 이수 과목의 성취도 등)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2-2-3. 과목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2-2-4-1. 학교 밖 학습을 관련 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2-2-4-2. 학교 밖 학습을 관련 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2-2-4-3.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10%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20%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30%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40%	
※ 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의견]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참고>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관련 국제 비교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2-3-1. 교과 평가 방식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행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2-3-2.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	5단계와 9단계	5단계와 점수 (A-4,B-3,C-2,D-1,F-0)	점수(10-4)	평어(6단계)와 점수(15-1)	1,2학기말 10단계 학년말 5단계 (5-1)	점수(7-1)	
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	없음	F 과목, 출석 반영 ※ 앨버타주 교과별 출석률 50% 반영	4점 이하 과목	5점 이하 과목, 지침에 맞게 출석의무, 수업 불참 시 0점부여	평정 1 미취득(단위제고등학교) 출석 시수의 1/5미만 미이수, 한과목이라도 미취득시 유급(보강, 추가 시험 등 탄력적)	3점 이하 과목 이수 시간 준수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2-3-4 졸업 요건	출석 일수의 2/3	24학점, GPA 2.0 (4점 만점)이상	75과목이수, 졸업 시험	35과목, 아비투어 100점 이상 ²⁴⁾ ※ 기본 과목 30개, 능력 과목 8개, 총 38개 과목에서 점수 획득, 이중 5점 미만 (D학점 해당) 기본 과목 8개 이하, 능력 과목 ²⁵⁾ 3개 이하	3년 이상 재적, 74단위 이상 이수, 특별활동 성과 만족	HL3과목(4이하), SL 3과목, TOK, EE, CAS 이수, 45점 만점에 24점 이상 취득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없음	대학선이수제, 이중등록제, 고급반 과목 수강하고 C 학점 이상 받으면 GPA 가산점	심화 교과로 '집중탐구리포트' 제출하면 내신 총점 계산 시 30점까지 가산점, 아비투어 시험 과목 중 능력과목 2개는 내신에 2배 반영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2-3-1. 교과 평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과목 상대평가	필수과목 상대평가, 선택과목 절대평가	필수과목 절대평가, 선택과목 상대평가	전 과목 절대평가		
2-3-2. 과목 성취도는 몇 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체능 예외 ※ 단계별 평점의 예(9단계 가정) A+(4.5), A(4.0), B+(3.5), B(3.0), C+(2.5), C(2.0), D+(1.5), D(1.0), F(0.0)	3단계 (A, B, C)	5단계 (A, B, C, D, F)	9단계 (A+, A, B+, B, C+, C, D+, D, F)	13단계 (A+, A, A-, B+, B, B-, C+, C, C-, D+, D, D-, F)	기타	

24) 아비투어시험 과목은 4-5과목(4학기 이수), 이 중 2과목은 능력과목, 내신 200점 이상(600점 만점) 되어야 아비투어 응시 가능

※ 전체 아비투어 성적(900점): 내신(600점)+아비투어시험(300점)

25) 능력 과목이 2개 이므로 2년(4학기) 동안 8강좌 수강

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단기 가정 문항 2-3-2 참조)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	D	F + 출석 시수	D + 출석 시수	출석 시수
2-3-4. 졸업 요건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학점 충족	기준 학점 충족 + 졸업 평점	기준 학점 충족 + 졸업 시험	기준 학점 충족 + 졸업 평점 + 졸업 시험	기타
2-3-5. 상위 수준의 이수 과목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시(미국/플로리다주) 일반과목 A 4점/고급수준 A 5점(+1)/AP A 6점(+2)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의견]					

2-4. 학점 회복

<참고> '학점 회복' 관련 국제 비교								
구성 요소	대한민국	미국(플로리다주)	핀란드	독일	일본	IBO(IBDP)		
2-4 학점 회복	2-4-1. 학점 회복용 기준	없음	D, F 과목의 경우 C 이상 취득 시 이전 학점 포기 가능, 단, 중학교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C, D, F 과목의 C 이상 취득 시 가능 ⁶⁾	전 과목(낙제 과목 포함) ※ 성적 향상위한 재시험 가능, 신청 과목 수에 따라 낙제 허용 범위 제시(학점과 점수(4점) 인정)	※ 과락(5점 이하)	※ 유급 원칙이나 단위제 병용되는 것 고려하여 탄력적 운용	※ 과락(3점 이하)	
	2-4-2. 학점 회복에 의한 성취도 취득 기준	없음		상한선 없음			없음	
	2-4-3.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없음	C 이상 취득 시 이전 기록에 'X' 표시 ⁷⁾ , 이후 'I' 표시, 누적 GPA 계산 시 'I' 표시 등급 포함, C 이상 취득하지 못하면 이전 성적 유지 관련 기록 삭제 불가능	필수, 특별 과목에서 낙제한 경우 데이터 삭제 안 됨(성적 없을 수도 있음)				
	2-4-4. 학점 회복 방법	없음	필수 과목은 동일 유사 과목 선택 과목은 다른 과목 이수 ※ 4년 동안 학점은 충족되었으나 누적 GPA 미달 시 특별 수업,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전입 후 과목 평가 통과 못하면 포트폴리오 평가, 교사추천서 등 포함	재시험	재시험	보강 또는 추가 시험	재시험	

6) 학점 회복은 이미 135시간을 이수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며,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과 누적 GPA 또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하도록 돕는 것임.

7) "X" - Exclude, "I" - Include.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p>2-4-1. 학점 회복 허용 기준(9단계 가정 문항 2-3-2 참조)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F는 학점 취득 필요</p>	D+ 이하	C 이하	C+ 이하	B 이하	제한 없이 허용	
<p>2-4-2.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성취도의 상한선(9단계 가정, F학점 과목 포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C+	B	B+	A	A+ (제한 없음)	
<p>2-4-3. 학교생활기록부 성취도 기재 시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와 이전 취득한 성취도(F학점 포함)를 병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p>2-4-4. 학점 회복 방법은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보충학습	보충학습 + 재시험	재시험	재수강	기타	
<p>※ 학점 회복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p>						
<p>[의견]</p>						

<부록 2>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 관한 2차 델파이 조사지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 관한 델파이 조사(2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지를 작성하였습니다. 2차 조사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보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된 부분은 문항 하단에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문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2차 조사지의 구성은 1차 조사지와 동일하나 1차 조사의 응답 결과와 본인 응답 사항을 기재하고 델파이 패널의 의견을 수합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을 참고하셔서 다음과 같이 2차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1차 조사에 응답하신 결과와 다르게 응답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 1차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는 해당란에 (V)표시 되어 있습니다.

2. 1차 조사에서 제시한 의견 외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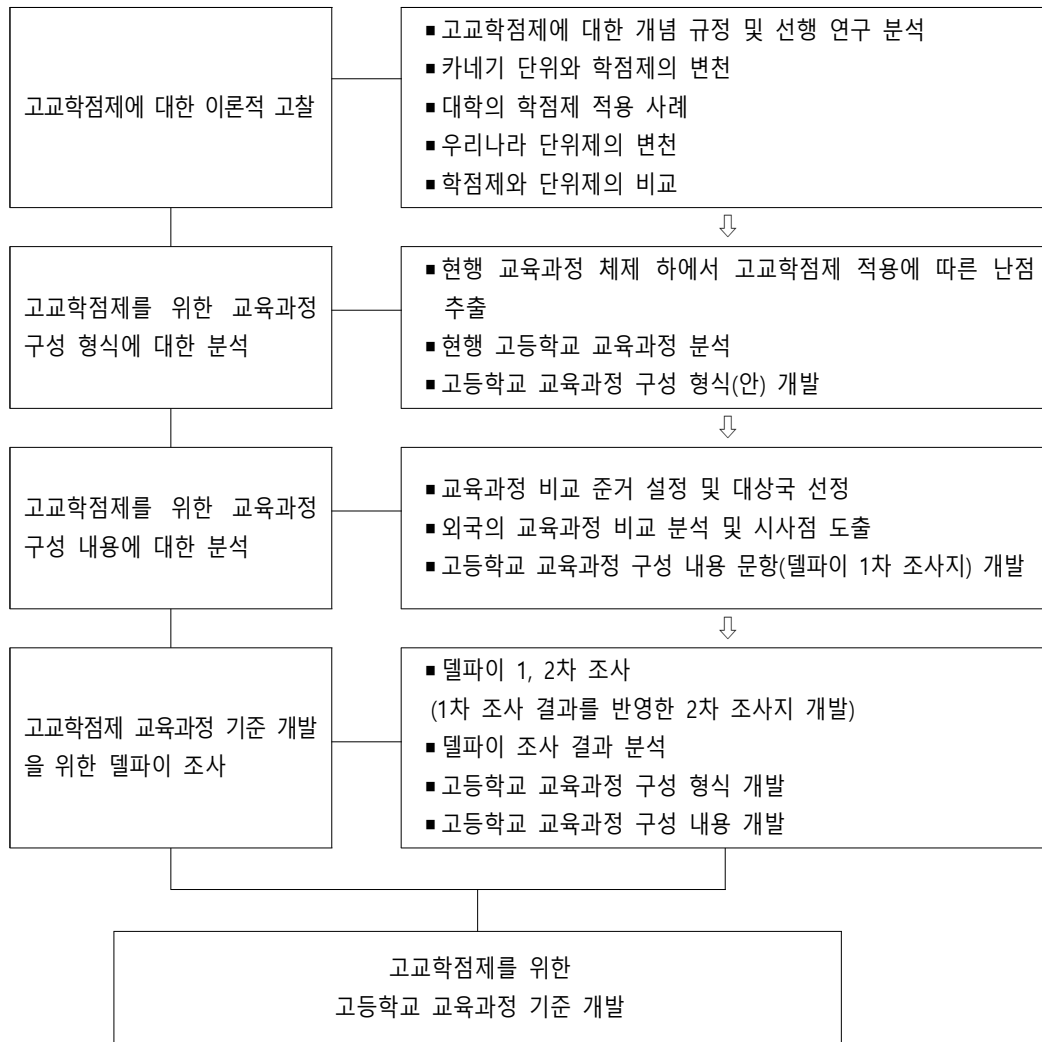
본 조사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2차 조사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응답방법: 보내드린 조사지에 응답하신 후 저장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 수신자: 우옥희(wooky@korea.kr) / 010-5097-2429
- 2차 조사 기한: **2018. 10. 17.(수)까지**

2018년 10월 10일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과정 전공
박사과정 우옥희
지도교수 김대영

본 연구는 [그림]과 같이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로 일반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지는 교육과정 구성 형식 개발을 위한 **고교학점제 관련 구성 형식의 타당성**에 관한 문항과 교육과정 구성 내용 개발을 위한 **2개의 영역과 8개의 구성 요소에 따른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응답자의 반응률과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설문 응답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연구 체계도

I. 고교학점제 관련 구성 형식의 타당성

※ 아래 문항은 '고교학점제 관련 구성 형식'의 타당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1차 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1차 응답 결과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그 의견을 아래 [의견]란에 기술해 주십시오.

구성 형식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대체로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1. 학점 배당 기준	1-1. 학점의 기준	1-1-1. 학점의 기준	1차 응답률	3.8%	0.0%	3.8%	46.2%	46.2%
			본인 응답					
			2차 응답					
		1-1-2. 1학점 기준 수업량	1차 응답률	3.8%	3.8%	3.8%	34.6%	53.8%
			본인 응답					
			2차 응답					
	1-1-3. 과목 당 기본 학점	1차 응답률	0.0%	0.0%	11.5%	34.6%	53.8%	
		본인 응답						
		2차 응답						
	1-2. 최소 이수 학점	1-2-1.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	1차 응답률	0.0%	3.8%	3.8%	23.1%	69.2%
			본인 응답					
			2차 응답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규정(평가 유무)	1차 응답률	3.8%	7.7%	7.7%	34.6%	46.1%
			본인 응답					
			2차 응답					
	1-2-3.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량	1차 응답률	3.8%	11.5%	11.5%	46.2%	26.9%	
		본인 응답						
		2차 응답						
	1-3. 과목 당 학점 배당	1-3. 과목 당 기본 학점의 증감 규정	1차 응답률	11.5%	3.8%	26.9%	34.6%	23.8%
			본인 응답					
2차 응답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의 배당 비율	1차 응답률	3.8%	0.0%	15.4%	42.3%	38.5%	
		본인 응답						
		2차 응답						
1차 조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학점 증감 규정 두면 무너짐. 급간을 두고 제시할 수도 있음 • 현행 고교 단위제 이수 체제가 학점제로 그대로 유지되어 전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봄. 이유는 교과의 학습량, 수준, 범위 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유지되지 않는다면 교과 교육에 많은 갈등이 발생해 교육과정 체제를 혼드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그러나 유지될 경우 고교에서 학습자 요구에 맞게 다양한 교과목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당 수업시수를 30시간 내외로 조정이 필요. 학점제에 따른 이동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간 시간 확보와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과목의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이수를 위하여 학기당 이수과목수와 주당 수업시수 축소가 필요함. • 기본 학점 증감 규정은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생각함 • 교과 평가 방식은 광범위 하므로 교과(과목) 평가가 타당할 것임.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의 의미가 모호함. 						
		2차 의견	•					

2. 교육 과정 편성·운영 기준	2-1. 과목 편성	2-1-1. 학년제/무학년제 편성		1차 응답률	0.0%	0.0%	19.2%	30.8%	50.0%
				본인 응답					
				2차 응답					
		2-1-2. 위계 또는 수준별 과목 편성		1차 응답률	0.0%	3.8%	19.2%	30.8%	46.2%
				본인 응답					
				2차 응답					
	2-2. 과목 이수	2-2-1.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1차 응답률	0.0%	7.7%	7.7%	30.8%	53.8%
				본인 응답					
				2차 응답					
		2-2-2. 상위 수준 과목 이수 조건		1차 응답률	0.0%	0.0%	3.8%	46.2%	50.0%
				본인 응답					
				2차 응답					
		2-2-3. 이수 면제(이수 인정 평가)		1차 응답률	0.0%	7.7%	19.2%	34.6%	38.5%
				본인 응답					
				2차 응답					
		2-2-4. 학점 인정 기준 및 범위	2-2-4-1. 학점 인정 대상 기관	1차 응답률	0.0%	0.0%	23.1%	30.8%	46.2%
				본인 응답					
				2차 응답					
			2-2-4-2. 학점 인정 대상 과목	1차 응답률	0.0%	0.0%	19.2%	42.3%	38.5%
				본인 응답					
				2차 응답					
			2-2-4-3. 학점 인정 범위	1차 응답률	0.0%	0.0%	15.4%	46.2%	38.5%
				본인 응답					
				2차 응답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2-3-1. 교과 평가 방식		1차 응답률	3.8%	3.8%	30.8%	30.8%	30.8%
				본인 응답					
				2차 응답					
		2-3-2.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		1차 응답률	0.0%	7.7%	7.7%	46.2%	38.5%
				본인 응답					
2차 응답									
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		1차 응답률	0.0%	3.8%	3.8%	38.5%	53.8%		
		본인 응답							
		2차 응답							
2-3-4. 졸업 요건		1차 응답률	0.0%	0.0%	7.7%	26.9%	65.4%		
		본인 응답							
		2차 응답							
2-3-5. 상위 수준 이수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1차 응답률	0.0%	23.1%	23.1%	34.6%	19.2%		
		본인 응답							
		2차 응답							

2-4. 학점 회복	2-4-1. 학점 회복 허용 기준	1차 응답률	0.0%	3.8%	11.5%	38.5%	46.2%
		본인 응답					
		2차 응답					
	2-4-2. 학점 회복에 의한 성취도 취득 기준	1차 응답률	0.0%	3.8%	11.5%	46.2%	38.5%
		본인 응답					
		2차 응답					
	2-4-3.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1차 응답률	0.0%	11.5%	15.4%	38.5%	34.6%
		본인 응답					
		2차 응답					
	2-4-4. 학점 회복 방법	1차 응답률	3.8%	3.8%	15.4%	42.3%	34.6%
		본인 응답					
		2차 응답					
1차 조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4의 학점 회복 방법은 <학점 회복 허용 기준>에 통합해서 <학점 회복 허용 기준과 방법>으로 수정(중복 느낌) • 2-3-1. 교과 평가 방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위 항목이 더 필요함. 상대 평가/절대 평가, 교내 평가/교외 평가, 지필 평가/수행 평가 등 • 교과 평가 방식은 광범위 하므로 교과(과목) 평가가 타당할 것임. '과목 성취도의 단계 설정'의 의미가 모호함. 2-3-3은 1-2-1, 1-1-3과 중복됨 • 학생들의 필요한 선택과목의 집중적 이수와 학습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축소가 필요하다고 봄 						
2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Ⅱ. 고교학점제 관련 구성 내용

※ 아래 문항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내용 개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차 조사 결과 문항별 응답률과 본인 응답, 전문가 의견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차 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칸에 (V)표시 하여 주시고, 1차 응답 결과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견]란에 기술해 주십시오.

1. 학점 배당 기준

1-1. 학점의 기준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1-1-1. 학점의 기준(1시간 수업 50분 기준은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응답률	75.0%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뀌야함. 너무 적음(작음). 현재의 단위제도 학기단위 이수를 원칙을 함. 예외적으로 학년제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 현행보다 늘려야 함. 교과/과목으로 가능하기 위한 최소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학기/학년별 최소 이수단위가 지금보다 높게 형성되어야 함.
	본인 응답						
	2차						
1-1-2. 1학점의 기준 수업량은 어느 정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수업량) ① 16회(주는 주당 1회 1학기 기준 ② 34회(주는 주당 1회 2학기(혹은 1년) 기준 의미	1차 응답률	48.0%	40.0%	0.0%	0.0%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너무 적음. 주당 몇 회가 있어야 의미 있는 기준이 됨. 17주(회)를 15 또는 16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음. 68회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 1학기를 기준으로 15회 정도
	본인 응답						
	2차						
1-1-3. 과목당 기본 학점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체능 예외	1차 응답률	38.5%	34.6%	23.1%	0.0%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목의 비중에 따라 학점 비중은 다를 수 있음. 2-3학점 정도 과목에 따라 다르게 설정(기초교과, 탐구교과)
	본인 응답						
	2차						
※ 학점의 기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주십시오.							
1차 조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점 기준 수업량은 회수보다는 '50분 기준 17차시'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있음, 1시간 수업분량은 현행대로 50분을 기준으로 하되, 실험, 실습, 실기를 주로 하는 과목은 100분 수업 기준으로 함. 선진국의 수준을 고려하고, 그리고 지역이나 학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탄력적인 최소기준을 제시함. 필수, 선택, 교양 등 교과 구분에 따라(학습량을 고려한) 학점을 다르게 적용. 						
2차 조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최소 이수 학점

구성 형식		구성 내용					1차 조사 의견
1-2-1. 졸업을 위한 교과 최소 이수 학점 (기본 수업 연한 3년 기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학점은 17회(50분 수업)로 산정함	1차 응답률	19.2%	46.2%	30.8%	3.8%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제에 비해 학점제의 경우 이수에 대한 학생 부담이 커지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습 총량을 줄여주어야 함. 학습 분량은 현행 단위제와 차이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임.
	본인 응답						
	2차						
1-2-2. 비교과(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는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은 단위와 시간을 병용하고 있으나 학점으로 규정 시 학점 이수 조건(평가) 충족해야 함	1차 응답률	29.6%	7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 분명히 하고 형식을 달리해야 함. 비교과의 성격상 이수 여부만 판단(P/F)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총체 24학점 중 50%는 국가 수준에 맞게 필수 운영하고 나머지는 학교별 특성화하여 운영하는 방안(12학점 204 시간) 비교과는 영역별로 1-6학점까지 다양화할 필요 있음. 자율적으로 비교과 학점으로 규정하면 교과처럼 재이수 규정 될 것인지 검토 필요 활동의 성격에 따라 필수 이수 시간 기준을 설정(예) 봉사활동 20시간 등
	본인 응답						
	2차						
1-2-3. 비교과(창의적 체험 활동)의 활동량 은 어느 정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응답률	32.0%	40.0%	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래 들어 비교과가 강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행보다 감축은 곤란함. 6학점 정도 증가시켜 수능 이후의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
	본인 응답						
	2차						
※ 최소 이수 학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주시십시오.							
1차 조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과는 최소 1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학생 개인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영역별로 1~6학점까지 자유롭게 이수가능 하도록 허용 최소 이수 기준 학점을 정해 주고 질적인 담보를 위해 IB처럼 단계를 고려하여 구성하면 좋겠으며, 추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새로운 지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를 비교과 활동에 반영하였으면 좋겠음. 비교과의 이수 인정은 이수 시간과 활동 내용을 종합 평가한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 시대 변화에 따라 체험하고 숙고하는 활동과 여유로움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차 조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 과목 당 학점 배당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1-3. 과목 당 기본 학점에 대해 증감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응답률	19.2%	15.4%	11.5%	38.5%	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부적절함. 학교의 자율편성에 의하되 기본 상하한선을 제시 기본 학점 4학점으로 하되 ±2단위까지 증감 허용 증감 규정 두면 재이수나 대체이수,
	본인 응답						

※ 예체능 예외	본인 응답					전출입에 의한 학점 취득에 문제 발생 우려
	2차					•
※ 과목 당 학점 배당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주시시오.						
1 차 조 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180학점을 유지하되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을 150 또는 160학점 등으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일부 선택과목의 경우 F를 맞아도 졸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 또한 이수학점 감축으로 인한 학력저하 우려 등의 문제제기가 없을 것임.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고 생각함. 6학점 정도 증가시켜 수능 이후의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전 교과는 학기단위 이수를 필수로 하여 현재처럼 수능과목위주로 증배해서 1년간 이수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 있음.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과목위주로 8단위 이상 증배하여 학기단위가 아닌 1년 단위 운영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 있음(전문교과제외). 과목별 학습량을 고려한 고정된 학점 배당이 필요함. 					
2 차 조 사 의견	•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배당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필수30% 선택70%	필수40% 선택60%	필수50% 선택50% (현행)	필수60% 선택40%	필수70% 선택30%		
1-4.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의 배당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응답률	15.4%	46.2%	15.4%	19.2%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별 학습기회(학습권) 보장이 중요하지, 필수 선택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 필수의 비중은 최소화하여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 진로 맞는 선택 교육과정이 강화되어야 함. 수능시험 과목과 교원 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6:4 적정하다고 봄. 선택이 많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 이상적으로는 선택이수 학점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학교 현장에서 대입과 관련하여 편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함.
	본인 응답						
	2차						
※ 필수 이수 학점과 선택 이수 학점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주시시오.							
1 차 조 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와 선택의 이수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필수는 미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이수 등을 통해 반드시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지, 이 경우 필수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최소화할 필요 있음. 필수보다 선택을 확대하여 개인의 진로별 특성에 맞는 소양과 전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선택과목의 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단위학교의 과목별 교사 T.O가 있고 교원 수급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과목선택권 확대는 어려운 상황임. 학기단위로 교원수급이 원활하도록 학기단위 교사 발령 확대, 기간제계약제 교원의 학교장 임용권 확대, 겸임교사 확대 등 단위학교 교원수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선택을 늘리는 것과 학교에서 가능한 과목을 개설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 후자에 방점을 두어야 함. 						
2 차 조 사 의견	•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2-1. 과목 편성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2-1-1.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은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과목 선택과목 모두 학년제	필수과목 학년제 선택과목 무학년제	필수과목 무학년제 선택과목 학년제	필수과목 선택과목 모두 무학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이수 시 재수강 등을 고려한다면 무학년제 운영이 적절 필수과목은 사실상 1학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3학년에 학점제 적용으로 무학년 운영제가 가능할 수 있음. 	
	1차 응답률	3.8%	65.4%	0.0%	30.8%		
	본인 응답						
	2차						
2-1-2. 모든 과목은 난이도에 따라 위계 또는 수준을 설정(예: 기초/보통/심화)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7무응답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도보다 기술, 체육, 예술, 사회처럼 수평적으로 다른 영역일 뿐임. 그 안에서는 다시 나뉠 수도 있지만, 고교는 난도보다 학습량의 문제이고, 더구나 진로별 학습기회가 주어지는 등의 문제임. 모든 과목을 할 필요가 없으며, 위계가 필요한 과목 위주로 설정해야 함. 과목, 학교 상황, 학생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 과목에 따라 달라짐. 모든 과목을 설정하지 않고 필수과목은 선정하고 선택과목은 자유롭게 기초 교과는 반드시 수준이 설정되어야 함. 	
	1차 응답률	0.0%	12.0%	24.0%	48.0%		16.0%
	본인 응답						
	2차						
<p><추가 문항> 위계 또는 수준을 설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과목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p>							
<p>※ 과목 편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p>							
1 차 조 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이도에 따라 위계 또는 수준을 설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과목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어 이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모든 과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임. 모두 단계별로 제시하면 과부하 됨. 기초 수준만 학습해도 되는 몇몇 교과와 같은 것들은 위계를 정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학점제 정착할 때까지 이행 조치와 경과 기간을 두어 입시제도개선과 병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선택과목을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무학년제인가 학년제인가의 중요성 보다는 위계가 있는 교과목의 이수 경로를 확실하게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됨. 						
2 차 조 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 과목 이수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2-2-1.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예제능 포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6 과목	7-8 과목	9-10 과목	11-12 과목	13-14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160학점, 과목당 3학점을 고려한다면 학기당 8과목 내외가 적절할 것임. 학습부담 경감과 진로연계과목에 대한 집중적 학습을 위해 과목 수 축소 필요 	
	1차 응답률	23.1%	65.4%	11.5%	0.0%		0.0%
	본인 응답						
	2차						

2-2-2.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조건 (교사 추천서, 선 이수 과목의 성취도 등)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꼭 필요한 과목에 한정하여 제시해야 할 것임. • 추천서는 삭제하고 성취도는 확인이 필요함. •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 필요
	1차 응답률	3.8%	7.7%	11.5%	46.2%	30.8%	
	본인 응답						
	2차						2차
2-2-3. 과목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과목은 사교육을 통해 과목 이수 인정 평가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 • 과목에 따라 고려할 수 있으나 사전에 평가하여 이수 면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 • 학원이 성업할 가능성이 있음. • 지나친 경쟁학습 유발 우려 •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봄.
	1차 응답률	12.0%	24.0%	28.0%	28.0%	8.0%	
	본인 응답						
	2차						
2-2-4-1. 학교 밖 학습을 관련 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연계, 전문 공공기관 등에 국한
	1차 응답률	0.0%	0.0%	3.8%	46.2%	50.0%	
	본인 응답						
	2차						
2-2-4-2. 학교 밖 학습을 관련 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개설이 곤란한 과목에 대해서만 허용 • 학교가 유지(교육 질서) 되려면 당연히 제한해야 함. • 교육과정에 없거나 현행 교사자격증이 없어 학교 개설이 어려운 과목으로 한정 필요
	1차 응답률	0.0%	3.8%	0.0%	46.2%	50.0%	
	본인 응답						
	2차						
2-2-4-3.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10%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20%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30%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강좌 등으로 시범 실시해 보고 차츰 확대 •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 범위는 지역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함. • 가장 최소화로 도입하고 점진적 확대를 검토
	1차 응답률	7.7%	42.3%	26.9%	15.4%	7.7%	
	본인 응답						
	2차						
※ 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1 차 조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학습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그 인정 범위는 국가수준보다는 지역이나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 관리가 예민한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질 관리 방안이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학습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학생들의 필요가 있다면 좀 더 자유롭게 해 줘야 되며,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기준을 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봄 						
2 차 조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2-3-1. 교과 평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응답률	0.0%	19.2%	0.0%	8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점수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절대평가가 좋으며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연계 절충평가 고려 (예)학교 50%+평가원50% pass/fail로만 평가하는 과목도 필요할 수 있음. 우선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봄. 필수과목도 낮은 수준은 절대평가하고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대평가 	
	본인 응답						
	2차						
2-3-2. 과목 성취도는 몇 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제는 예의 ※ 단계별 평점의 예(9단계 가정) A+(4.5), A(4.0), B+(3.5), B(3.0), C+(2.5), C(2.0), D+(1.5), D(1.0), F(0.0)	1차 응답률	3.8%	46.2%	46.2%	3.8%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에 따라 진로에 더 중요한 것은 더 엄정하게 고교 학점제에서 F(과락)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대입과 연계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 세분화할수록 경쟁이 커질 것이므로 5단계 평가가 적절 3단계가 적절하다고 봄. 평가를 세분화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 고 봄.
	본인 응답						
	2차						
2-3-3.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최소 이수 기준(9단계 가정 문항 2-3-2 참조)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 ① 최소 이수 기준 F: 시험 응시 하면 학점 인정출석 반영 없음 ② 최소 이수 기준 D: D 미만 과락 ③ F+출석시수: 과락 없이 출석 요건만 충족되면 학점 부여 ④ D+출석: D등급 이상, 출석 요건 충족 ⑤ 출석 시수: 시험 응시하지 않아도 출석 요건만 충족하면 학점 부여	1차 응답률	0.0%	8.0%	36.0%	56.0%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 F는 학점 미이수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F도 이수로 보는지 불분명함
	본인 응답						
	2차						
2-3-4. 졸업 요건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응답률	34.6%	38.5%	15.4%	11.5%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 관리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졸업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제시가 필요함
	본인 응답						
	2차						

2-3-5. 상위 수준의 이수 과목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시(미국/플로리다주) 일반과목 A 4점 고급수준 A 5점(+1) AP A 6점(+2)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 유발 촉진
	1차 응답률	19.2%	15.4%	19.2%	42.3%	3.8%	
	본인 응답						
	2차						•
※ 교과 평가 및 이수 기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1 차 조 사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내신 성적이 대입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현실에서 상위 수준 과목에 대한 이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학교교육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 우리교육에서 AP과목 도입 논의 시 여러 문제점 제기로 UP제도로 변경하여 도입했으나, 대입에의 영향을 고려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게 한 경험을 고려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전 과목 절대평가로 하되 우선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입시에서도 전공 관련과목(또는 인접과목)을 이수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유의미한 과목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평가 및 이수 기준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것이 좋다고 보며, 고교 학생들에게 평가와 이수를 통해 새로운 진로와 진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함. 						
2 차 조 사 의 견	•						

2-4. 학점 회복

구성 형식	구성 내용					의견	
2-4-1. 학점 회복 허용 기준 ⁹ 단계 가정 문항 2-3-2. 참조)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점 회복은 이미 취득한 학점을 높이기 위한 방안임(F는 학점 미취득)	D+ 이하	C 이하	C+ 이하	B 이하	제한 없이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인 경우 적절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나, 절대평가인 경우 제한을 두는 것은 부적절함. • 재이수는 본인의 결정이며 최저 성적만 갱신 기회 제공 •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지나친 경쟁 유발 	
	1차 응답률	38.5%	42.3%	3.8%	7.7%		7.7%
	본인 응답						
	2차					•	
2-4-2.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성취도의 상한선 ⁹ 단계 가정 F학점 과목 포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	B	B+	A	A+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인 경우 적절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나, 절대평가인 경우 제한을 두는 것은 부적절함. • 대학 체제와 유사하게 운영 • 최소 성취기준을 C 정도로 설정함이 타당함. 	
	1차 응답률	11.5%	3.8%	42.3%	19.2%		23.1%
	본인 응답						
	2차					•	
2-4-3. 학교생활기록부 성취도 기재 시 학점 회복에 의해 취득한 성취도와 이전 취득한 성취도(F학점 포함)를 병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신을 중시하는 대학입시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 • 학사의 모든 이력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거 실패한 학습경험이나 이력을 기록에 남기는 것은 학생자신도 불명예로 생각해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음. 	
	1차 응답률	23.1%	23.1%	7.7%	26.9%		19.2%
	본인 응답						
	2차					•	

		보충학습	보충학습 + 재시험	재시험	재수강	기타	
2-4-4. 학점 회복 방법은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응답률	3.8%	57.7%	7.7%	26.9%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학습, 재수강을 모두 허용하여 학생 선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수강만 바람직하다고 봄.
	본인 응답						
	2차						

※ 학점 회복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1 차 조 사 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이수 요건이나 재이수의 최고 성적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재이수(재수강) 빈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매학기 이수해야 하는 기본 학습량이 있어 실제 재이수가 빈번할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 • 보충학습이나 재수강 등의 전제 없이 단순히 재시험만을 허용하는 것은 성적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 모두 응시할 가능성이 있어 운영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 재시험을 허용한다면 시기나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학기별로 학점 회복과목도 D나 F과목으로 한정하고 학기별 학점 회복 또는 재이수 과목도 1~2과목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학점 회복 방식은 현행 대학의 방식을 따르면 좋지만 고교학생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봄.
2 차 조 사 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록 3> 델파이 패널 수에 따른 내용 타당도 비율(CVR)의 최소값

패널 수	CVR 최소값
5	.99
6	.99
7	.99
8	.75
9	.78
10	.62
11	.59
12	.56
13	.54
14	.51
15	.49
20	.42
25	.37
30	.33
35	.31
40	.29

p = .05

※ Lawshe, C. H.(1975: 568)

Abstract

Curriculum Standards Development for High School Credit System

Ok-Hee Woo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Dae-Young Kim

High school credit system is one of key educational policies of Moon Jae-In's governments. Regarding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at it will be introduced in part by 2022, and introduced fully by 2025. In case of high school, the principle of curriculum organization has been a unit system from the Second National Curriculum to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however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high school has been operated by the graded school system. Given that unit system guarantees students more choice of subject matters and that credit system accompanies quality control based on unit system, high school curricula, which are operated by year system, should find way to implement unit system first and prepare quality control regulations by revising national curriculum in the future. In accordance with this ne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the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for high school credit system

This study aimed at preparing the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for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analyzed the research schools for credit system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unit system, and conducted international comparison studies, and Delphi investigation to define the form and content for credit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school for credit system, the securing teachers because of increasing the number of elective subjects, scheduling, grading disadvantage in small school, the placement of curriculum coordinator for student career design are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the national curriculum operation. From the literature reviews the curriculum elements related to qualitative requirements, such as the definition of credit, the amount of class per 1 credit, the amount of credits per subject, the distribution ratio of mandatory and elective subjects, non-graded system, the method of grading, course retaking, re-acquisition of grading, and the requirements for graduation, are extracted.

Second, the national curriculum was developed by dividing it into the format and contents of the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format was developed into 8 components and 25 items, and the final version was developed into 2 domains, 8 components and 20 items after validity verification. The contents of curriculum organization were drafted based on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urricular by U.S.(Florida State), Finland, German, Japan and IBDP, and the Delphi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to finalize the contents of curriculum organization.

Third, the curriculum standards for high school credit system were developed as sub-components of 'the standards for allocating credits' and 'the standards for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That is, the ways of quality control, i.e. the minimum number of credits for the graduation, the credits ration of the mandatory and elective course, the organization and completion of subjects, the requirement of the graduation, are key components for curriculum organization format.

The contents of curriculum organization for high school credit system are criteria for high school curricula design and implementation. Therefore, 1 credit was defined as 16 classes based on 50 minutes per class, giving 3 credits per subject without increasing or decreasing credits. The minimum number of credits for the graduation, and the number

of credits for the mandatory course have been reduced compared with 2015 National Curriculum. The order of subjects are established by student career and aptitude. In order to organize non-graded system and expand the students' choice of subjects, out of school learning was accepted as credits, but the limiting conditions are specified. In addition, the requirements for the graduation were strengthened to manage the quality of high school curricula.

The above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s for the curriculum standards for credit system. In order for high school credit system to be successfully settled in high school, however, not only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but also the college entrance exams need to be developed. Therefore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o connect the credit system to the college entrance exams.

Key Words: High school credit system, Unit system, Graded school system,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Curriculum organization system

